

석사학위논문

# 나무의 마법사

*The Wizard in the Tree*

로이드 알렉산더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조 은 정

2005년 2월

석사학위논문

# 나무의 마법사

*The Wizard in the Tree*

로이드 알렉산더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조 은 정

2005년 2월

# 나무의 마법사

지도교수 김 원 보

조 은 정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조은정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심사 위원 \_\_\_\_\_

심사 위원 \_\_\_\_\_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The Wizard in the Tree*

by LLOYD Alexander

Eun-jung Cho

(Supervised by Professor Won-bo Kim)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e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05

## 목 차

Abstract .....	1
제 1 장 .....	2
제 2 장 .....	10
제 3 장 .....	18
제 4 장 .....	29
제 5 장 .....	38
제 6 장 .....	46
제 7 장 .....	52
제 8 장 .....	60
제 9 장 .....	65
제 10 장 .....	72
제 11 장 .....	79
제 12 장 .....	88
제 13 장 .....	97
제 14 장 .....	104
제 15 장 .....	112
제 16 장 .....	116
작 가 소 개 .....	121
참 고 문 헌 .....	122

## Abstract

This book, *The Wizard in the Tree* by Lloyd Alexander, is a story of bravery and friendship in which a girl named Mallory and a magician named Arbican work together to save Mallory's village from the greedy Squire Scrupnor. With many twists and turns, this fantasy invites readers into the world of magicians and leads to the realization that human beings have their own type of magical power which is as strong as that of magicians: sincere wishes and the will to achieve them.

The story unfolds as Mallory notices something weird in the old oak tree which she has pretended is her enchanted tower. She investigates and discovers that the strange being trapped in the tree is a magician named Arbican. Mallory, who has adored fairy tales, magicians and their magical power becomes so excited in expectation that Arbican will make all her wishes come true in return for rescuing him. Stuck in the tree for a long time, however, Arbican has lost his magical powers and fails to conjure up anything for Mallory. Though she is disappointed, Mallory tries to help Arbican whose fellow magician folk have long left for Vale Innis, the land of magicians. In the process, Mallory and Arbican unintentionally become entangled in many mishaps because of the villainous new Squire Scrupnor, who killed his predecessor Mr. Sorrel to fulfill his greed. He tries to use Arbican and Mallory as convenient scapegoats and accuses them of killing Mr. Sorrel to get all the late squire's fortune. Overcoming difficulties together, Mallory and Arbican deepen their friendship. Arbican teaches Mallory, who has yearned for magical power, that she has more than enough power to make her dreams come true even without magic as long as she desires them sincerely and pursues them.

- 1 장 -

말로리의 떡갈나무는 쓰러져 있었다. 그 나무는 나무꾼들이 쓰러뜨린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숲을 벌목하기 위해 고용된 마을 사람들이 이미 작업을 끝낸 터라 그곳엔 쓰러진 나무들과 그루터기들이 쭉 늘어져 있었다. 언젠가 말로리는 그 오래된 떡갈나무가 영원히 그곳에 있을 마법의 탑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나무는 덤불에 가지가 뒤엉킨 채 너부러져 있다. 애석한 마음으로 돌아서려 했을 때 무언가가 말로리의 시선을 끌었다. 회색의 실 가닥 같은 것이 나무 기둥 속에서 꼬불꼬불 나와 있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기둥이 거의 쪼개져버렸는데 무엇인가가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얼핏 보니 그것은 다람쥐나 족제비인 것 같았다. 말로리는 덤불에 치마가 뜯겼지만 개의치 않고 잼싸게 그쪽으로 가서 바구니를 내려놓고 꿰어앉아 나무속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동물의 꼬리이겠거니 생각했던 그것은 형클어진 턱수염의 꼬트머리였다. 뽀족한 콧날은 쪼개진 나무 기둥 사이로 삐죽이 나와 있었고, 두 눈을 말로리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나무 기둥 깊숙한 곳에서는 쉼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그만 좀 쳐다보고 나 좀 여기서 꺼내주지 그러냐?”

순간 말로리는 입이 떡 벌어졌다. 도망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몸이 바들바들 떨려와 말로리는 뒷걸음질 쳤다. 아니 도망갈 수 있었다 해도 호기심 많은 말로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수염이 나무 그루터기에 걸린 난쟁이에 대한 옛날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렇지만 이 요상한 것은 수염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그 안에 갇혀 있었고 이제껏 말로리가 상상해왔던 그 어떤 난쟁이 보다 몸집이 더 컸다.

“더 이상은 못 참겠군.” 딱딱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꺼내 주란 말이야. 지금 당장!”

어안이 병병했지만 말로리는 잼싸게 일어나 시키는 대로했다. 말로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나무 틈새를 벌리기 시작했다. 팔과 손에 있는 힘을 다 주면서 나무를 단단히 부여잡았다. 말로리는 손도끼나 쇠막대기, 하다못해 칼이라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지만

나무꾼들은 도끼자루조차 남겨 두질 않았다. 나무에서 잠시 손을 떼 말로리는 숨을 헐떡거리며 나뭇결에 찢긴 손가락을 흔들어 댔다.

그 순간 말로리는 뽀족한 돌 하나를 보았다. 말로리는 그 돌을 집어 들어 나무기둥 틈새에 끼워 넣었다. 다른 돌 하나를 집어 들어서는 그 췌기돌이 나무 안으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힘껏 내리쳤다. 그리고는 췌기가 될 만한 다른 돌을 찾아보았다.

그러는 사이 그 나무는 서서히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말로리가 나무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회색 머리카락 몇 가닥이 휘감겨 있는 대머리의 윗부분이 나무 기둥 틈으로 조금씩 솟아 나오더니 야위고 주름진 얼굴과 나뭇조각에 뒤엉킨 수염이 보였다. 코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고, 버섯 덩어리가 한쪽 귀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번뜩이는 두 눈은 무섭게 깜빡거렸다.

“하루 왜 종일 걸릴 참이나?”

“누- 누구세요?” 말로리는 더듬거렸다. “나무 안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 여기서 나가려고 애쓰고 있잖아. 처음엔 웬 바보 녀석이 도끼로 내 발가락을 잘라 버릴 뻔하더니 이제는 또 다른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대는군. 자비로운 달님이시여, 어찌 저에게는 이런 곳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요?”

주위를 둘러보니 마른 나뭇가지가 곁에 놓여있어 말로리는 그것을 주워 나무에 끼워 넣고 지렛대로 사용했다. 나무껍질과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나무가 삐걱 쪼개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무가 둘로 갈라지자 그 안에 갇혀 있던 것이 땅 위로 툭 튀어 나왔다.

말로리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씩어 가는 가죽 자켓과 이끼가 푸르스름하게 덮인 누더기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곰팡이 얼룩이 부츠를 뒤덮고 있었고, 수염에는 꽤 많은 알껍데기와 오랫동안 버려둔 새 등지의 나뭇가지와 이파리들이 매달려 있었다. 말로리가 손을 내밀어 보기도 전에 생김새가 괴상했던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손가락을 움질움질 움직여 보고 양팔을 구부리더니 옆구리를 몇 번씩 쳐댔다. 그러자 망토 자락이 접히는 곳곳에서 작은 벌레 떼들이 구름처럼 몰려 나왔다. 그는 여러 번 심하게 재채기를 하더니 안도



의 한숨을 내쉬었고 손을 한 쪽씩 자켓 속으로 집어넣고는 맘껏 몸을 긁어댔다.

“괜찮-으세요?” 누구인지 아는 것은 고사하고 그 이상하게 생긴 것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망설이다 말로리가 입을 뻗었다. 옛날 이야기에든 나무 정령이 나오긴 하지만 이 것은 말로리만큼 키도 크고, 말라비틀어진 몸일지언정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

“먹을 거 없냐?” 나무기둥에서 빠져나온 그는 허락도 없이 말로리의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살살이 뒤지기 시작했다.

“버섯이 있어요-” 말로리가 말했다. 그리고 그 날 아침 파셀 아주머니가 오믈렛과 그 맛있는 버섯들을 먹고 싶어했다고 설명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수염이 덩수룩한 그는 바구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벌써 알아차리고는 언짢은 듯이 코를 실룩거렸다.

“버섯나부랭이? 사양하겠어. 독버섯들은 이제 진력이 날 정도야.”

“음식점 식품 저장실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말로리가 말했다.

“제가 좀 가져올게요. 마을이 그리 멀지 않거든요.”

“신경 쓸 거 없어. 먹지 않고도 견디면 되니까.”

망토로 어깨를 에워싸면서 그는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그 곳을 떠나 어딘가로 가려 했다.

“잠깐만요.” 말로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전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이방인은 잠시 멈춰섰다. “아비칸이다.”

말로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비칸. 내 이름이야. 그걸 알아서 어디다 써먹으려는 지는 모르겠다만 니가 물어보기에 말하는 것뿐이다.”

그는 다시 어디론가 가려 했다. 그 정도 아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은 듯 말로리는 쫓싸게 그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누구신지, 왜 거기 계셨는지 말씀해 주셔야요-”

“이봐, 꼬마 아가씨.” 아비칸이 대답했다. “확실히 말해 두겠는데 난 내 인생사를 시시콜콜 설명할 시간이 없어. 난 해야 할 일이 많대구. 네 도움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그 떡갈나무 속에 갇힌 신세였을 거라는 건 잘 안다.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충분히 안 했다면 자

이제라도 하마.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자, 그럼 이제 너는 네 일 보고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겠구나. 이니스 계곡까지 가려면 길이 멀고 험난해.”

“이니스 계곡이라고요?” 말로리가 소리쳤다. “가만있자, 그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동경하는 땅-행복의 땅이잖아요. 저 그 얘기 알아요! 옛날에, 금 돛을 단 배가 있었는데 온갖 마술사, 요술쟁이들, 마법사들이 모두 그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갔죠. 그래서 남아있는 마법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법사들이 몇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아비칸이 말했다. “그 중 한 명은 남아있지.”

“그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말로리가 대답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죄다 줄줄 외고 있는걸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마법이 완전히 끝나게 된 거라구요.”

“맘대로 말하고 있긴 해도 조금은 맞는 구석이 있구나.” 아비칸이 인정했다. “지금쯤 내 동료들은 모두 떠나 버렸을 게다. 나처럼 운이 역세게 나빠서 나무속에 갇혔으면 모를까.” 말로리는 숨을 죽였다.

“동료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아비칸이 대답했다. “그래, 난 마법사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마땅히 이니스 계곡인 게야. 사실, 애시당초 난 거기 있었어야 했지.”

“아저씨가요?” 말로리는 깜짝 놀랐다. “아저씨가? 마법사라고요? 그러면 마술 지팡이는 어디 있죠? 끝이 뾰족한 모자는요? 마법의 무늬가 모두 수놓인 망토는요?”

아비칸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는 힘껏 볼을 부풀리며 인내심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저기 말이야.” 그가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어떻게 그런 잘못된 말들을 주워들었는지 얘기 좀 해볼래?”

“마법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옛날이야기 속에는 모두 그렇게 나오는 걸요.”

“네가 무슨 이야기들에 대해 말하는지는 모르겠다만,” 아비칸이 말했다. “그건 쓸데없이 떠들어대는 소리나 소문 따위겠지. 평생 마

법사라곤 본 적도 없는 작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게야. 끝이 뽕족한 모자와 수놓인 망토라고? 그렇게 차려 입고 나서면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 들걸? 마법사들에게 그 따위 거적때기는 필요 없어. 너희 인간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진 모르지만. 내가 한창 잘 나갈 때도 인간들은 겉모습과 실체를 뒤섞어 버리는 고약한 습성이 있었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솔하게 많은 얼간이들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는 왕이 됐다구. 마치 그 쇠고리는 왕의 자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이었어.”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어요.” 말로리가 말했다. “전 단지 마법사라면 뭔가 어떤 식으로든 다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법사라면 적어도 좀 더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비칸은 콧방귀를 쏘았다.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미리 알았더라면 갈아 입을 여분의 옷도 가져오고, 수염도 말아 올리고, 부츠도 광내고 옷에 좋은 향수도 뿌렸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아저씨가 마법사라면,” 말로리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아저씨도 그 배를 타고 가셨어야 되는 거라면, 왜 지금까지 여기 계신 거죠?”

“내 말이 그 말이다.” 아비칸이 말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지. 무척 후회스럽긴 하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진 않구나. 그 때 난 항구로 가던 길이었지. 이곳에서 지팡이로 쓰려고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지 뭐냐.”

“그래서 제 시간에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셨군요. 아저씨를 태우지 않고 배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늦기는커녕 항구엔 가보지도 못했단다. 그 나뭇가지 때문이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었어. 물론 나도 그 법칙을 잘 알고 있었지. 변명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 일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법칙에 따르면,” 아비칸은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놔둬야 해. 어떤 것도 간섭하면 안 되고 살아있는 그 무엇도 다치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지팡이 하나도 만들면 안 된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니? 그 나무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걸 깜박했지 뭐냐. 하지만 내가 무슨 큰 해를 끼친 건 아니었다고. 그 나무에

는 가지가 수도 없이 많았고 가지 하나쯤은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를 자르기 시작했던 건데 내가 생각을 완전히 잘못했던 거야. 순간 그 나무가 꺾 벌어지더니, 나를 꿀꺽 삼켜버렸어.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거기에 갇혀있었던 거란다.”

“다시 나무가 벌어지게 할 수는 없었나요? 그렇게 명령할 수 없었어요? 주문을 걸면 되잖아요?”

“나무가 살아있는 한은 안 되지.” 아비칸은 말했다. “나무는 땅 속의 뿌리로부터 힘을 얻는단다. 어떤 마법사도 능가할 수 없는 힘이 지.”

“정말 끔찍했겠네요.” 말로리가 말했다. “제가 벌을 받을 땐, 파셀 아주머니가 지하실에 가두고는 문을 잠가버리거든요. 나무속에 갇히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가요.”

“그래도 넌 잘 모를게다.” 아비칸이 말했다. “그게 얼마나 지루한 일인지 네가 알 순 없지. 그래, 물론 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일어나. 뿌리, 나뭇잎, 나무껍질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거든. 하지만 그건 식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똑같은 일들이 천천히 반복되는 것일 뿐이야. 누구나 흥미를 잃게 되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한 게 지켜워져서 결국 난 깊이 잠들어 버렸어. 그러다 그 놈의 도끼가 날 깨운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나무가 죽었으니, 나도 풀려난 거고.”

아비칸이 이런 말을 하는 동안 말로리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아비칸이 하던 말을 끝내자 말로리가 재빨리 입을 열었다.

“소원에 대해서 말인데요-”

마법사 아비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로리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원 말이냐?”

“그 나무가 잘리지 않았다면,” 말로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만약 스크럽너가 숲의 나무를 베어내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스크럽너? 그게 뭐냐?”

“그는 새 지주예요.” 말로리가 말했다. “여기 모든 땅을 그가 갖고 있죠. 그리고 저 반대편에 있는 농장들도요. 스크럽너는 이곳과 캐슬턴 사이에 길을 내고 싶어해요.”

“이 스크 어찌구 저찌구 하는 작자한테는 멋진 계획이겠지. 암 그  
렇고 말고.” 아비칸이 말했다. “하지만 난 그런 일에 눈곱만큼도 관  
심 없다.”

“네 그래요- 제 말은 스크럽너가 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저씨가 간혀있던 나무도 잘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나무를  
자른 건 나무꾼들이었지만요. 그래도 아저씨를 꺼내준 건 나예요.”

“그건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하려는 말이 뭐냐?”

“세 가지 소원이요.” 말로리는 용기를 내어 크게 말했다. “제가 알  
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마법의 힘을 갖고 있는 그 누구에게든지  
좋은 일을 해주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제발요. 이번이 저  
에게 유일한 기회라고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비칸은 잠시 동안 말로리를 쳐다보더니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세 가지 소원이라고? 왜 고작 세 가지만 들어 달래? 한 천가지  
쯤 너 좋을 때로 말하지 그러냐? 물론 그렇더라도 소원을 꼭 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정신이 온전히 박힌 마법사라면 세 가지는 고사  
하고 한 가지도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진 않아. 네가 소원이랍시고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하지만 제가 아는 이야기 속에서는-” 말로리가 계속 고집을 부렸  
다.

“너는 계속 그 이야기 타령만 하는데.” 아비칸이 말했다. “내 말을  
믿거라. 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내가 생  
각하기론 우리들이 다 사라져 버린 후에 너희 인간들이 자기들 구  
미에 맞게 그런 이야기들을 지어낸 것 같구나. 난 그렇게 밖에 볼  
수 가 없어.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잘 나가던 마법사였을 때도 그  
런 일은 일어나 본 적 없었다. 네가 한 이야기에든 맞는 구석이 좀  
있긴 하지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부풀려졌어. 사실 숫자 3은 마법  
의 수란다. 그 이유야 네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바도 아니지만. 너  
희 인간들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바라왔지. 그 두 가지  
사실을 합쳐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소문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만  
하다. 소원이라고? 그건 순전히 뭔가를 욕심내는 생각일 뿐이야.”

말로리는 실망한 기색을 숨기려고 얼굴을 돌렸다. “그렇다면 저에  
겐 아무 것도 해 주시지 않을 거군요-.”

“너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그저 바라기만 해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거니?” 아비칸이 되물었다. “좋아, 좋아. 아무튼 너는 착한 일을 했어.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주마. 너희 인간들은 뭔가 꼭 대가를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니까. 그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질 않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작은 장신구나 기념품이면 되겠지? 알았으니까 울지 마라. 내가 지금 당장 네가 좋아할 만한 것을 마술로 만들어 내보마.”

그렇게 까지 해주겠다는 말에 고마워서 말로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아비칸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므린 한 손바닥 위에 다른 손바닥을 오므려 얹고 남들이 들을 수 없게 중얼거렸다. 잠시 후에 아비칸은 위에 얹었던 손을 들어 올렸다. 말로리는 의아한 눈빛으로 아비칸을 쳐다보았다. 마법사 아비칸이 펼친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아비칸은 인상을 찌푸렸다. “잠시만. 내 기술이 좀 녹슬었나보군.”

그는 다시 손바닥을 오므리고 중얼거렸다.

손가락 사이를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아무것도 없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는 되뇌었다. “아무것도 없어.”

## -제 2 장-

빈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비칸은 풀숲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진짜 마법사가 마법을 거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말로리는 아비칸 걱정이 앞섰다. 주문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자 아비칸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이마에 주름은 깊어졌다.

“나무속에 갇혀있던 빌어먹을 시간동안 이렇게 되어 버린 거야.” 그는 마침내 투덜거리며 입을 열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가장 형편없는 마법사 실습생이라도 그런 주문은 걸 수 있는 건데.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법의 힘이 감쪽같이 날아가 버렸어. 마법이 사라진 거라고.”

“하지만 마법사들은 마법의 힘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걸요. 어떤 이야기 속에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또 이야기 타령이군. 마법사들도 마법의 힘을 잃는 경우가 물론 있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나무속에 갇히는 것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이젠 제발 가 줘. 생각할 게 많으니까.”

“저한테 선물 주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로리가 말했다.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면야 귀찮게 할 생각은 없거든요.”

“선물이라고?” 아비칸이 소리쳤다. “내가 사소한 선물 따위를 만들어 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난 더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니스 계곡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다.”

“그 곳이 어딘지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잊어버려서가 아니야.” 아비칸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내 말은 그러니까 그 곳에 아예 갈 수 없다는 거지. 이 상태로는 안 돼. 자세히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만 알아 두거라. 내 마법의 힘을 모두 되찾기 전엔 나무속보다 더 나를 옥죄는 너희 인간 세계에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된다는 걸.”

“여기 계셔야 한다면,” 말로리가 말했다. “뭔가 하실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원하시면 장사도 배우실 수 있어요. 이곳엔 훌륭한 석

공도 필요하고, 목수 일거리도 많거든요.”

“꿈도 야무지구나.” 아비칸이 말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우선 난 여기에 맞지 않아. 머무를 생각도 없고. 둘째로 마법의 힘 없이는 등껍질 없는 거북이처럼 난 아무 힘도 쓸 수 없어. 지금으로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내 신세가 당분간만 지속되길 바랄 수밖에.”

“마법의 힘을 되찾으실 때까지,” 말로리가 말했다. “식당에서 머무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말로리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니지, 파셀 아주머니는 고양이 기르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데. 마법사를 데려왔다고 하면 아줌마가 노발대발하실 게 뻔해요. 그래도 잠시 동안 마구간에 숨겨드릴 수는 있어요.”

“내가 거기 있는 걸 누가 알아채기라도 하면 어찌지? 지금 내 상황에선 사람들이 날 발견하지 못할수록 좋은데.”

“안전하게 계실 곳을 알고 있어요.” 말로리가 말했다. “저랑 함께 가요.”

아비칸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새도 없이, 말로리는 아비칸의 손을 잡고 반은 그를 끌어당기고 또 반은 떠밀면서 덩불 속을 가로질러 서둘러 숲 속을 빠져 나왔다. 말로리는 언덕을 기어 내려와서 얇은 계곡에 다다랐다. 아비칸은 성큼성큼 걸어가는 말로리를 뒤쫓느라 애쓰고 있었다. 마침내 말로리는 바위들이 널려있고 계곡이 끝나는 곳에서 멈추고는 좁은 동굴 입구를 가리켰다.

“이곳은 제 비밀 장소예요.” 내켜하지 않는 아비칸을 끌어당기면서 말로리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 중 이곳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설령 안다하더라도 일부러 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빠랑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을에 열병이 돌았던 해에 전 이곳에서 늘 놀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그러지 못해요. 파셀씨 집에서 저를 식모로 데려가서는 일을 너무 많이 시키거든요. 여기 계시면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실 거예요.”

아비칸은 동굴을 둘러보았다. 동굴이 넓어지다 바위벽으로 둘러싸인 큰 방 같은 곳이 나왔다. 아비칸은 얼굴을 찌푸렸다. “내가 꿈이나 박쥐라면 동굴에서 살아야겠지.”

“마법사들은 동굴에서 살지 않나요?” 말로리가 말했다. “아니면 돌로 된 굴이나 동산 밑의 땅굴 같은 곳이에요.”



“난 토끼가 아니야.” 아비칸이 대답했다. “그래, 아는 마법사 한 명이 동굴에 살았었지. 그러나 그 친구는 에시당초 괴짜였어. 광물에 폭 빠져있었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뭐 그런 하찮은 것들 말이야. 분명히 말하지만 그 자의 동굴도 이 동굴보단 상태가 좋았어.”

“그 뎨 마법의 탑을 갖고 계셨나요?” 말로리가 물었다. “진짜 마법의 탑이요. 제 떡갈나무 같은 거 말고요- 아니지 아저씨의 나무라고 맞겠죠. 저도 그 나무에서 놀곤 했어요.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높이 올라가기도 했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난 그렇게 해 본 적 없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탑이 필요하진 않아.”

“그럼, 성을 갖고 계셨나요? 그곳에서 사셨어요? 마법의 거울과 보석 상자들 황금 잔이 가득한 그런 곳인가요? 수정으로 만든 높은 왕관도 갖고 계셨나요? 하인들은 당신이 명령하는 건 무엇이든 가져왔겠죠?”

“나는 오두막에서 살았다. 내겐 안성맞춤이었지.” 아비칸이 말했다. “너희 인간들이나 성이라면 그렇게 호사스러워야 되는 줄 알지. 내가 있었던 성엔 죄다 통풍구에서 북풍처럼 매서운 바람이 횡횡 불어댔어.”

“전 항상 이 동굴을 제 성이라고 불렀어요.” 말로리가 말했다.

“음. 이 동굴을 적당히 축축하구나.” 아비칸이 대답했다.

“전 이 동굴에 황금으로 된 작은 탑들과 휘날리는 깃발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로리는 말을 이어갔다. “아님 이 동굴이 거대한 저택이라고 생각했죠. 지주의 저택보다 두 배는 더 큰 집이요. 저는 그 영지의 안주인이고 말들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마차와 아름다운 옷들, 깃털로 된 침대도 있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냄비를 닦는 일을 결코 없죠. 혹 제가 그런 일을 한다하더라도 그건 제 식기들과 제 냄비들일 거예요. 파셀 아주머니 것이 아니지요.”

아비칸은 흙바닥을 걸어가다가 반들반들한 조약돌 무더기에 발가락을 부딪히고 말았다. “어떤 바보 녀석이 여기에다 돌들을 쌓아둔 거야?” 아비칸은 한 발로 폴짝폴짝 뛰면서 소리쳤다. “동상 때문에 발에 생긴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지 못한다면 난 불구가 되어버릴

거야!”

말로리는 흩어진 조약돌들을 주워 모으기 위해 몸을 구부렸다. “이 돌들은 제 거예요.” 말로리가 말했다. “전 이 돌들이 소원을 비는 돌들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조약돌 한 개를 손에 쥐면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정말 그렇게 된 적은 없지만요.”

“놀랄 일도 아니구나.” 아비칸이 한마디 했다. “나 원 참. 애야, 마법에 대한 그런 이상한 생각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된 게냐?”

“엄마한테서요.” 말로리가 대답했다.

“오, 세상에.” 아비칸이 고함을 질렀다. “네 엄마가 이러이러한 마법사였다고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으나.”

“엄마는 마법사가 아니었어요.” 말로리는 재빨리 시인했다. “하지만 엄만 정말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지 보셨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아빠와 저에게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가장 좋았어요. 화롯가엔 우리 세 식구만 모여 있곤 했거든요. 아빠는 가구를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마을에서 최고였죠. 그리고 가끔씩 엄마의 얘기를 듣고 있을 때면 아빤 나무 조각들로 온갖 종류의 것들을 만드셨어요. 새, 짐승, 왕과 여왕 조각은 아저씨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멋진 것들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선 그것들을 모두 태워버려야 했지만요. 파셀 아주머니는 그 인형들이 아주머니 댁으로 열병을 옮길 거라고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형들은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전 엄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가끔은 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기도 해요. 아저씨가 듣기에 좀 이상한 건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이제야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겠다.” 아비칸이 말했다. “너희 인간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부지런히 잘도 지어내지. 그러고 나서 멋대로 자기들이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단지 그것들이 사실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좀 황당하구나. 네가 마법의 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네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하기도 싫

다. 근사한 옷, 깃털 침대, 금 주머니, 말, 마차라니 나 원 참. 내 말을 듣거라. 하늘에서 그런 것들이 무더기로 떨어진다면, 넌 그것들이 큰 행복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네가 갖길 바라는 모든 것 중에서 그것들은 가장 쓸 모 없는 것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말로리가 화를 냈다. “아저씨는 마치 제가 근사한 옷이나 깃털 침대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제가 그 무엇보다 바라는 건 제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거라구요.”

“그런 거라면,” 아비칸이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마법은 없어. 마법이 기적을 일으킬 순 없는 거란다.”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은 정말 이뤄졌어요.” 말로리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전 제 요정 대모님이 저를 찾아 와 주시기를 바랐었거든요. 그리고 아저씨가 와 주셨잖아요.”

“하지만 난 분명 너의 대모가 아니야.” 아비칸이 되받아 쳤다. “그리고 내가 이니스 계곡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난 곧 쓸모가 없어 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게 된다는 말이지.” 아비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 “간단히 말해서 난 이미 이곳에서 내가 머물러야 할 시간보다 더 오래 있었어.”

“왜 진작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말로리가 소리쳤다. “어쩍 그럴 수가. 정말이세요?”

“정말이고말고.” 아비칸이 대답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말로리는 그 말을 듣고 아비칸 보다 더 낙담한 듯 보였다.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냐구요?”

“난 환상을 만들어내지.” 아비칸이 대답했다. “하지만 난 스스로 그런 환상에 젖어들진 않는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한 거지,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는 말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니야.”

“아저씬 돌아가시지 않을 거예요.” 말로리가 단언했다. “돌아가시지 않아요. 제가 목숨을 구해드린 후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라구요.”

“내가 인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하니,” 아비 칸이 투덜거렸다. “내 자신이 바보 같고, 어색하고, 좀 창피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래 좋다. 내가 마법의 힘을 되찾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할 테니까. 약간의 빵과 치즈 한 조각,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가능하다면 맥주도 한 병 있으면 좋겠군.”

말로리가 얼굴을 찌푸렸다. “마법의 묘약을 만드시려고요?”

“아니. 내가 먹으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말고도 또, 혹시 마법사는 배가 고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바구니를 움켜쥐고 말로리는 서둘러 동굴을 빠져나와 덤불숲을 헤쳐갔다. 숲 주변에서 말로리는 새로 일군 밭을 따라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갔다. 그리곤 마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낮은 지붕 집들이 있는 곳으로 이어진 폭 꺼진 길을 따라 갔다. 옷감 짜는 일을 하는 버넛은 이미 덧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말로리는 그가 베틀에 실을 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때쯤 되면 마구 만드는 일을 하는 에멧이 앞쪽이 트여있는 가게 작업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에멧과 여섯 명의 마을 사람들은 허름한 수직물 옷을 걸친 한 남자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말로리는 그가 매주 야채 부스러기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 팔러 오는 시골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러나 오늘 그는 도장이 군데군데 찍혀있고 소인이 덕지덕지 붙여있는 종이 한 장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공지 사항이요.” 말로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와서들 직접 보세요. 제가 글을 읽는데 좀 서툴어서요.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지주가 우리를 우리 땅으로부터 내쫓으려 하고 있어요. 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쪽 우리들이 소작인으로 있어왔는데 말이죠.”

“이봐, 헐룩. 지주에게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 마을 사람 중의 한 명이 끼어들었다. “그 땅은 이제 스크립너의 재산이라구. 법적으로도 그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천벌 받을 인간 같으니.” 헐룩이 소리쳤다. “옛 지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텐데.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얻으려고 한 사람의 집이나 가정을 갈갈이 찢어버리진 않으셨을 거야. 그럼 난 내 아내와 어린 것들 데리고 어디서 살아야지?”

“싸울 생각은 하지 말게.” 또 다른 마을 사람이 말했다. “다시 정착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을 걸세.”

“그럼 뭘 하면서 벌어먹고 살지?” 혈룩이 울분을 토했다. “지주의 석탄 채굴장에서 눈 먼 두더지처럼 땅이나 파야하나?”

“조만간 우리 모두 그런 신세가 될 걸세.” 그 마을 주민이 말했다.

갈 길이 급했지만 말로리는 멈추어 서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전에도 소규모의 경작 농지들이 있던 자리에 석탄 채굴장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돌았었다. 그러나 스크럽너가 정말 그렇게 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말로리가 잠시 서 있는 동안 마구 만드는 일을 하는 에멧이 말로리를 보고는 슬픈 듯 고개를 저었다.

“좋은 아침이면 좋으련만.” 에멧이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구나. 혈룩과 이웃 주민들에겐 그렇지 못해.”

“가만, 저분들 모두요?” 당황한 듯 말로리가 물어봤다.

에멧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그렇단다. 그들 모두 경작지에서 나가라는 공지를 받았어. 너도 알게 되겠지만 더 안 좋은 소식이 있단다. 내년 이맘때면, 내 장담하건데 남자들이던 여자들이던, 혹은 아이들까지 모두가 스크럽너에게 품삯을 받으며 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크럽너는 우리를 마음에 내키는 대로 부러먹겠지. 일단 도로가 완공되면, 이곳에서 장인들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될 것이다. 필요가 없어지겠지. 싸구려 물건들과 기성품들을 캐슬턴에서 들여오기가 쉬워질 테니. 네 아버지가 이 꼴을 안 보셔서 다행이지. 살아계셨다면 몹시 마음 아파하셨을 거다. 이제 사람의 기술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될 거야.”

말로리는 더 이상 그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에멧이 전해준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아비칸이 배고플 것이라 생각하니 몹시 다급해 졌다. 말로리가 돌아서려고 하자 에멧이 말로리의 뒷전에서 말했다.

“길 조심해서 다녀라, 얘야. 파셀 부인이 너를 찾고 있더구나. 지주는 지금 음식점에 있고 공증인도 함께 있다.”

에멧의 경고 덕분에 말로리는 음식점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

도를 따라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었다. 마구간에는 스크럽너의 적갈색 암말이 다른 두 마리의 말과 함께 메어져 있었다. 말로리는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뒷문을 열었다. 부엌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말로리는 슬쩍 안으로 들어가서는 식품 저장소까지 갔다.

부엌 윗 층에는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의 반은 휴게실이고, 나머지 반은 식당영업을 하는 곳이었다. 파셀 부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라벤더 빛 술을 두르고 받침목 위에 판을 얹어 만든 식탁에 앉아 있었다. 파셀 부인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거의 가려진 채, 파셀 씨는 식탁 맞은 편에 기대고 있었는데 스크럽너의 말을 토씨하나 빠트리지 않고 들으려는 듯 그는 귀를 동그랗게 오므리고 있었다.



### - 제 3 장 -

“이걸로 우리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군.” 지주가 말하고 있었다. 그는 양피지로 된 문서 몇 장을 앞에 집어 들고는 그 문서들과 붉은 테이프, 봉인과 모든 것들을 씹어 삼키려는 듯 턱을 위 아래로 움직이며 말을 이어갔다. 지주는 황동 단추가 달린 승마용 윗도리를 입고 팔에는 검은색 상장을 차고 있었는데 윗도리는 양어깨에 꼭 끼는지 팽팽해 보였다. 리넨 천으로 된 칼라 위로는 목살이 빠져나와 있었고 금방이라도 옷이 터질 것 같았다. 붉은 빛이 도는 짧은 머리 카락이 간신히 그의 머리를 덮고 있었고, 맨 살이 드러나 보이는 관자놀이는 주먹 권 두 손처럼 푹 볼거져 나와 있었다. “항목 하나, 부채. 정확하군. 항목 둘, 저당, 이걸 담보를 말하는 것이요. 파셀씨. 이로써 계약 조건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양쪽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면서 저당 잡히는 게 일생일대의 소원인 사람처럼 파셀씨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파셀씨가 뭐라고 대꾸할 새도 없이 파셀부인이 탁자 쪽으로 몸을 들이밀고는 남편을 대신해서 대답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지주님, 저희 식당이 여인숙으로 바뀌게 되고 마을의 다른 식당들은 모두 제외된다는 거로군요.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양반이 그 책임을 맡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 지주님,” 파셀씨가 끼어들었다. “고기와 술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할 때 식품류라고 부르는 품목들도 지주님과 거래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주가 대답했다. “독점적으로요. 적절한 법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렇죠.”

“저는 항상 농부 텐취와 거래해 왔습니다.” 파셀씨가 말했다. “그는 돈을 받은 만큼 좋은 물건을 대 주죠. 특히 야채는 더욱 그래요.”

“이제부터는 나와 거래하게 될 거요.” 지주가 말했다. “파셀씨, 그게 바로 독점의 핵심적인 성격이죠.”

“저와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텐취는 언짢아 할 겁니다.” 파셀씨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장사를 해야죠. 예외를 둘 수 있다면, 가만있자, 적어도 당근과 방풍나물 뿌리만이라도 그쪽과 거래하면 어

떨지요-.”

“지주님은 당근이나 방풍나물 따위를 생각하고 계실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파셀부인은 불쑥 끼어들었다. 장차 여인숙 주인이 될 사람일랑 잔말 말고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접이식 칼로 손톱이나 다듬으라는 듯한 눈빛으로 파셀부인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사실 제가 좀 생각할 게 많긴 합니다, 부인.” 스크럽너가 말했다. “부인의 식당 문제만 해도 그렇죠. 저는 부인을 위해 식당을 다시 지어드릴 생각입니다. 부인께서는 새로운 휴게실과, 침실, 마구간도 새로 갖게 되겠죠. 일단 제가 계획하는 길이 완공되기만 하면 캐슬턴 대로와 이곳은 직통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여인숙의 손님이 지금껏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아지겠죠. 남편께서 부자가 되실 겁니다, 파셀부인. 무엇보다 부인 같은 아내를 두다니 파셀씨는 정말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파셀 부인의 두 뺨이 자줏빛으로 붉어졌다. 작은 소리로 웃으려다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긴 했지만, 그녀는 소녀처럼 눈을 깜빡거리며 팽팽하게 조인 조끼에서 손수건을 한 장 꺼내더니 지주에게 흔들어 보였다.

부엌에서 말로리는 파셀부부와 스크럽너의 대화 내용을 본이 아니게 엿듣게 되었다. 그러나 말로리는 뭐든 남은 음식을 찾아서 가능한 빨리 아비칸에게 가져다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다. 말로리는 반 덩이의 빵과 남은 치즈 조각을 찹싸게 챙겨 바구니 안에 담았다.

휴게실에선 공증인 로완이 사기로 된 담배 파이프 끝을 문 채 약간 떨어져 앉아 있었다. 어두운 색 정장 차림에 구식으로 머리에 파우더를 뿌린 그는 스크럽너를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앞으로 구부리며 파셀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재산의 권리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파셀씨? 간단히 말해서 파셀씨께서 이자를 모두 갚을 때까지 그 여인숙은 지주 소유라는 말이죠.”

스크럽너는 순간 공증인을 쳐다보았다. “그건 이미 끝난 얘깁니다. 당신의 의견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완이 대답했다. “전 단지 파셀 씨에게 정해진 계약 조건들을 상기 시켜드리는 것뿐입니다. 파셀 씨는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권리가 있어요. 사실 파셀 씨는 반드시 제대로 아시고 동의를 해야 하는 거죠.”

“파셀 씨는 동의했소.” 스크립너가 분명하게 말했다. “변호사처럼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떠들어대시오.” 그는 파셀 부인을 향해 돌아왔다. “아시다시피 조건은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들에 동의했고 나와 거래하는 모든 상인들도 동의했소. 몇몇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소. 마구 만드는 작자도 그 중에 한 명이고, 통 만드는 사람도 그렇지요. 부인, 그들이 진보의 소리에 귀 먹고 미래의 황금빛 광경들을 보지 못해 이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올 해 중반에 접어들면 그들은 가게 문을 닫게 될 거요. 내장담합니다. 자격을 갖춘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풍요의 축복을 즐기게 합시다. 호지는 새로운 제재소와 목재 하치장을 갖게 될 것이고, 당연히 내가 목재를 공급할 것이요. 버넷은 일단 내가 직조장을 세우기만 하면 독점적인 의복 판매자가 될 것이요. 우리는 곧 캐슬턴을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놀리는 땅이나 숲이나 시냇물의 쓸모 없이 버려진 지역이 모두 유용하게 바뀌게 될 거요. 그게 바로 진보라는 거죠. 부인,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말입니다.”

스크립너는 눈을 위쪽으로 굴리더니 마치 식당의 천장이 뚫어버릴 듯이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리고는 놀라움에 가득 찬 조용한 목소리로 그는 덧붙여 말했다.

“그건 바로 석탄이죠.”

“석탄이라고요?” 지주와 같은 쪽을 걸눈질 해 보며 파셀씨가 되물었다. “석탄이 어디 보인다는 거죠?”

“제 눈엔 보입니다.” 스크립너가 울려 퍼지는 예언자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잘것없는 납인 것처럼 보이지만 금처럼 빛나며, 밖으로 꺼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석탄 말이죠. 전 지금 시골 농부들이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는 북쪽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죠. 전문가들이 보고한 내용을 봤더니 제가 늘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해 주더군요. 심을 필요도 없는 농작물들을

기르기 위해 그 땅을 일구고 파내고 고르는 것보다 그 곳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부들에게도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거요. 석탄 채굴장이 만들어지는 대로 저는 농부들을 그 곳에서 일하게 할 생각입니다. 비도 오지 않고 날씨를 염려할 필요도 없는 아늑한 땅속에서 일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더럽고 외풍이 드는 오두막들은 철거될 것이요. 그 조치가 시행되는 것에 관한 공지 사항이 바로 오늘 전달됐죠. 머지않아 게으름뱅이 무리들은 팔 힘이 세고 눈빛은 또렷하며 시키는 일을 고분고분 하는 건실한 일꾼들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일꾼들은 목도 말라 하겠죠. 파셀부인, 그 말은 부인의 여인숙의 손님이 늘어난다는 말이 되죠. 적어도 여인숙의 맥주 장사가 잘 될 거란 말입니다.”

“지주님.” 파셀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마음이 부풀어 오르네요. 의장의 권한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의 자선단체에서 연설을 좀 해 주세요. 지주님이 연설을 해주신다면 기꺼이 하루 저녁 시간을 모두 비워놓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스크럽너가 대답했다. “귀찮은 일들이 다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하죠.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여성들의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선행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말로리는 얼굴을 몹시 찡그렸다. 파셀부인이 이끄는 여성들의 자선단체가 하는 좋은 일이란 대부분 와인 병을 식탁에 가득 꺼내놓고 밤늦게 까지 즐기는 회원들간의 저녁식사 대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와중에도 말로리는 바구니에 계속 먹을 것을 채워 넣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로리 뒤에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말로리가 미처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팔로 말로리의 허리를 움짱달짝 못하게 휘감고는 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

말로리는 큰 소리를 낼 뻔 했지만 참고 몸을 획 돌렸다. 말로리는 웃으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지주의 사냥터지기 볼트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말로리가 더 말버둥칠수록, 볼트는 말로리의 머리채를 손으로 더 세게 움켜쥘고 그 바람에 말로리의 눈엔 눈물이 그렇그

링 멧혀 앞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말로리는 두 주먹을 볼트의 자켓에 대고 휘둘렀다. 하지만 볼트는 단지 그런 말로리의 노력을 비웃을 뿐이었다.

“난 네가 숨어 들어오는 것을 다 봤다.” 그는 말로리를 더 가까이 잡아당기면서 귀에다 대고 말했다. “꼬마 말괄량이 아가씨, 뭐하고 있는 거지? 너는 파셀부인에게 꾸중을 듣게 될 게야. 하지만 성질 부리지 말고 착하게 굴어. 고분고분 내 말 잘 듣기만 하면 파셀부인은 네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모르게 해 주지.”

대답대신 말로리는 볼트의 정강이를 두 번 걸어 차 주었다. 볼트는 큰 소리를 지르더니 양쪽 다리로 번갈아 폴짝폴짝 뛰며 재빨리 말로리를 잡고 있던 손을 다친 부분에 갖다 대고 정신없이 문질러댔다. 사냥터지기 볼트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파셀부부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부엌으로 부랴부랴 몰려오고 말았다. 말로리는 일단 그곳을 빠져나가 뒷일은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흩어져 버린 음식들을 주워 담기 위해 말로리가 몸을 웅크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동안 파셀부인이 놀랄 만큼 민첩한 발놀림으로 말로리에게 다가왔다. 화를 내며 씩씩거리다가 스크럽너에게 미안하다며 우는 소리를 번갈아 하더니 파셀부인은 말로리를 붙잡고 망설임 없이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실컷 때려주세요.” 파셀부인을 더 부채질하듯 볼트가 소리쳤다.

“여보,” 파셀씨가 아내에게 중얼거렸다. “이 애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알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저 짐승 같은 애 때문에 하마터면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될 뻔 했지 뭐니까. 그거면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요?” 사냥터지기 볼트가 힘주어 말했다.

“충분하고말고요.” 계속해서 말로리의 따귀를 때리며 파셀부인이 맞장구를 쳤다. “파셀, 당신은 빠져요. 애가 또 병이 도진 거라고요. 왜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놈의 옛날이야기 때문이겠죠. 이 아이 머리는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온갖 방법을 써 가며 그 이야기들을 애 머릿속에서 없애 보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고요.”

“해롭고 불건전하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스크럽너가 말

했다. 한편 그 사이 볼트는 절뚝거리며 부엌 탁자에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큰 골치 덩어리를 안고 계시군요, 파셀 부인. 하지만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일단 그런 망상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고칠 수가 없거든요. 파셀부인, 전 옛날이야기에 빠져 망상을 하느니 천연두를 열두 번 앓는 게 낫다고 봐요.”

“애는 그런 버릇을 아주 타고 났죠.” 파셀부인이 말했다. “애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거랍니다. 가족전체가 저주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난 항상 옛날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지.” 파셀씨가 증얼거렸다.

“맞아요. 그 이야기들 때문에 당신이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파셀부인이 쏘아붙였다. “그래서 당신이 바보 멍청이가 돼버린 거라고요. 내가 잔소리하며 들볶아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행운은 구경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신차려요, 파셀. 머릿속에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몰아내란 말이에요. 저, 저 애가 바로 물을 들이는 거야!”

그 쯤 되어 파셀부인은 말로리를 더 이상 때리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 다음에 기회를 봐서 더 훈계를 하겠다는 듯한 목소리로 파셀부인이 말했다. “잔을 내어 오거라. 그리고 지주님께는 저 포트 와인을 갖다 드려. 케익 한 접시도 함께 쟁반에 보기 좋게 갖다드려라. 내말 듣고 있지? 깨끗한 냅킨도 잊지 말고.”

귀가 울리고 뺨은 얼얼하게 쓰렸지만 말로리는 조용히 있으려고 애썼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아비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었고 눈물이 흘렀으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마법사의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문을 걸어 따끔한 맛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말로리는 혼잣말을 했다. “종기나 나버려라! 사마귀도! 이빨도 아파버렸으면!” 화가 나서 말로리는 찬장에서 꺼내온 잔들과 은 식기류를 쟁반 위에 아무렇게나 놓았고, 와인 병을 어찌나 세게 내려놓았던지 쟁반 위의 칼들과 포크들이 튀어 오를 정도였다.

말로리가 기운을 내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따귀를 맞아 제 정신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흡족해 하면서 파셀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는 손으로 스크럽너의 팔을 잡고 탁자 쪽으로 끌어 당겼다.

“오세요, 지주님. 포트 와인 좀 드시고 기분 전환 좀 하세요. 저도 기운을 좀 차리려면 조금 마셔야 하겠네요. 저런 애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저 애 때문에 제가 힘이 다 빠지고 속상한 일만 생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주님도 저희가 정말 애도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거 압니다.”

“감사합니다, 파셀부인.” 스크럽너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부인께서 마음 아파 해 주시니 상중이지만 기운이 납니다.”

“상실감이 크실 텐데 용기 있게 참고 계시군요.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귀감이 되시고 계세요.” 파셀부인이 말했다. “소렐씨 일은 정말 안됐어요. 그 일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하지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주님. 그 무자비한 암살자가 법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소렐씨께서 무덤 속에서 편히 쉬시지 못할 거예요.”

“저 또한 편히 쉴 수 없을 겁니다.” 스크럽너가 한 숨을 쉬며 결연히 말했다. “전 그의 토지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임을 받는 하인이었죠. 부인께서는 그걸 단지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보수는 받는 관계요.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관계 말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고결하셨던 그 분 사이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부모 자식간의 사랑의 감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분이 제 아버지였어도 지주였던 소렐씨를 그보다 더 좋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제 잘못이에요.” 스크럽너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제가 캐슬턴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이야 나중에 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분 곁에 있었어야 했다구요. 매순간 그분과 그때 함께 있었더라면 하고 바래본답니다.”

“저런, 저런, 지주님.” 머리를 너무 푹 숙인 나머지 스크럽너의 턱이 목도리가 접힌 부분에 파묻혀 보이질 않게 되자 파셀부인이 말했다. “우리처럼 예민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 마련이죠. 망할 계집애 같으니라고. 와인은 어디 있는 거야?”

“그 끔찍한 사건을 한 시도 제 기억 속에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스크럽너가 말했다. “전 여전히 그 때 생각만 하면 벌벌 떨립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난 일인데도요. 저는 캐슬턴에서 옛 지주님께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모든 게 소용없어졌어요. 모두 산산조각 나버렸죠. 여자 하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주인님이 침대에서 베개로 질식당해 있었거든요.”

“요즘은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침실에서조차 안전하지가 못해요.” 파셀씨가 말했다. “노상강도들, 살인자들, 온갖 종류의 지독한 놈들이 몰래 돌아다니죠.”

“그런 놈들 중 한 명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게 틀림없어요.” 스크럽너가 대답했다. “벽에는 사다리가 놓여있었고 창문은 깨진 채 열려있었죠. 극악무도한 범죄예요, 파셀씨. 귀중품을 훔쳐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정말이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침식사도 목구멍으로 넘기기 어려웠어요. 제가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쓸쓸하고 외로웠죠.”

“누군가를 잃어버린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냉담한 목소리로 공증인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은 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지주님? 지주님께서는 옛 지주님의 저택과 소작 농장들을 물려받았어요. 결국 모든 소렐씨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죠. 아니지 이제는 지주님께서 부르시듯 스크럽너씨의 재산이라고 해야겠군요.”

스크럽너는 얼굴을 붉혔고 잠시 동안 공증인에게 험악한 말을 할 것처럼 보였다. 공증인은 계속해서 파이프 담배만 빼금빼금 피워댔다. 하지만 스크럽너는 침착을 되찾고 말했다.

“그래요, 로완. 제가 그 짐을 떠맡았죠. 소렐씨가 늘 바라셨던 대로요. 제가 훌륭히 그리고 성실히 일을 맡아줬다고 하시며 돌아가신 후에 그 분의 모든 재산을 제가 물려받아 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하셨는지 모릅니다. 저야 그분과 알고 지낸 영광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 분 뜻대로 유언장에 그렇게 기록해버리신 모양입니다. 전 그분께 그런 책임을 저에게 떠맡기지 말아달라고 간청드렸어요. 그러나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분의 자손은 없었고 일가친척도 없었죠. 그래서 그 분을 위해 어떤 힘든 일을 해야 하더

라도 상관없이 그 재산들을 불려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의무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요.”

“지주님,” 파셀부인이 말했다. “지주님은 어쩔 그렇게 고결한 성품을 타고 나셨을까요. 지주님께서 책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참 기쁘군요. 요즘은 책임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지주님처럼 좋은 분은 손해 보기 십상이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스크럽너가 한 숨을 내쉬었다. “저도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성격이 그런걸요. 전 이미 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체포하기 위해 금화 천 파운드를 내놓았습니다. 파셀부인, 제가 부인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리고 로완이 그 증인이 되면 되겠군요. 전 그보다 더 큰 돈을 내놓을 것입니다. 누구든 옛 지주님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를 제 손에 넣게 해주기만 한다면 순수한 감사의 뜻으로 전 그에게 전 재산을 줄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요. 일 에이커의 땅도 절대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스크럽너가 그렇게 엄청난 제안을 하는 것을 보고 파셀부인은 눈을 깜박거렸고 존경하는 마음에 머리를 흔들었다.

“진심어린 말씀이시네요, 지주님. 정말 아량이 넓으시군요. 황금처럼 순수한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부인.” 스크럽너가 말했다. “단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거죠. 제 재산이요? 그건 단지 세속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아요. 파셀부인, 제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친구이자 주인님인 그분의 죽음을 복수하는데 비한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지요.”

“그럴 리가요, 지주님.” 로완이 말했다. “아시다시피 지주님께서 받으신 보상은 아주 큼니다. 슬픔에 젖어 넋을 잃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제 진심을 의심하는 겁니까?” 스크럽너가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 재산을 내줄 것이며 그 보다 더 많이 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그 분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다시 걸어 다니실 수 있다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로완씨.” 파셀부인이 말했다. “지주님이 하

신 말씀을 의심하다니 창피한 줄 아시라구요.”

“부인, 전 지주님이 한 말을 의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완이 대답했다. “전 단지 나중에 차분히 생각해보면 잊어버리는 게 나를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지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파셀부인이 힘주어 말했다. “지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그걸 뜻하시는 거라구요. 영원히 언제나 변치 않는 거죠. 지주님이 보상으로 전 재산을 내 주겠다고 말씀하실 적엔, 그런 거라구요. 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정 의심스러우면 종이에 받아 적어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시면 될 거 아니예요!” 파셀부인은 스크립너를 향해 돌아섰다. “그렇지 않나요, 지주님?”

“네?” 스크립너가 다소 불편해하며 대답했다. “뭘,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말고요. 하지만 남자가 한 번 말을 내뱉으면 그걸로 보증이 되는 거죠.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로완은 머리를 내저었다. “법적으로 보면, 사실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죠.”

“지주님께서 손에 펜을 잡으시자마자 서명을 하실 거예요.” 파셀부인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바로 지금 당장에라도 하실 수만 있다면야 문제될 게 없죠.”

“맞아요, 파셀부인. 그렇고말고요.”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스크립너가 말했다. “그러면 이제, 자, 전 가 봐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이 바빠서요.”

“그것보세요, 로완씨.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파셀부인이 기고만장하여 소리쳤다. “어떤 문서든지 골라서 작성하기만 하세요. 지금 여기서 당장이라도요. 공증인양반 어쩔 당신은 지주님의 도량을 그렇게 밖에 보지 못하신 거죠? 우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신 분인데 말이예요.”

로완은 어깨를 으쓱했다. “뭘, 문제는 간단하죠. 도장과 인주를 다 갖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지주님이 그렇게 하라고만 하신다면.”

“허둥거리며 서두를 이유는 없지요.” 스크립너가 말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절차가 있어야합니다. 제가 마땅한 절차를 거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주님. 지금 하시죠.” 파셀부인이 다그쳤다. “지주님의 성품에 대해 그런 의심을 품은 자를 지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스크립너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파셀부인과 공증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증인은 이미 필기도구함에서 공문서 한 장을 꺼내놓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겠군요. 돌아가신 분을 향한 제 존경의 뜻을 한 층 더 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요. 꼭, 적어 넣으세요. 로완씨 계속 쓰시죠.” 그는 이를 다물고 투덜거렸다. “나는 변호사의 궤변을 듣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4 장-

스크립너가 서명을 끝냈을 때 말로리가 쟁반을 갖고 들어왔다. 파셀부인은 지주가 이기심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에 매료되어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파셀부인은 부엌대기 말로리의 모습이 보자 금세 정색을 하더니 화를 내며 탁자를 두드렸다.

“케익은 어쨌니, 애야! 케익은 어디다 둔 거야?”

말로리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깜빡했던 접시를 들고 허겁지겁 돌아왔다. 그러는 동안 파셀부인은 지주의 잔을 채우기 위해 와인 병을 집어 들었다. 그러다 그녀는 도중에 멈췄다.

“멍청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오늘 아침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니? 병마개를 따지 않았잖아!”

말로리는 다시 부엌으로 뛰어가서 병뚜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가능한 빨리 병을 열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말로리가 세게 병뚜개를 잡아당기고 비틀수록 코르크 마개는 병 안으로 더 꼭 조여 들어갔다. 그러다 결국에는 병뚜개가 갑자기 헐거워지더니 와인 병이 말로리의 손에서 미끄러져서는 바닥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 바람에 와인이 파셀부인의 슬리퍼와 옷의 가장자리에 튀어 버렸다.

“저 계집애가 우리를 망쳐버릴 거라고요!” 말로리가 자루걸레와 쓰레받기를 가지러 달려가자 파셀부인이 소리쳤다. “저 멍청한 애 때문에 우린 망하고 말 거예요! 내가 어지른 것 당장 치우지 못하겠니? 와인 한 병 새로 가져와!”

스크립너는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요, 됐습니다. 파셀부인. 사실 부인께서 환대를 해주시는 바람에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로완이 그 문서를 필기도구함에 넣는 동안 스크립너는 부엌 출입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는 볼트에게 말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파셀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떠나는 스크립너에게 무릎을 굽히며 인사했다. 스크립너는 이 날 아침 있었던 일들에 진절머리가 난 듯한 시라도 빨리 그 일을 잊고 싶어했으나 파셀부인은 그 일로 대단

히 감명을 받은 모양이었다. 손님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파셀부인은 매우 화가 나서 바닥에 흥건한 와인을 성급하게 닦아내고 있던 말로리를 쳐다봤다.

“너 때문에 와인 한 병 값만큼 우리가 손해 봤다. 누가 그 돈을 낼 거지? 내가 품삯을 받고 일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에 그 돈을 끊어버리는 건데!”

따귀를 한 대 맞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로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를 악물었다. 파셀부인이 겪었으면 싶은 고통 목록에 결혼생활의 권태로움까지 추가시킴으로써 위안은 느낀 말로리는 따귀를 맞더라고 잘 견뎌내리라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파셀부인은 두고두고 말로리의 버릇을 고쳐주려는 심산이었다.

“네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못 입을 지경이 돼버리긴 했지만 내 가운 세탁하고 슬리퍼도 닦아두렴. 그리고 정오까지 모두 끝내도록 해. 바닥도 깨끗이 닦고 내 눈에 얼룩하나 띄지 않도록 해놔야해. 그게 끝나면 또”

파셀 부인이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말할 때마다 말로리는 식당에서 몇 시간이고 꼼짝없이 묶여있을 자신을 생각하며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말로리는 아비칸이 분명 자신이 돌아올 것에 대해 벌써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병어리 소처럼 마냥 서있지 말아라.” 파셀부인이 소리쳤다. “너, 오늘 아침에 이미 빈둥거릴 만큼 빈둥거렸잖니. 당장 일을 시작하라. 네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한편 파셀씨는 여전히 빈 와인 잔을 손에 쥔 채 아쉬운 듯 바닥에 깨진 와인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이 지주도 간마당에 기분 전환이나 하자고 와인을 한 병 더 내올 사람이 아니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한 잔 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위라도 하려고 파셀씨는 먹지 않고 둔 케익을 조금 먹어보려고 했다.

“여기 보라구.” 탁자에서 노란색 장갑 한 짝을 집어 들며 그가 말했다. “지주님께서 이걸 깜박하고 두고 가셨네그려.”

“지주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좀 살펴보지 뭐했어요?” 말로리에게서 남편으로 관심을 돌리며 파셀부인이 대답했다. “당신도 꼭 저 계집아이처럼 멍청하기 짝이 없군요. 정말이지 생각이 없는 인간이라니

까. 그나저나 지주님께서 장갑이 필요하실 텐데.”

“장갑을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해 내면 분명 사람을 보내실 거야.”  
파셀씨가 말했다. “그 사이에 얼어죽진 않겠지.”

파셀 부인은 말로리에게 돌아섰다. “내가 지주님 저택까지 뛰어갔다 오너라. 우리 인사말을 전해 드리면서 이 장갑을 지주님께 갖다 드리렴. 그리고 불편하게 헤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맙소사.” 파셀씨가 끼어들었다. “걸어가기엔 너무 먼 거리야. 돌아올 무렵 말로리는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릴 거라구. 내가 말에 안장을 놓고 거기까지 다녀오는 게-”

“말이라고요?” 파셀부인이 소리질렀다. “그리고 나면 말에게 얼마나 많은 먹이를 줘야할 지 알기나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산을 낭비할 셈이우? 저 게으르고 질퍽거리는 동물에게 귀리를 먹이려고? 여인숙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대로 저 말은 도살장 행이예요. 말이라니, 참나! 저 계집애는 말보다 튼튼한 다리와 더 센 힘을 갖고 있다구요.”

말로리를 가엾은 듯 쳐다보고 파셀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한 번 들썩였다. 파셀부인은 나중에 생각이 났는지 남편이 먹을 수 없도록 케익을 집어 들었다. 냅킨에 그 맛있는 음식들을 싸서 잔가지로 만든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넣었고 식료품 저장실 선반에서 갓 구워낸 돼지고기 파이와 딸기잼을 꺼내 함께 넣었다.

“이것들도 지주님께 함께 갖다드려라.” 그녀는 말로리에게 말했다. “안쓰럽기도 하지.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신경쓰느라 너무 바쁘셔서 삶의 여유를 즐길 틈조차 없으셔서. 사소한 것이지만 챙겨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챙겨드리면 지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싼 가격에 채소를 공급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틀림없이 하시게 되겠지.”

파셀부인은 말로리의 품에 바구니를 떠밀었다. “지금 당장 떠나거라. 서두르고, 한 시간 내에 돌아오도록 해.”

파셀부인이 말로리를 재촉하며 떠밀고 나서, 말로리는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파셀부인이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말로리는 화가 났다. “파셀 아주머니는 일부러 그런 거라구.” 말로리는 중얼거렸다. “죽었다 깨나도 내가 지주의 저택에 갔다가 한 시간 안에 돌아올 순 없어. 내가 쉬지 않고 뛰다 해도 불가능해.

이런, 스크럽너와 이 바보 같은 장갑만 아니었어도!”

말로리는 눈앞이 깜깜했지만, 남은 음식들을 모두 모으더라도 마련할 수 없었을 만큼의 질 좋은 음식들을 어찌다보니 파셀부인이 마련해 준 셈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이런 황재를 스크럽너의 손에 고스라니 가져다 줄 말로리가 아니었다. 말로리는 지주보다 아비칸에게 더 절박하게 음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 음식들이 탄 길로 섰다는 것을 알면 파셀부인이 어떤 벌을 자신에게 내릴지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상관없어.” 말로리는 반항적인 말투로 중얼거렸다. “아비칸은 나만의 마법사인걸.”

생각했던 것 보다 시간은 훨씬 더 지체되어 있었다. 마법사에 대한 걱정을 하다보니 말로리는 발걸음을 다시금 재촉하게 되었다. 더 이상 발목을 붙잡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걱정에서 말로리는 재빨리 마을을 지나쳐갔다. 하지만 곧 그 점에 있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거리는 텅 비어있었고 고요했다. 마치 시골 농부들의 불행한 소식이 다른 집들에까지 퍼진 것 같았다.

마을을 벗어나자 말로리는 지주의 저택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숲 쪽으로 뛰어 갔다. 마침내 동굴에 다다른 말로리는 귀에 거슬리는 거칠고 씩씩거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멈춰 섰다. 어떤 무시무시한 공격을 당하더라도 힘없는 마법사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듯, 말로리는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말로리는 오히려 바닥에 등을 대고 납작하게 누워있던 아비칸에게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말로리는 바구니를 내동댕이쳐두고 무릎을 꿇고 아비칸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제서야 말로리는 아비칸이 굶아떨어져 동굴이 떠나갈 듯이 코를 골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로리는 안도감에 흐느꼈다. 몸을 뒤척이던 아비칸은 한 쪽 눈을 뜨고 또 다른 쪽 눈을 꿈뻑 뜨더니 일어나 앉았다.

“돌아왔구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게야.”

말로리는 자신이 아비칸을 걱정할 만큼 아비칸도 자신을 분명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드렁한 아비칸의 말 한마디에 파셀부인에게 따귀를 얻어맞았을 때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 순간만은 아비칸이 마법사라는 것도 잊은 채 그에게 쏘아붙였다.

“전 다리가 아프도록 뛰어 왔어요. 옷도 찢겼구요. 아저씨한테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주의 저택으로 가고 있어야 한대구요. 셋길로 빠진 것에 대해서 혼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아무 것도 상관없다는 듯이 코나 골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우선, 난 코를 골지 않았단다.” 몸을 일으키며 아비칸이 대답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 고셨어요!” 말로리가 우겼다. “제가 들었어요. 정말 심하게 코 골았대구요.”

“난 생각하고 있었어.” 아비칸이 말했다. “좀 시끄러웠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힘들었다니 마음이 안되기는 하다만 내 문제보다는 덜 심각한 게 아니더냐? 옷이 찢긴 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니.”

“죄송해요.” 아비칸의 대답에 실망스러움을 감추며 말로리가 대답했다. 말로리 생각에도 아비칸이 옳긴 했지만 아비칸이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맞아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말로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닌데요. 마을에 나쁜 소식이 있어요. 스크립너가 모든 오두막집들을 허물 거예요. 석탄 채굴장을 시작할 거라나 봐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석탄이 뭔지 아실 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시겠죠.”

“잘 알다마다.” 아비칸이 말했다. “우리 마법사들도 석탄을 잘 알고 있지. 그리고 마법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볼 적엔, 석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아. 만약 너희 인간들이 석탄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엔 그 책임도 인간들의 몫인 게야. 하지만 우리 마법사들은 잘한다고 부추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석탄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벌어진 일은 모두 인간들에게 달린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저씨 같은 마법사들이 이 세상 일들을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알고 계신 모든 지식과 마법의 힘을 사용해서요. 왜 저기, 위대한 왕들과 여왕들도 아저씨와 같은 마법사들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잘못 알고 있구나.” 아비칸이 말했다. “아니란다. 전

혀 그렇지가 않아. 너희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으면 그 결과를 책임지는 거야. 물론 우리 마법사들은 힘을 갖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파 놓은 무덤에서 인간들을 구제해 주려고 매번 그 힘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언을 구한다면이야 도와주었겠지.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더구나. 그렇더라도 우린 그런 지혜를 사람들에게 역지로 꾸역꾸역 집어넣을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현명한 생각이 아니니까.”

“만약 그렇다면,” 인상을 찌푸리며 말로리가 말했다. “마법이 그 누구에게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건가요?”

마법사 아비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이 제대로 박힌 듯한 소리를 하는 구나. 큰 변화라고? 그런 건 없어. 넌 어째서 마법사들의 시대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니? 그건 우리의 마법이 실패했기 때문이야. 전에도 말했지만 마법이 기적을 일으킬 순 없단다. 너희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 인간들을 좀 더 친절하고, 점잖고 아니면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런 마법 같은 건 없다. 그런 일에 쓸 게 아니라면 마법을 뭐 하러 쓰겠니.”

“그럼 호박을 마차로 바꿔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님 지푸라기를 황금으로 바꿔본 적도 없어요?”

“오, 한 번도 없다고 하진 않았어.” 아비칸이 대답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 우리 마법사들은 그런 일을 완벽하게 해 낼 수 있다. 하지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열간이나, 이웃 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왕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그런 마법을 쓰는 일은 결코 없단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욕심을 잘 채우더구나. 변신술, 변형술 그리고 나머지 마법들-우리는 이런 마법의 힘을 오로지 너희 인간들이 이 점을 이해하게 하려고 사용하지. 세상이 모두 하나라는 걸 말이다. 삶은 삶이야.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던지 간에. 이건 매우 간단한 진리이자 너희 인간들은 간단히 무시해버리는 말이기도 해. 우리가 애를 써 봐도 쓸모가 없더구나.” “쓸모가 없었다고요?” 말로리가 말했다. “아저씨의 마법의 힘을 제가 갖고 있었다면, 그 힘이 쓸모 있는지 아닌지 알게 해드릴 텐데

요. 우선 전 당장 스크립너가 석탄 채굴장을 열지 못하게 해버릴 거예요. 그 석탄들을 먼지로 만들어 버릴 거라구요. 아니면 곡괭이나 삽을 유리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장비들은 항상 깨져버리겠죠. 아저씨가 한창 젊으셨을 땐 석탄 광산이 없었죠? 아저씨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에멧 아저씨는, 그 마구 만드는 분이요, 킹스 미클 마을에서 광산을 봤다고 하셨어요. 사촌을 만나러 갔다가요. 마을은 지저분했고 숨쉬기도 어려웠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탄채굴장에서 일하지만 예전보다 더 가난하고 사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형편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증기 엔진이 폭발했을 때, 팔이 잘려진 사람이 있대요-”

“무슨 엔진 이라고?”

“증기 엔진이요.” 말로리도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할 수 있는 한 잘 설명해보려고 애썼다. “그건 새로운 발명품이에요. 에멧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엔진은 물을 끓이고 바퀴를 돌린대요.”

“그리고 분명 가끔씩 폭발하겠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로리가 말했다. “일을 줄이기 위해 그 엔진을 사용하는 건데, 에멧 아저씨 말에 따르면 킹스 미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그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두 배나 더 많은 일을 한 대요. 에멧 아저씨 말로는 그 기계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피해만 준다고 하셨어요. 그 증기 엔진은, 그래요 아저씨는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 게 다행이지.” 아비칸이 말했다. “그 엔진 때문에 난 악몽만 꾸었을 게다. 너희 인간들이 만든 이 엔진이라는 것은 마음을 지니지고 있지 않은 물건이다. 그렇지 않느냐? 물론 없고말고. 너희 인간들이 그것을 생각해 내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기계가 어떤 피해를 주더라도 그 기계를 타할 것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를 타해야지. 불평하지 말고 뭔가 고쳐볼 생각을 해.”

“그렇게 말씀하시긴 쉽죠.” 말로리가 대답했다. “아저씨 마법의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린 그게 없거든요. 스크립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물론 못하고요. 하지만 아저씨가 스크립너에게 마법을 쓰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주문을 걸고 천년 동안 잠만 자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너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들었구나.” 아비칸이 말했다. “마법은 어떤 것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다. 오로지 겉의 가장자리만을 건드릴 수 있는 계지. 생각을 해 보거라. 네가 정말로 스크럽너라는 친구를 몰래 해쳐버렸다고 치자. 네가 계속해서 그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뭐냐? 가렵다고 긁기만 하면 낫는 게 아니야.”

“전 상관없어요.” 말로리가 말했다. “그래도 전 스크럽너를 두꺼비로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고 달로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말로 안 되지.” 아비칸이 대답했다. “그럴 필요가 없단다. 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어. 네가 진심으로 그 일을 바라기만 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방금 마법은 쓸모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로리가 항의하듯 말했다.

“난 ‘마법’이라고 했지 ‘능력’이 쓸모없다고는 하지 않았다.” 아비칸이 바로잡았다. “능력이란 너희 인간들도 가장 위대한 마법사만큼의 힘을 갖고 있단다. 인간들의 능력은 단지 그 모습이 다를 뿐이야. 그리고 대부분 너희 인간들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 인간들은 돈이나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비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시간이 없는 거야.”

말로리는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이해가 가지 않아 아비칸에게 좀 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할 참이었다. 마법사 아비칸은 그러나 바구니 속에서 먹을 것들을 발견하고는 파이 조각들을 입 속으로 꾸역꾸역 밀어 넣고 있었다.

“넌 네 문제들을 네 방식대로 해결해야 하는 거다.” 아비칸은 음식을 씹으면서 동시에 말하려 애쓰며 웅얼거렸다. “그리고 난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코를 골았다고 네가 말한 그 때, 난 이니스계곡으로 돌아갈 계획을 짜고 있었어.”

“방법을 찾으셨어요?”

“물론이지.” 아비칸이 대답했다. “매우 간단해. 그 생각을 바로 해냈어야 하는 건데. 난 배를 타고 그곳까지 갈 거란다. 애시당초 그랬어야 하는 거니까.”

“뚝단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을에 없어요.” 말로리가 말했다. “강가 목재 작업장에 거룻배가 하나 있어요. 호지 아저씨가 통나무를 운반할 때 쓰는 배예요. 노 젓는 배도 두 척 있는데 그게 다예요.”

“평범한 배로는 이니스 계곡까지 갈 수 없어.” 마법사 아비칸이 말했다. “난 내 배를 만들 테다. 내 떡갈나무의 나무로 만들 생각이지. 그 나무는 내 감옥이었으니 내 자유의 배가 되어줘야 해. 나무 안에 갇혀 있는 동안 내 마법의 힘 일부가 그 나무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나무가 더없이 좋은 재료가 될 게다.”

“배 만들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말로리가 물어보았다.

“아니.” 아비칸이 대답했다. “그렇게 따지면 귀를 땅에 대고 일어서 본 적도, 체로 장어를 잡아본 적도 없기는 마찬가지지. 에휴, 내가 뭘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아무래도 내가 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구나.”



-제 5 장-

마지막 남은 음식 조각들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비칸은 수염에 붙은 음식 부스러기들을 털어냈다. 뺨이 빨그레해져 혈색이 좋아지고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아비칸을 보자 말로리는 기뻐했다. 아비칸이 재빠르게 동굴을 빠져나와 쓰러진 떡갈나무를 향해 발길을 되돌리자 말로리는 그를 따라나섰다.

“지금 배를 만드실 건가요?” 아비칸이 유심히 나무를 살펴보고 있는 동안 말로리가 물었다. “그렇게 일일이 손수 만드실 참이세요? 마술 지팡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마술의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식물의 뿌리나 잎을 태우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아니지.” 아비칸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너희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중요한 일을 할 적엔 꼭 말도 안 되는 일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더구나.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만 해도 아무 것도 아닌 날씨가 예언을 할 때조차 우리 마법사들이 소란법석을 떨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인간들이 있었지. 어찌되었던 간에 난리법석을 떨어주면 안심이 되나 보더군. 그래도 쓸데없는 일이지. 마법은 내부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건 그렇고, 강 얘기를 하던데. 어느 쪽이냐?”

말로리는 강 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아비칸은 나무 기둥에 시선을 고정하더니 두 팔을 벌리고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제발요.” 말로리가 갑자기 불쑥 끼어들었다. “부탁드릴게 있어요.”

“조용히 좀 못 하겠니!” 마법사 아비칸은 화가 치밀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내 마법의 힘이 이제 막 말을 듣기 시작했던 말이야. 좋다 그래. 이번엔 또 뭐냐?”

“제발,” 말로리가 간곡히 부탁했다.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이니스 계곡으로요.”

“뭐라고?” 도저히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비칸이 말로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소리쳤다. “너를 말이나? 인간을 데려간다고? 세상에, 여자아이를? 그건 불가능해.”

“마법사한테 불가능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말로리가 고집

을 부렸다. “아저씨가 원하기만 하면 분명 하실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과셀씨 택에서 죽어라 일하는 것도 고역이지만 스크립너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마을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넌, 너 혼자 도망가고 싶다는 게냐? 다른 사람들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보겠다고 애쓰는데? 내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렇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예요.” 말로리가 항변했다.

“하지만 넌 그런 뜻이었어.” 아비칸이 말했다.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 안 돼. 내가 널 데려가고 싶다 해도 그럴 수는 없다. 안 되고 말고. 그러니 그런 생각 따윈 영영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말로리는 시선을 떨구었다. 실망스러운 것은 둘째 치고 말로리는 이제 그런 부탁을 한 자신이 더 어리석게 느껴졌다. 더욱 속상한 건 아비칸이 이제 자신을 이기적인 아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리 스스로도 아비칸이 옳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아비칸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듯 몸을 구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떡갈나무는 꼼짝하지 않았다. 여러 번 지켜보다 말로리가 용기를 내어 속삭였다.

“뭘가 잘못된 거죠? 나무가 배로 바뀌질 않아요.”

“물론 바뀌지 않지.” 아비칸이 쏘아붙였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런 숲 한 가운데서 배를 만들 사람은 없을 거다. 난 이 나무를 들어올려 강으로 날려 보낼 게야. 이제 입 다물고 있지 못할 것 같으면 가서 제발 다른 곳에서 기다려 주면 좋겠구나.”

아비칸은 다시 하던 일을 계속 했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턱수염으로 똑똑 떨어지는 동안 그의 두 팔은 팽팽하게 긴장되고 부들부들 떨렸다. 그 나무는 앞뒤로 흔들거리며 천천히 손바닥 정도의 너비로 땅에서 떠오르려는가 싶더니 묵직한 소리를 내며 꿈 땅에 떨어져버리고 말았다.

아비칸은 툭툭거리며 두 뺨을 부풀렸다. 그는 갑자기 키가 더 자라 말로리보다 더 커진 것처럼 보였다. 그때야 비로소 말로리는 떡갈나무가 아니라 아비칸이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붙잡아!” 두 팔을 휘젓고 말버둥치며 아비칸이 소리쳤다. “주문이 잘못됐어! 날 좀 끌어내려다오. 내가 똥똥 떠오르는 게 안보이나?”

말로리는 앞쪽으로 튀어나가 최대한 높이 뛰어 아비칸의 발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아비칸은 발은 잡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올라가 버린 상태였다. 망토를 퍼덕거리면서 아비칸은 계속 날아가고 있었다.

말로리가 손을 놓고 지켜보고 있던 바로 그 때, 아비칸의 퍼덕거리던 두 팔이 흐릿하게 보이면서 희미하게 반짝거렸다. 말로리는 두 눈을 비볐다. 순식간에 한 형체가 다른 모습으로 변득이는 듯 하더니 아비칸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영성하게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 커다란 회색 거위 한 마리가 남아 있었다.

그 새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이 힘겹다는 듯 목을 쭉 늘이고 날갯짓을 해댔다. 그러나 잠시 동안 공중에 균형을 잡고 있는가 싶던 그 새는 이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고 그 자리엔 깃털들이 무성하게 날렸다.

“이젠 정말 못 참겠다.” 거위 부리에서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거위는 조금한 듯 설 새 없이 딱딱거리며 부리를 열었다 닫았다. “날아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로군. 순간적으로 바로 날아올라야 했었던가?”

“아저썬 거위로 변신하신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로리가 헐레벌떡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란다.” 아비칸이 대답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돼버렸어. 내가 일부러 이런 꼴을 골랐다고 생각하니? 내 마법의 힘이 온통 뒤죽박죽이야. 도대체 마법을 제대로 쓸 수가 없구나. 난 단지 땅에 다시 내려가려던 것뿐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꼴이 돼버렸어.”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계실 수는 없잖아요.” 말로리가 말했다. 처음에 받았던 충격이 점차 사라지고 말로리는 조금씩 거위와 대화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래도 그 거위는 새가 아니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아비칸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났어요.” 말로리는 얼굴이 환해지며 서둘러 말했다.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했을 때, 개구리는

다시 왕자가 됐거든요. 제가 아저씨에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 본다.” 기러기 울음소리 같은 콧소리를 내며 아비칸이 대답했다.

“또 옛날이야기 타령이구나. 지금 상황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야.”

“전 단지 도움이 될까 해서 생각해 본 것뿐이에요.” 의기소침해진 목소리로 말로리가 대답했다. “뭐 하지만 그렇게 느끼신다면야 어쩔 수 없죠.”

“내 기분 때문이 아니야.” 아비칸이 말했다. “내가 이 깃털 더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키스 가지고는 안 될 거란 얘기야. 내가 마법의 힘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떡갈나무 속에 갇혔던 것처럼 끔찍하게 이곳에 갇혀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굳이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식물로 사는 것보다야 새가 되는 편이 낫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실 수 없다면,” 말로리가 물었다. “이니스 계곡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면 배를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거위는 날개를 펴고 눈을 치켜뜨더니 골똘히 날개를 쳐다보았다. “내 동료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변신 마법도 제대로 해 내지 못했다는 걸 시인해야 하는 건 끔찍하겠지만 네 말이 맞을 지도 모르겠구나. 어떻게 될 런지는 잘 몰라도 인간 세계에 머무르는 것보다야 낫겠지.”

“그래, 날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당장이라도 날아갈 듯이 날개를 펼치고 갈퀴가 달린 발로 일어서며 아비칸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너도 알겠지만 이 거위라는 녀석들이 튼튼한 동물들이거든. 내가 닭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래. 이렇게 하면 정말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면 난 이제 가봐야겠다. 안녕. 잘 있어라. ‘소원’ 너도 알다시피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희망이란다.”

아비칸이 갑작스럽게 떠나려하자 말로리는 그가 변신했을 때보다도 마음이 더 심란해져서 작별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매들을 조심

하세요-”라고 덧붙이며 중얼거리고 말았다.

“매들이 오히려,” 아비칸이 말로리를 안심시켰다. “나를 조심해야 할 걸.”

아비칸은 그 말을 하며 날개를 힘차게 펴덕거리며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위로 쪽 올라가기 시작했다. 혼자 처량하게 남겨진 말로리는 아비칸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나무 꼭대기 높이까지 올라갔을 무렵, 거위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버둥거리며 애쓰는 것 같았다. 더 높이 올라가는커녕 그 새는 공중에 떠있기 위해서도 무척 힘을 들이고 있었다. 거위가 땅 쪽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자 말로리는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거위가 아니라 아비칸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체정신이 아닌 듯 양팔을 흔들고 발길질을 해대며 아비칸은 원래 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잠시 후에 마법사 아비칸은 키가 큰 느릅나무의 위쪽 가지들 사이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더니 나뭇잎 속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말로리는 그 나무로 달려갔다.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 아비칸은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한 쪽 다리는 빠죽 나온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그의 수염은 잔가지에 얽혀있었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터에 화까지 나서 아비칸의 얼굴은 새빨갳게 물들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나무 기둥을 기어 올라가며 말로리가 소리쳤다. “지금 있는 그대로 계세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도 없어.” 마법사 아비칸이 되받아 쳤다. “떨어져 목이나 부러지면 모를까.”

이때쯤 되어 말로리는 아비칸의 엉킨 수염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말로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아비칸의 몸이 여기저기에 걸려 있어서 자칫 잘못 움직였다간 땅에 머리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비칸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화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아비칸을 구해낼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말로리가 애쓰는 동안에도 아비칸은 투덜거렸고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마침내 말로리가 인내심을 잃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좀 조용해 주시겠어요?” 말로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가 그러실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이제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저씨 목이 부러지고, 제 목도 부러질 테니까요.”

조심스럽게 말로리는 아비칸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뭇가지 쪽으로 올라갔다. 그 와중에도 아비칸은 여전히 투덜대며 낮은 소리로 궁시령대고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말로리는 아비칸의 한쪽 다리를 빼낼 수 있었다. 한편 아비칸은 말로리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하면서 바로 아래 있는 나뭇가지를 세게 움켜쥐었다. 말로리가 시키는 대로 아비칸은 나무 기둥에 무릎이 닿을 수 있도록, 매달린 채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조금씩 조금씩 말로리가 가리키는 대로 손을 바꿔 쥐어 가면서 아비칸은 기운을 내고 땅으로 기어 내려왔다. 숨이 차고 온 몸에 진이 빠져 부들부들 떨면서 아비칸은 털썩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한편 말로리는 두 손 두 발을 모두 짚으며 아비칸을 따라 힘겹게 내려왔다. 한 순간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불평할 기력조차 없었던 아비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뭇가지에 걸려 망토는 찢겨져 있었고 수염도 조금 뜯겨 버렸다. 산발이 된 그의 머리에 매달려 있는 보잘것없는 깃털 하나만이 희망에 가득 차서 이니스 계곡으로 날아가려 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할 뿐이었다.

“괜찮으신 거죠?” 자존심만 상처를 입었을 뿐 아비칸의 몸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자 말로리가 물었다.

“아저씨 잘 해내셨어요.”

“내가 말했잖니. 난 내 힘을 조정할 수가 없다고.” 아비칸이 대답했다. “마법의 힘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힘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니스 계곡으로 날아간다고? 일찌감치 꿈을 깨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아저씨 배타고 가는 걸 시도해보실 수 있잖아요.” 말로리가 아비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배를 만들어? 내 주문이 딱히 들어가는 꼴을 보아하니 배가 아니라 외발 수레가 돼버릴 것 같구나.”

“배를 평범한 방법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파셀 아저씨 헛간에 공



구 상자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로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나무는 그 떡갈나무에서 다 얻을 수 있구요. 뜻으로는 침대 커버를 쓰면 되요. 아니면 파셀 아주머니의 속치마를 하나 가져다 쓸 수도 있죠. 속치마들이 아주 크거든요.”

“그럼 한 번 그럴 싸 하겠다.” 아비칸이 말했다. “침대보와 속옷의 힘을 빌려 이니스 계곡으로 향해한다니. 하지만 지금은 사소한 일에 트집 잡고 있을 때가 아니지. 좋다. 우선 이 나무를 어떻게 강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냐?”

“우선 가지들을 잘라 내야 해요.” 말로리가 대답했다. “그러면 움직이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줄로 묶어서 우리 둘이 끌면 되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할 판이로군.” 아비칸이 투덜댔다. “너희 인간들은 그런 일에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지가 못해. 네 말대로 했다간 허리가 빠고 손가락에 물집만 생기게 될 게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말로리가 대답했다. “전 아저씨를 돕고 싶지만 물집 좀 생기는 게 아저씨에게 문제가 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걱정이다.” 다른 그 어느 때 보다 우울한 모습으로 아비칸이 말했다. “내 생각에는 또 그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구나. 난 뗏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항해하는데 적합한 배가 필요하단다. 수 주일, 아님 그 이상이 걸릴 게야. 나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렇더라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말로리가 아비칸에게 용기를 주려했다. “그러는 동안 아저씨의 마법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뭔가는 해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자리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맴도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 첫 번째로 약간의 밧줄이 필요해요.”

“잠깐, 잠깐,” 아비칸이 말했다. “뭔가 생각이 나려고 하는데. 방금 뭐라고 말했니?”

“밧줄이요. 밧줄로 나무 기둥을 묶을 수 있다구요.”

“아니, 그게 아니야. 잠깐만, 생각났어. 동그라미들.” 그는 잠시 동

안 멈췄고 인상을 찌푸리며 눈썹을 문질렀다.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단 말이야. 잊어버린 거야. 나무에서 사는 동안 내 기억이 딱딱해져버린 거라구.” 그러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맞아, 맞아, 바로 그거야! 황금 동그라미!”



-제 6 장-

아비칸은 벌떡 일어섰다. 말로리가 이제껏 본 그 어느 때보다 아비칸은 흥분된 모습이었다. “바로 그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거!”

“황금 동그라미라고요?” 말로리가 말했다. “전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네가 주문이라 하던 마법의 주문이라 하던 비법이라 하던 하여튼 바로 그거야. 신참 마법사는 누구든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걸 배운단다. 그걸 생각해내는 걸 깜빡해버렸지 뭐냐! 하지만 이제 내가 생각해 냈으니 문제없다. 과거의 잃어버린 모든 힘을 되찾기 위해, 아가씨여, 황금의 동그라미를 주십시오.”

“전 아직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고 하니,” 아비칸이 대답했다. “말 그대로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문제가 훨씬 간단해졌어. 이제 아가씨를 찾기만 하면-”

“저는 안 되나요?” 말로리가 물었다. “저도 아가씨예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여기서 말하는 아가씨는,” 아비칸이 말했다. “부엌대기 아가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어쨌든 말이라도 고맙구나.”

“어떤 아가씨를 생각하시던 간에,” 말로리가 말했다. “제가 적임이라구요.”

아비칸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네가 그 일을 잘 해 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럼 황금의 동그라미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건 어떤 동그라미죠?”

“어떤 동그라미든 무슨 상관이나?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지. 그렇지 않느냐? 주문에는 그렇게 밖에 나와 있지 않아. 적당한 걸 찾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게다. 내가 그걸 가질 것도 아니고 쓰고 나면 네게 돌려 줄 게야.”

“아저씨가 한참 잘 나가는 마법사이셨을 땐 그런 걸 찾는 게 분명 훨씬 쉬웠을 거예요.” 말로리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에 금이

라곤 거의 없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없구요. 저희 엄마 결혼 반지는 파셀 아주머니가 오래 전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파셀 아주머니요? 아주머니야 반지를 끼고 계시죠. 진짜 금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요. 게다가 그 반지를 벗는 일이 절대 없으세요. 반지 끼는 손가락이 너무 굵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은,” 아비칸이 말했다. “그깟 자질구레한 장신구 하나가 없어서 내가 주문을 걸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냐? 말도 안 되지!”

“스크럽너한테 쓸만한 게 있을 지도 몰라요.” 말로리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내죠?” 말로리는 낙심한 듯 소리 내 울었다. “맞아! 스크럽너! 장갑이 있었지!”

“금 얘기를 하다가,” 아비칸이 말했다. “난데없이 장갑 타령이냐.”

“스크럽너의 장갑이요. 그가 가게에 장갑을 두고 갔거든요. 깜박했어요. 그 장갑을 지주의 저택에 가지고 갈 참이었거든요.”

“장갑 없다고 큰 일 나는 건 아니야.” 아비칸이 말했다. “쓸데없는 심부름이나 하면서 시간낭비하지 말거라.”

“전 꼭 심부름을 해야 해요.” 말로리가 말했다. “파셀 아주머니가 스크럽너에게 가져다주라고 한 음식을 아저씨가 모조리 먹어버린 것만 해도 큰일이란 말이에요. 스크럽너에게 장갑까지 가져다주지 않았단 것을 아주머니께서 아시는 날에는 며칠동안 저를 가둬놓으실 거예요. 아저씨 도와드리러 나올 수도 없을 거라구요.”

“그렇다면 그 망할 장갑을 가져다주고 그 심부름을 해 버리면 되지.”

“너무 늦었어요. 아주머니는 한 시간밖에 시간을 주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구요. 집을 나섰을 때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더 일이 커져버렸어요.”

“그러면 내 상황도 더 안 좋게 된다는 말이군.” 화가 난 듯 수염을 잡아당기며 아비칸이 말했다. “웬 바보녀석과 그 장갑 덕분에 일이 이렇게 됐군. 좋아. 내가 너를 그 스크럽너가 뭔가 하는 놈에게 데려다 주고, 다시 너를 이 파셀인가 뭔가 하는 작자 집으로 가능한 빨리 데려다 주마.”

“나를 데려다 준다고요?” 말로리가 대답했다. “아저씬 절반도 못

가실 거예요.”

“내가 등에 업고 간다는 말이 아니야.” 아비칸이 쏘아붙였다. “내가 짐 나르는 노센 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마법을 다시 써 볼 참이다. 잠만 되면 넌 눈 깜짝할 사이에 그곳에 가 있게 될 게야. 하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게 되는 날엔 우린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거나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있게 될 수도 있지. 내 경고하지만 그런 위험부담은 있어.”

“전 두렵지 않아요.” 무릎이 갑자기 후들후들거리긴 했지만 말로리가 당차게 말했다. 하지만 아비칸과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말로리는 용기가 줄어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가 날 안내해 주게 된다.” 말로리의 한쪽 손을 꼭 잡으며 아비칸이 말했다.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거라. 눈을 감고 그 곳을 떠올리고 머릿속에서 그곳을 보려고 애써보렴. 할 수 있겠니?”

“모르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지주의 저택에 자주 가본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거라.”

말로리는 파셀 아저씨와 마차를 타고 그곳에 마지막으로 갔던 때를 가능한 분명하게 기억해내려고 애쓰며 두 눈을 꼭 감았다. 말로리는 회색 돌로 만들어진 높은 벽, 철문, 저택 앞에서 구부러져 있는 자갈길, 높은 굴뚝, 박공지붕들 그리고 여단이 창문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떠오르자마자 열 두어 가지나 되는 다른 생각들이 밀려왔다. 말로리가 저택에 대해서만 상상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딴 생각만 더 많이 날뿐이었다. 스크럽너, 깨진 포도주 병, 나무에 갇혀 있었던 아비칸에게로 생각이 쏠려버리는 것이었다. 말로리는 아비칸의 목소리를 들었다.

“준비됐니?”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말로리가 소리질렀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있지만 모든 게 뒤죽박죽이에요.”

“네가 너무 애를 많이 쓰는 게구나. 생각을 가볍게 한 데 집중하렴. 모조리 다 기억해 내려고 애쓰지 말고.”

말로리는 저택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그러나 그 순간 파셀부인이 지하실에 자신을 가두는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그리고는 잠긴

문을 헛되이 두드려 보는 자신의 모습도 생각이 났다.

“지금이야!” 아비칸이 명령했다.

“잠깐만요. 아직 아니에요!” 말로리의 심장은 고동쳤고, 땅이 발 밑에서 꺼지는 것 같이 양쪽 귀가 울렸다. 바구니를 짊어지며 말로리는 갑자기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빙글빙글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비칸이 여전히 말로리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말로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쇠 손잡이가 달린 육중한 문의 빗장을 붙들고 있었다. 말로리 옆쪽에선 끈으로 묶은 상자들과 종이 봉치들이 쌓여있는 선반에 앉아 아비칸이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창문 없는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책상과 등받이 없는 높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탁자에는 장부들로 둘러 쌓인 채, 스크럽너가 쇠로 된 금고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바로 그 때 숫자들은 쪽 정리하다 지주는 장부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깃펜에 잉크를 묻히려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말로리와 아비칸의 모습을 보고 그는 팔을 뻗다 만 채 멈추고 말았다. 그는 눈을 튀어나올 지경이었고 두 뺨엔 부들부들 경련이 일어났다. 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금고가 나동그라졌고 잉크병이 날아갔다. 자신이 스크럽너의 회계실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스크럽너만큼이나 깜짝 놀라 머리가 계속 빙빙 도는 것 같았던 말로리는 아무 말이나 불쑥 내뱉었다. “저, 저 장갑을 두고 가셨어요.”

스크럽너는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두 팔을 휘둘러대고 있었다. 그러나 말로리의 목소리를 듣고 나자 스크럽너는 자신이 물리쳐야 할 상대가 마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듯 했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면서 스크럽너는 말로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무슨 불일이 있어서. 나를 염탐하러 온 거냐?”

“저 케익과 그리고 돼지고기 파이가 있었는데,” 말로리가 더듬더듬 말했다. “다 먹어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여기 지주님 장갑이요.”

“돼지고기 파이라고? 망할 놈의 장갑! 뭘 엿보고 있었던 거지? 이 못된 계집년 같으니. 대답해!” 차분해지기는커녕 지주는 더욱 노발

대발 화를 냈다. 그는 말로리를 붙들었다. 아비칸이 앞으로 나와 멈추라고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스크럽너는 말로리를 바닥에 내동댕이쳤을 것이다. 아비칸은 팔을 들어올려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스크럽너를 가리켰다.

아비칸의 단호한 어조에 스크럽너는 말로리에게서 손을 뺐고, 말로리는 벽을 등지고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쳤다. 두 사람이 회계실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다시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비칸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로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비칸이 그렇게 주문을 걸었다 하더라도 그의 마법은 또 말썽을 부렸을 것이다. 말로리를 보호하려던 아비칸은 스크럽너의 화를 돌운 셈이 되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야?” 말로리와 함께 있는 아비칸에게 관심을 집중하며 스크럽너가 소리쳤다. 아비칸이 대답할 새도 없이, 스크럽너는 볼트를 소리쳐 불렀다. 그러면서 동시에 탁자에서 권총을 짹째 꺼내 들고 침입자들에게 꿈쩍 말고 서 있으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사냥터지기 볼트가 방문을 열어 제치며 들어왔다.

“볼트, 이 빌어먹을 인간 같으니.” 스크럽너가 소리쳤다. “내 회계실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지주님, 제가 들여보낸 게 아닙니다.” 사냥터지기는 말로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더니, 아비칸의 모습을 보고는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불멘소리로 말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낡은 망토를 걸친 자는 누군지조차 모르겠는덱쇼.”

충부리를 겨눈 채, 스크럽너는 아비칸을 보려고 획 돌아섰다. “당신 이름이 뭐야?”

“이쪽은 아비칸씨예요.” 아비칸이 가시 돋은 말이라도 하는 날엔 둘 모두에게 상황이 안 좋아 질 것을 걱정한 나머지 말로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이 분은 어, 여행객이에요. 길을 잃었거든요. 방향을 물어보려고 여기 멈추신 거예요.”

“내가 방향을 알려주지.” 스크럽너가 대답했다. “아직 지옥 구경 못해봤으면 지옥에나 가라 그래. 여행객이라, 정말인가? 어디로 가는데? 교수대로?”

말로리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칸은 앞으로 나아가더니 스크립너의 미간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쉼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행동거지와 성품으로 판단해보자면 나보다 당신이 먼저 지옥에 가겠군 그러.”

“입 다물어. 이 교활한 늑은이 늑은이니!” 볼트는 아비칸의 면전에다 주먹을 휘둘렀다. “지주님, 제가 저 늑은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교수형을 당할만한 극악무도한 인간이예요. 얼굴에 써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볼트.” 스크립너는 생각에 잠긴 듯 아비칸을 흘겨보며 말했다. “이자를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 이제 생각났어. 이자를 본 적이 있어. 오, 고인이 되신 옛 지주님께서 살해당한 바로 그 날, 이 자를 틀림없이 봤어.”

“말도 안돼요!” 말로리가 소리쳤다. “그랬을 리가 없어요. 아저씨는 나무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나무?” 스크립너가 말했다. “그래, 그랬었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 대로 변 숲 속에 말이야.”

사냥터지기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저자가 살인자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저자가 틀림없단 거죠. 여긴 미쳐 흠쳐가지 못했던 것을 가져가기 위해 다시 돌아온 거로군요.”

스크립너는 점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은 아주 묘하군, 볼트. 아주 묘해. 하지만 정의는 조만간 실현되게 마련이지. 이 악한을 잡으려고 내가 안 찾아 본 곳이 없네. 나는 이 짐승을 잡아들인 사람을 위해 내 전 재산을 내 놓았어. 그리고 이제 바로 내가 이 자를 붙잡게 된 걸세. 그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 받았던 바로 내가 말이야. 이게 신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아, 볼트, 돌아가신 지주님께서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자 밧줄 좀 가져오게. 이 악당을 공증인에게 데리고 가서 내가 약속한 말을 실행에 옮겨야겠네. 저 계집애도 이 일에 어떻게든 필시 연관되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범죄자임이 판명된 저 자와 함께 뭘 하고 있었겠나? 보나마나 뻥해. 저 애도 추궁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네. 살살이 알아내고 말겠어. 모조리 밝혀내기 전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게야.”



-제 7 장-

볼트는 회계실에서 허둥지둥 뛰어 나갔다. 그러는 동안 아비칸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태도로 스크립너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로리를 바라봤다.

“보통 때 같았으면 나를 강도와 살인자로 치부하는 이 자의 태도에 크게 화를 냈을 게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를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이리 오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가 아저씨를 죽일 거예요!” 말로리가 소리쳤다. “스크립너가 총가진 거 못 보셨어요?”

“총 아니라 총 할애비라도 상관없어.” 아비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비칸은 차가운 표정으로 스크립너를 쳐다봤다. “당신이 나한테 흔들어대고 있는 연장으로 치명타를 날려볼 심산이라면 당장 저리 치우시지.”

대답 대신 스크립너는 다문 이빨 사이로 저주 섞인 말을 중얼거리더니 아비칸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 아비칸은 어깨를 한번 들썩여 보일 뿐이었다.

“좋다. 네놈이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조잡스러운 장난감은 이제 뱀으로 변하게 될 게야. 그것도 아주 성난 놈으로.”

그러면서 아비칸은 손가락을 돌돌 감아보였다. 하지만 총은 그대로 놓여있었고 말로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살인자인줄만 알았더니, 완전히 미친놈이구만!”

“아니예요!” 말로리가 소리쳤다. “보세요, 여기 보시라구요! 뱀이 통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어요!”

말로리의 말에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스크립너는 총구를 살펴보기 위해 총을 돌렸다. 그러나 총구엔 뱀은커녕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임수 덕분에 말로리는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 틈을 타 바구니를 낚아채고는 온 힘을 다해 스크립너의 머리로 내던졌다. 불시에 공격을 당한 스크립너는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자빠지고 말았다. 그러면서 손에서 떨어져 나온 총은 뱅뱅 돌더니 공중으로 발사되었다.

“어서요! 도망가요!” 말로리가 아비칸을 재촉했다. 한편 스크립너는 총을 찾으려고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었다. 아비칸은 꿈쩍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총성을 들은 터라 겁에 질려 눈을 둥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말로리는 아비칸을 붙잡아 그 방에서 재빨리 끌어냈다. 말로리가 어찌나 세게 잡아끌었는지 아비칸은 발을 헛디딜 뻔했다. 말로리는 아비칸을 복도로 밀어 붙이더니 처음 나온 문을 통해 함께 빠져나왔다. 그 문은 부엌으로 통하고 있었는데 침입자들을 발견한 주방장은 화로에 올려놓으려던 고기를 떨어뜨렸고, 한 하녀는 쌓아놓은 접시들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곤 그 들은 있는 힘껏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다.

열려있는 창문을 살펴보다 말로리는 창턱 위로 아비칸을 밀어냈다. 그 바람에 아비칸은 마구간 마당으로 나동그라졌다. 말로리는 아비칸을 따라갈 참이었으나 정신을 차린 주방장이 달려와서 말로리의 목 뒷덜미를 붙잡았고, 하녀는 버둥거리는 말로리를 후려치려고 손잡이가 긴 숟가락을 집어 들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비칸을 쫓아가려고 마음 먹은 말로리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매질에도 아랑곳없이 말로리는 주방장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마당으로 몸을 날렸다.

말로리는 손을 딛고 일어섰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아비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막막하여, 말로리는 황급히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구간들이 근처에 보이자 말로리는 마구간 어딘가에 아비칸이 숨어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재빨리 그 쪽으로 달려갔다. 바로 그때, 마구간지기 소년 웨이클링이 갈퀴를 흔들어 대면서 모퉁이를 돌아 달려 나왔다.

말로리는 재빨리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나 웨이클링은 도망가는 여자애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집 뒤쪽으로 달려가더니 두 명의 여자와 함께 있는 스크립너와 마주쳤다.

“지주님, 마구간에 커다란 수사슴이 한 마리 있어요.” 웨이클링이 소리쳤다. “와서 보세요!”

“수사슴은 무슨 얼어 죽을!” 한껏 들떠있는 마구간지기 소년에게는 별 볼일 없다는 듯 스크립너가 소리쳤다. “그 늑은이는 어디로 간 게냐?”

“아무도 못 봤는데요.” 웨이클링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 사슴은 정말 굉장했어요!”

“저리 비켜!” 웨이클링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스크럽너가 호통을 쳤다. “그 늑대를 찾아내! 그 계집아이를 잡으란 말이야!”

그 때 말로리는 가장 가까이 있던 헛간을 거쳐 마구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개 우리에서는 스크럽너의 사냥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었다. 아비칸이 실수로 개 우리로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하며 말로리는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헛간 뒤쪽에서 말로리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큰 수사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그 사슴은 뛰어와 말로리 앞을 막아서더니 허리를 낮추고 뿔이 달린 머리를 흔들어들었다.

“올라타! 내 등에 올라 타라구!”

잠시 어리벉벉해진 말로리는 안절부절 발을 구르는 그 사슴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시키는 대로 해! 어서 올라 타라구!”

아비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로리는 일단 사슴에 올라탔다. 스크럽너는 웨이클링이 뒤따라오는 가운데 마구간 마당을 가로질러 쿵쿵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경충경충 뛰는 사슴 위에 말로리가 올라타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멈추어 섰다.

“사슴이에요!” 웨이클링이 소리쳤다. “그리고 그 식당 여자가 사슴을 타고 있어요! 와, 저것 좀 보세요, 지주님!”

마구간 소년이 신기해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럽너는 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내내 노발대발하던 스크럽너는 총에 실탄을 다시 장전하는 것을 깜박했고 아무리 총을 쏘아도 빈 탄창에서는 찰각하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욕을 퍼부어대며 스크럽너는 쓸모없어진 총을 내던져 버리고, 깜짝 놀란 채 서 있는 웨이클링에게서 쇠스랑을 낚아채서는 말로리를 향해 똑바로 내던졌다.

목표물에 거의 꽂힐 뻔했던 쇠스랑은 사슴이 빙 도는 바람에 썩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자 커다란 몸집의 사슴은 머리를 숙이더니 스크럽너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날카로운 사슴뿔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스크럽너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짹짹 엎드렸다. 달려오던 사슴은 아슬아슬한 순간에 방향을 바꾸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목초지를 향해 달려갔다. 사슴은 울타리를 한번에 훌쩍 뛰어넘었고 숲으로 번개처럼 달아났다.

사슴이 덤불숲을 가로질러 달리고, 잡목 숲으로 뛰어드는가 하면, 나뭇가지와 덩굴이 뒤엉켜있는 곳을 전속력으로 달려 뚫고 들어가자 말로리는 너무 놀라서 팔과 다리로 사슴을 꼭 끌어안았다.

사슴은 지주의 저택을 한 참 떠난 후에야 멈춰 섰고, 말로리는 사슴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말로리는 여전히 숨을 헐떡거렸고 가까스로 도망을 나온 터라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았지만 아비칸의 새로운 변신에 감탄하여 사슴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저씨가 우릴 구했어! 마법이 돌아온 거라구요. 정말 멋져요!”

사슴은 씩씩거리듯 말했다. “이게 무슨 꼴인지 원! 난 말로 변신할 생각이었다.”

“그래도 비슷하게 됐잖아요.” 말로리가 말했다. “거의 구색은 다 갖췄어요. 다리 네 개, 발굽이랑-”

“내 머리에 돌아난 이 망측스러운 가지들 좀 봐라. 소가 되지 않은 게 다행이지. 아직도 마법을 제대로 쓸 수가 없구나. 내 마법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아. 난 정말 네 지주의 면전에 나타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히려 내가 나보다 잘 처신했어.” 아비칸이 말로리를 칭찬했다. “정말 잘했어. 나도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걸. 네가 그를 감쪽같이 속이지 못했다면, 그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안 봐도 훤히구나.”

“그가 어떤 짓을 저질렀을지 저도 알아요.” 말로리가 말했다. “아마 아저씨를 총으로 쏘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남지. 그 총 말이야. 그 사악한 기계로 날 죽였을 게야. 아무런 해가 없는 혼합물이라도 인간들의 손에만 들어가면 몸 쓸 용도로 사용되고 만단 말이야.”

“화약말씀이세요? 화약에 대해 아세요?”

“화약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말고. 우리 마법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 여기에 한 줌, 저기에 한줌 뿌리면 모닥불 위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놀이긴 하지만. 우리 마

범사들은 그 비법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줄만큼 어리석진 않아. 틀림 없이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낸 게지. 인간들이 잔머리 하나는 보통이 아니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이 똑똑하다는 건 아니야. 그 흉악한 얼굴이가 어째서 나를 이 마을의 끔찍한 범죄사건에 연 관시키는지 난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그 자의 인상을 보아하니 나보다는 그 자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법한데.”

“스크럽너가 거짓말한 거예요.” 말로리가 맞장구쳤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말로리는 소렐씨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는 덧붙여 말했다. “그는 돌아가신 주인님의 원수를 갚겠다고 눈물을 흘려댔지만, 실제로는 범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제멋대로 나를 희생양으로 잡아넣으려 했구먼.” 아비칸이 끼어들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본 거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야. 비열한 일이지.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었던단다.”

“에멧과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스크럽너 그 작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말로리가 말했다. “방금 전 일을 겪고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누구도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아저씨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더라면 이 일을 해결하는데도 사용했을 거예요.”

“기특하구나.” 아비칸이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럴 생각이 있으면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난 믿는다. 넌 용감한 아이거든. 그리고 마음씨도 예쁘지.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법의 힘이란단다.”

그 문제에 대해서라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비칸이 그러는 것과 꼭 같이 사슴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아비칸의 그 말이 말로리에게 자신감이나 안도감을 주지는 못했다. 바로 그때, 사냥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말로리는 깜짝 놀랐다. 스크럽너가 사냥개들을 풀어놓은 것이다.

사슴 또한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섰다.

“올라 타거라. 저들은 한참 뒤에 있으니, 내가 쉽게 앞질러 갈 수 있어.”

“아저씨 냄새를 알아차리면,” 말로리가 경고했다. “계속 뒤따라 올

거예요. 원래대로 다시 변신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비칸이 대답했다. “내가 왜 안 그러겠냐? 나도 이 뿔 때문에 머리가 아파. 사슴들은 어떻게 두통을 견뎌내는지 모르겠구나. 습관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자, 서둘러 올라타거라. 그만 조잘대고 얼른.”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로리가 사슴 등에 다시 올라타며 물었다.

“떡갈나무로 간다. 이니스 계곡으로 가려면 배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 손대신 발굽으로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할 지 감감하구나. 그때 말했던 연장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연장들 가져오도록 해 볼게요.” 말로리가 말했다. 사슴은 점점 깊은 숲 속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쉽진 않을 거예요. 스크립너가 더욱 바짝 추적해 올 게 뻔해요. 스크립너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도 아저씨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있을 테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쫓길 테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별로 없구나.” 아비칸이 대답했다. “원한다면 날 도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지금 헤어지자꾸나.”

“물론 전 아저씨를 돕고 싶어요.” 말로리가 대답했다. 그리곤 안타까운 듯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께서 이니스 계곡으로 떠나시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을로 돌아가면 스크립너가 절 감옥에 처 넣을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하겠죠. 그리고 스크립너가 아니더라도, 파셀 아주머니가 어떻게 나오실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하구나.” 아비칸이 말했다. “마을로 돌아가서 위험을 무릅쓰던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으면 되지 않니. 네가 마을로 돌아가지 않으면 넌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가야겠지. 불평하지 마라. 난 너보다 더 선택의 폭이 훨씬 좁아. 이니스 계곡으로 갈 방도를 찾던가 여기서 죽던가 해야 해.”

“아저씨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로리가 울음을 터트렸다. 말로리는 아비칸이 자신을 더 위로해 주거나 적어도 동정심을 가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저씨한테 아무 것도 상관없어요?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도 상관없난

말이에요?”

“내가 걱정을 하던 안 하던 뭐가 달라지겠니. 전에도 말했었지. 난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그 환상들을 실제와 혼동하진 않아.”

“제가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만 해 주셨어도,” 말로리는 반쯤 화가 나서 말했다. “우리 둘 다 지금 보단 나아질 수 있겠다구요.”

“또 그놈의 소원타령이냐!” 사슴이 씩씩거리며 콧바람을 뿜어댔다. “그 다음엔 이니스 계곡으로 데려가 달라고 졸라대겠지.”

“아니예요!” 말로리가 소리쳤다. “같이 가 달라고 사정해도 안가요! 아저씨 이기적이고, 냉혈한 데다가 성격까지 까다로워요.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해도 아저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라구요. 마법사들이 모두 그렇다면 전 차라리 여기 있는 편이 낫겠어요. 저도 아저씨 소원 따위엔 관심 없대구요.” 눈물을 참느라 너무 진을 뺀 말로리는 흐느끼고 있었다. “소원 따윈 바라지도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대구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는구나.” 말로리가 등에서 내리려 하자 발걸음을 멈추며 아비칸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좀 쉬고 나면 진정이 될 게야. 나도 다리가 좀 아프구나. 젠장, 사슴이면 이보다는 힘이 더 셀 줄 알았더니. 오늘밤엔 더 움직여봤자 얼마 못 가겠어. 잠깐 눈을 붙여야겠다. 너도 그러는 게 좋겠구나.”

말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리는 아비칸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 한 참 후 어깨 너머로 힐끔 보니 사슴은 다리를 포개고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달이 떠오르고 사슴의 큰 뺨은 달빛에 은색으로 빛났다. 기운차 보이는 목과 엉덩이엔 희미한 빛이 내려와 얼룩얼룩 무늬가 생겼다. 그 사슴 안에 아비칸이 갇혀있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말로리는 그 사슴을 마법의 동물이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나눠 가질 수 없는 마법이라는 걸 말로리는 깨달았다. 파셀 아주머니를 위해 고단하게 일을 하면서도 말로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곤 했었다. 아비칸은 그런 꿈이 헛된 것임을 말로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다. “진짜 마법사를 만나기 전이 더 행복했었어.” 말로리는 혼잣말을 했다. “그땐 적어도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 이젠 그것조차 할 수 없잖아.” 말로리는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낙엽 더미 속으로 몸을 구부렸다. 사냥개들은 더 이상 짓지 않았지만 말로리는 스크립너가 추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말로리는 깨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피곤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말로리는 낙엽더미 안으로 더 몸을 웅크리면서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말로리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 뭔가가 어깨를 쿡쿡 찌르는 것이었다. 얼룩덜룩한 구름 속으로 달빛이 사라져버렸고 아비칸은 자꾸 일어나라고 재촉해댔다. 말로리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상태로 고개를 들었다. 순간 눈 앞의 광경을 보고 말로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다.

통통한 불에 분홍빛이 나는 반쯤 자란 돼지가 반짝거리는 눈으로 말로리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제 8 장-

“그래, 나다.” 아비칸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에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다니. 거위는 쓸모라도 있고, 사슴은 적어도 태도가 그럴듯하고 위엄이라도 있지. 흔해 빠진 돼지는 도대체 어디에 써먹으란 말이냐?”

그 돼지는 뒤로 털썩 주저앉더니 앞발을 허공에 흔들어댔다. 살이 찌서 생긴 아래턱은 출렁거렸고, 화가 북받쳐 올라 매끈거리기는 몸은 부풀어 오를 지경이었다. 말로리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아비칸의 곤경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아비칸이 지독한 모욕감을 느낄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대로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말로리는 손을 뻗어 그 살쥔, 동그란 뺨을 툭툭 두드려 주었을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실 진 모르겠지만,” 말로리가 말했다.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제가 이때껏 봤던 돼지 중에 제일 훌륭해요.”

“그게 다 무슨 상관이나?” 아비칸이 쿵쿵 거렸다. “아직도 모르겠니? 난 아직도 내 마법을 되찾지 못한 거란다. 다음엔 뭐가 될지 누가 알겠니? 당나귀? 염소? 내 평생 헛간에서 보내는 편이 낫겠군. 내가 그곳에 가게 될 날이 온다면 이니스 계곡에선 내가 돼지가 된 것에 대해 다들 낄낄대겠지. 돼지라니,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겠구나! 창피한 변신이야!”

“겉모습을 바꾸셨는지는 모르지만,” 말로리가 말했다. “아저씨 계획까지 바꾸실 이유는 없어요. 아저씨 떡갈나무로 돌아갈 거예요. 아저씨 계획 대로요. 한 조각 한 조각 다 제가 꿰어 맞춰 만들어서라도 아저씨 배를 갖게 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돼지로 변한 아비칸은 고맙다는 표시로 그저 꿀꿀거릴 뿐이었다. 아비칸의 통명스러운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로리는 일어나 치마에 붙은 나뭇잎과 잔가지들을 털어 내고는 아비칸이 따라올 수 있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떡갈나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 생각되는 길을 따라 말로리가 걸어가자, 아비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총총걸음으로 말로리를 따라갔다. 그러나 세 걸음도 채 옮기기 전, 말로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덤불 속, 말로리가 거의 건드릴 뻔할 만큼 가까운 곳에, 깡마른 체구에다 얼굴에 붉은 빛이 도는 한 젊은 농부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던 것이다. 그가 주워 모으던 빨감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도끼는 손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처음에 말로리는 그 침입자가 지주의 저택에서 왔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으나 다시 보고는 그 사람이 농부 텐취의 아들 버딕임을 알아보았다. 버딕도 당연히 말로리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버딕이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말로리는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뻔뻔스럽게 밀고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린 말로리는 마음을 다잡고 큰 소리로 말했다.

“창피한 줄 아세요. 거기 서서 사람들에게 추파나 보내다니! 물러서요. 안 그러면 당신 아버지에게 다 알려버릴 테니까.”

말로리가 버럭 화를 내자 버딕은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팔을 들어올려 손가락으로 아비칸을 가리켰다.

“저,” 마치 그 뭔가를 이모저모 꼼꼼히 생각해 보고 더 이상 의구심이 들지 않게 되어 마음을 굳혔다는 듯 버딕이 말했다. “저건 돼지야.”

“물론 이건 돼지예요.” 말로리가 받아쳤다. “그럼 이게 뭘 줄 아셨어요?”

“그리고 너,” 말로리에게 시선을 돌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버딕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넌 돼지랑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면 안 되나요?” 말로리가 물었다. “소꿉을 짜면서 소랑 얘기해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전 제 돼지랑 늘 얘기해요. 제 돼지는 늘 제 친구가 되어주고 덤불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엿듣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얘기하고 싶으면 돼지랑 실컷 얘기해.” 버딕이 대답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 돼지가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버딕이 정말 아비칸과 자신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말로리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리는 당당하게 버딕을 쳐다보며 말했다.

“말도 안돼요. 이야기하는 돼지가 어딴다고 그래요?”

버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그런 돼질 본 적이 없지. 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길 사람처럼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새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어. 초록빛과 노랑빛이 나는 그 새는 부리가 된통 구부러지고 이상했지만 학교 선생님처럼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하셨거든.”

“그건 앵무새예요.” 말로리가 말했다. “앵무새는 원래 말하는 새라구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딴어요?”

“맞아!” 얼굴이 밝아지면서 버덕이 소리쳤다. “그럼 이건 앵무돼지가 되겠네!”

“말도 안돼요!” 말로리가 소리쳤다. “이건 어떤 종류의 돼지가 아니라 그냥 돼지예요.”

“앵무돼지가 아니면,” 버덕이 말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봤던 중 가장 못생긴 벌거벗은 아기인가 보군.” 버덕은 아비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털이 뺏뺏하게 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비칸은 짜증난 표정으로 버덕을 같이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화가 난 듯 킁킁대면서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버덕은 이 놀라운 동물을 더 가까이에서 잘 살펴보려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돼지의 두 뺨을 움켜쥐었다.

“당장 그만둬.” 버덕의 손아귀에서 머리를 빼내며 아비칸이 소리를 뿜 질렀다. “내 모습이 이렇게 돼버린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나를 못생겼다고까지 하는 이 무식한 촌놈에게 내가 왜 꼬집히고 질려야 하냐 말이야!”

말로리는 절망한 나머지 두 손을 들었다. 고집 센 버덕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끔 만들어 보려고 갖은 애를 쓰던 말로리였다. 아비칸의 성미와 상처 입은 허영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아비칸이 욕을 해댈수록 이 돼지가 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셈이었다.

버덕은 아비칸에게 반감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옳은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했다. 버덕은 마치 그런 돼지를 수십 마리나 본 적이 있고, 그런 돼지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건 앵무돼지 중 하나야. 맞아. 그 돼지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나긴요.” 말로리가 황급히 대답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숲 속에서 찾았다구요.” 말로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비칸이 또 입을 놀려서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말로리는 가능하면 버딕으로부터 아비칸을 멀리 떼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버딕은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다.

“이 돼지 값 좀 나가겠는걸. 그렇지? 아버지는 그 앵무새 소리를 듣기 위해 삼 펜스를 냈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돼지 말하는 걸 듣기 위해서 2.5 실링은 내야겠지? 이 돼지가 그 새보다 열 배는 크니까. 이 돼지 주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장날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돼지를 뽐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5 실링이라고, 나 원 참!” 아비칸이 중얼거렸다. “그게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론 택도 없지. 자비로운 달님이시여, 시골뜨기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제가 구경거리가 되다니요!”

“사람들은 이 돼지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몇 마일이고 걸어올 거야.” 버딕이 계속 말했다. “캐슬톤에서까지 올 걸.”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로리를 바라보았다. “저 돼지 얼마에 팔 거야?”

“저 돼지 팔지 않아요. 그런 돼지가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녕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을 내버릴 셈이냐.” 버딕이 대답했다. “저런 명물을 그냥 갖고 있으면서 돈 버는데 쓰지 않는단 말이야? 바보로 태어나지 않고서야 저런 보물단지를 그냥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말로리는 버딕이 교활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말로리는 아비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버딕이 다른 마음을 품기 전에 아비칸을 집어 들고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버딕은 말로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발이 더 빨랐다. 그는 말로리를 제치고 아비칸의 뒷다리를 잡아채서는 팔 밑에 꼭 껴안고 덤불 숲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멈추라고 소리치면서 말로리는 도망가는 버딕의 뒤를 쩍쨍하게 쫓아갔다. 말로리는 튼튼한 다리로 있는 힘껏 달렸지만 버딕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말로리를 훨씬 앞서가더니 숲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말로리의 귀에 아비칸이 목청껏 내지르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돼지의 울부짖는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말로리는 숲 속 공터의 주변에 이르렀다. 말로리는 그곳에서 버딕의 팔 밑에서 밧길질을

하며 퍼덕거리고 있는 아비칸과 밭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달려가고 있는 버딕의 모습을 보았다.

버딕은 근처에 있는 농장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가고 있었다. 뒤따라가려고 곱절로 애를 쓰며, 말로리는 밭고랑에 넘어지고 돌담을 뛰어 넘으면서 다른 집들을 모두 지나쳐 헛간 근처에서 멈춰 섰다. 거기서 아비칸의 비명소리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말로리는 버딕이 아비칸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알 수 없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잠시 후 어디선가 소리가 나자, 말로리는 그 쪽으로 달려갔다. 그 곳은 가축우리 근처의 마당으로 바퀴자국이 나 있었다.

그 곳에서, 우람한 몸집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농부 텐취씨에게 버딕이 신이 나서 소리치고 있었다. 텐취씨는 요리조리 돼지를 살펴보고 눈짐작으로 그 버둥거리는 동물의 무게를 가늠해보고 있었고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보셨죠? 제가 뭘 가져왔는지, 아버지?” 버딕이 소리쳤다. “여기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텐취씨는 갈퀴에 몸을 기대고 생각에 잠긴 듯 몇 분 동안 턱을 움직여 대더니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돼지고기.”

이 말에, 아들은 낄낄거리고 웃더니 일부러 방긋 웃어 보이려고 얼굴에 주름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죠.”

“내가 바로 그렇게 말했잖아.” 텐취씨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돼지를 요모조모 살펴보더니 매우 만족스럽다는 듯 엄지손가락으로 가축우리 쪽을 가리켰다.

“돼지를 데리고 저 안에 가 있거라. 물 끓이는 솥에 불을 지피고. 난 돼지 잡을 칼을 갈아야겠다.”

-제 9 장-

그 말을 듣고, 버딕은 아버지를 놀리는데 대 성공을 거두거나 한 것처럼 유쾌하게 야유 보내는 듯한 소리를 크게 냈다. “이 친구를 찢러 죽인다고요? 큰 돈벌이가 될 것을 찢러 없애버린단 말씀이세요? 이 돼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껏 보셨던 그 어느 돼지보다 훌륭한 돼지라고요, 아버지. 제가 이 돼지를 찾아낸 걸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당신이 찾은 게 아니잖아!” 바로 그 때쯤 해서 그 두 사람에게 달려온 말로리가 소리쳤다. “당신은 그 돼지를 훔쳤어!”

말로리는 그러면서 바로 버딕으로부터 아비칸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버딕은 쥘쥘하게 아버지의 우람한 등 뒤로 숨어들어가 버렸다.

“아버지, 저 계집애 말 듣지 마세요! 이 돼지는 길을 잃은 돼지였다구요. 이 돼지의 절반이 저 애 것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제 거예요. 아니지, 저 돼진 우리 땅에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제 것이 맞아요.”

텐취씨는 앞서 돼지를 살펴보던 것처럼 말로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식당에서 나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파셀도 네가 여기서 이려고 있는 걸 아는 거냐?”

“전 제 돼지를 돌보고 있었어요.” 말로리가 말문을 열었다.

“파셀네는 돼지를 키우지 않아.” 텐취씨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저 돼진 네 것이 아니지.”

“제가 숲 속에서 찾았어요. 저 돼진 제 것이 맞아요, 돌려주세요.”

“거기 가만히 있어.” 계속 자신의 아들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말로리를 막아내면서 텐취씨가 말했다. “우선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부터 얘기를 들어봐야겠구나.”

“맞아요, 아버지.” 버딕이 끼어들었다. “우리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온 게 아니고서야 저 계집애가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입 좀 다물어, 버딕.” 텐취씨가 아들을 나무랐다. “시시비비를 잘 가려보자꾸나. 저 애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 애가 무슨 말을 하던지 듣지 마세요.” 버딕이 소리쳤다. “저

애는 우리에게 들어온 금덩어리를 빼앗아 갈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이건 앵무돼지란 말이예요!”

텐취씨는 아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버딕은 계속해서 허둥거리며 말했다.

“지난번에 그 초록 새에 대해 얘기하신 거 기억하세요? 사람처럼 말하는 새 말이예요. 이 돼지도 꼭 마찬가지예요.”

“아들아,” 텐취씨가 말했다. “네 눈에 저 돼지가 초록 새로 보이거든 당장 가서 펌프에서 나오는 물로 머리를 식히고 오너라. 도무지 말이 되는 소릴 해야 말이지. 네 눈엔 저 돼지 몸에 깃털이 하나라도 보이냐?”

“아니예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버딕이 항변했다. “제 말이 이 돼지가 말을 한다구요. 말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와 저처럼 말을 한다구요. 제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가서 저 돼지를 우리에게 가둬라.” 텐취씨가 말했다. “그리고 저리 가서 침대에 누워있어. 내가 약을 가져다주마. 너막염에 걸렸구나. 딱 그 증상이야.”

“이 앵무돼지는 말을 한다니까요.” 아비칸을 들어올려 나무 울타리 속 진흙투성이 우리로 떨어트리면서 버딕이 거듭거듭 말했다. “여기로 오는 길에 이 돼지가 말하는 걸 들으셨어야 하는데. 저한테 아는 욕은 죄다 해뒀다구요.”

“나라도 욕했잖아.” 텐취씨가 대답했다. “돼지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너를 얼간이라고 하지 않더냐?”

“아버지가 들어보셔야 한다니까요.” 아버지를 울타리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버딕이 큰 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 때 말로리는 그 울타리 안으로 재빨리 넘어 들어가서 아비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를 보호하려는 듯 아비칸의 목을 팔로 끌어안았다.

“가보세요, 아버지. 돼지랑 한 마디만 얘기 해 봐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아버지 귀를 의심하게 될 걸요.”

텐취씨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러나 버딕이 어찌나 떠밀고 쫓러 대던지 텐취씨는 투덜대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자, 돼지야. 말을 해 봐.”

아비칸이라면 텐취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죄다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로리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다행히 아비칸은 입을 꼭 다물고 현명하게 처신했고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말없이 뺨히 쳐다보기만 했다.

텐취씨는 화가 나서 아들을 쳐다보았다. “이제까지 떠들어대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 또 장난질이냐? 니 애비를 우스꽝스럽게 만들 셈이었냐?”

“아버지, 돼지한테 기회를 줘 보세요.” 버딕이 말했다. “아버지 말이 너무 빨랐어요. 저 돼지는 잘 놀라는 동물이잖아요. 아버지가 돼지를 당황하게 만들고 말을 너무 짧게 하신거라구요.” 그 말을 하면서 버딕은 모자를 벗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는 살살 구슬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신사나리? 참 잘 생기셨어요, 돈육씨. 꼬리가 참 멋있게 말려 올라갔군요. 이제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잡지 않을게요. 우리 둘은 친구잖아요. 우리 둘 다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꼭 잘 돌봐 드릴게요. 한 양동이 가득 음식 찌꺼기를 갖다 드리죠.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대답 대신 돼지는 고개를 돌리고 우리 안에 흙덩이를 코로 헤집어 댔다. 텐취씨는 갈퀴를 내동댕이치고는 아들의 목 뒷덜미를 낚다 움켜쥐고는 바짝 끌어당겼다.

“씩 꺼져! 이런 돼지 따위와 낭비할 시간이 어딤냐.”

자신이 가져온 보물 돼지가 뜻대로 말을 듣지 않는 데다,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귀중한 재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버딕은 말로리에게 주먹을 휘둘러 댔다.

“너 때문이야! 돼지가 입을 다물도록 네가 꼬득이고 있지. 아까처럼 말하게 해보란 말이야.”

“돼지는 말 할 줄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말로리가 쏘아붙였다.

“난 똑똑히 들었던 말이야. 네가 속임수를 쓴 게 아니고서야 분명히 들었다구. 저 녀석을 진짜 앵무돼지인 것처럼 생각하게 나를 꼬여놓고서는 이제 와서 멍청해 빠진 보통 돼지라고 속이려 수작이야?”



“제가 언제 돼지 훔쳐가 달라고 사정했나요?” 아비칸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텐취 부자가 돼지를 갖고 있어봐야 득 될게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됐기를 바라며 말로리가 대답했다.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버딕이 계속 말로리를 비난하는 동안, 말로리는 가축 우리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헛간에 가 있던 텐취씨가 그때 다시 나타났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술에 물을 팔팔 끓여.”

“뭐하시게요?” 텐취씨가 손에 쥐고 있는 길고 날이 얇은 칼을 보고 겁에 질려 말로리가 소리쳤다. “설마 돼지를 잡으려는 건 아니겠죠!”

텐취씨는 의아하다는 듯 말로리를 쳐다봤다. “잡을 생각이지.” 그가 말했다. “이 돼지를 요긴하게 써 먹어야하고 말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이런 고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

“가까이 오지 말아요!” 아비칸 쪽으로 달려가며 말로리가 소리쳤다. “돼지에 손대지 마세요!”

“자, 꼬마 아가씨.” 텐취씨가 달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화낼 거 없다구. 내가 파셀과 잘 얘기 할 게야. 파셀한테 신선한 햄을 한 덩어리 가지고 가게 해 주고 갈비도 좀 주지. 그럼 공평해 지는 거야. 내가 일은 다 알아서 처리 할 테니까.”

버딕은 손벽을 짹짹 쳤다. “들었지? 이 쓸모없는 앵무돼지야. 기회가 왔을 때 말을 했어야지. 이제 넌 죽은 목숨이야!”

말로리는 돼지를 끌어안았다. “아저씨가 누군지 이제 저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말로리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무거나 다른 걸로 변신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거나요! 저 사람들이 아저씨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비칸은 그저 킁킁거릴 뿐이었다. 이제는 말로리가 아비칸에게 말을 해달라고 사정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버딕은 그 와중에 비웃는 듯 환호성을 질러대고 소리를 쳐댔다.

“돼지고기 소금 절임과 소시지를 먹게 됐군! 베이컨과 돼지비계 기름! 깨소금 맛이다! 이제 군침 도는 돼지 떡파는 소리를 듣게 되겠어!”

말로리가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사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칸이 낼 수 있는 소리라곤 고작해야 절박한 듯 꿀꿀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아비칸의 통통한 두 볼은 애쓰느라 벌겍게 상기되었고, 말로리는 아비칸의 마법의 힘이 다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농부 텐취씨가 가축 우리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고 그 뒤를 버덕이 졸졸 따라오고 있었다. 말로리에게 말을 하며 텐취씨는 작업복 속에서 꽤 긴 줄을 끄집어냈다.

“좋아. 네가 그 돼지를 꼭 붙잡고 있거라. 내가 다리를 묶으마. 맘껏 발길을 해 보라지.”

“싫어요!” 말로리가 소리쳤다. “이건 돼지가 아니라구요!”

텐취씨는 슬쩍 말로리를 쳐다보더니 애석하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내 아들만 맛이 간줄 알았더니. 불쌍한 것. 너 버덕보다 상태가 더 심각하구나. 저기 돼지 코를 보거라. 순종 돼지가 있다면 저게 바로 진짜 순종 돼지지. 저 말린 꼬리를 좀 보렴. 저게 돼지가 아니라면 뭐가 도대체 돼지란 말이나.”

“마법사예요!” 아비칸의 정체를 밝히지 않다가는 큰 일이 닥치고 말 거라고 생각하고 말로리가 불쑥 말했다. “마법사라고요. 돼지로 변신했는데 지금 다시 원래대로 변신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전에는 사슴이었고-”

“그러시겠지.” 텐취씨가 흥쾌히 대답했다. “아니면 여우, 오소리, 네 상상의 나래 속에서 뭐든지 될 수 있지. 마법사라고 말했냐? 저 돼지가 마법사라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훈제 소금절임 마법사를 저녁식사로 먹게 되겠군.”

“돼지를 죽이실 순 없어요.” 말로리가 주장했다. “그건 살인이라고요!”

“저건 고기야!” 텐취씨가 칼을 휘두르며 말했다. “네가 멍청하던 똑똑하던 간에, 내 식탁에 음식을 올리지 못하게 막을 순 없을걸.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돼지를 잡아버릴 테니.”

말로리는 아비칸을 더 꼭 잡았다. 미친 듯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며 말로리는 아비칸이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생각하는 능력까지 잃어버렸을 리는 만무했다. 아비칸의 눈빛은 텐취씨가 무슨 일을 벌일 작정인지 똑똑히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돼지를 잡는다고요?” 말로리가 울부짖었다. “저부터 죽이셔야 할 걸요!”

텐취씨는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해지면서 말로리의 면전에다 칼을 흔들어들었다. “과셀이 너를 그렇게 키우더냐? 어디 어른한테 버릇 없이 말대꾸야? 나를 화나게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맞는 말씀이세요, 아버지.” 버딕이 소리쳤다. “그렇고말고요! 저 계집애는 우리의 재산을 축냈을지는 모르지만 베이컨을 빼앗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텐취씨는 머뭇거렸다. 애시당초 업포를 놓기만 할 생각이었고, 땅에 발을 박았는지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 하는 고집 센 말로리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 버딕은 아버지의 손에서 칼을 낚아채서는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고함을 지르며 말로리의 목을 찌를 기세로 달려들었다.

칼날은 간발의 차이로 목표물 앞에서 멈추었다. 말로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밖에 없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말로리는 버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결의에 차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만두지 못해!” 텐취씨가 불호령을 내렸다. “덜떨어진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는 아들에게 손짓으로 지시했다. “그 칼 내려놔.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칼을 떨어뜨리며 버딕은, 껍껍 먹따는 소리를 내고 있는 돼지를 말로리에게서 힘으로 빼내려고 애쓰고 있는 아버지에게 합세했다. 아비칸이 심하게 발길질을 해댔고, 말로리가 도망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두 명의 농부에게는 상대가 못 됐다. 버딕은 말로리에게 주먹질을 해 댔고, 텐취씨는 젓 먹던 힘을 다해 아비칸을 끌어 당겼다. 결국 말로리는 힘에서 밀려 진흙땅에 나똥그라졌고 화가나 흐느꼈다.

“잡았어요, 아버지!” 의기양양한 태도로 환호성을 지르며 버딕은

가축 우리에서 달려나와 헛간으로 달려갔다. 말로리는 겨우 일어나서는 농부 텐취씨를 향해 몸을 날렸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터라 텐취씨는 무릎을 땅에 대며 고꾸라졌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 손을 뻗어 땅을 짚었다. 돼지는 발버둥치며 빠져나와 대문 쪽으로 쏜살 같이 달려갔다.

텐취씨는 아들에게 도망가는 돼지를 붙잡으라고 소리쳤다. 돼지는 뒷다리를 전속력으로 움직이며 마당을 빠져나가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가고 있었다.

말로리는 돼지를 따라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말로리가 울타리 밖으로 달려나려고 할 때, 마차 한 대가 마당 안으로 덜커덕거리며 들어왔다. 옆쪽으로 쩍싸게 빠져나갈 새도 없이, 마부가 마차에서 훌쩍 내리더니 말로리의 길을 막아섰다.

“그 여자엘랑 상관하지 말고!” 농부 텐취씨가 소리쳤다. “돼지를 잡아!”

마부는 텐취씨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깜짝 놀랐는지 눈을 깜빡거리면서 말로리의 팔을 붙잡았다.

“무슨 짓을 한 거니?” 파셀씨가 울먹거리듯 말했다. “지주가 너를 찾는다고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있어!”

-제 10 장-

장차 여인숙 주인이 될 파셀씨의 얼굴은 주름져 있었고, 말로리만큼이나 놀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말리야.” 파셀씨가 소리쳤다. “어딜 갔다 온 게야? 무슨 일을 저지른 거니? 파셀 아줌마는 거의 발작을 일으킬 뻔했다. 그 만큼 화가 났어. 지주님께서는 너에게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마치 범 죄자를 다루듯이 말이야.”

“전 잘못된 거 없어요. 단지 나-나이 드신 분을 도와드린 것 밖에 없어요.” 말로리가 대답했다. “스크럽너가 뭐라고 떠들어대든 제가 한 일은 범 죄가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라고? 이런, 그자는 불쌍한 소렐씨를 살해한 짐승 같은 자다. 지주님이 그 자를 바로 현장에서 붙잡았다던데. 너도 함께 말이다. 이런 가여운 것 같으니. 어찌다 이 일에 말려들게 된 거냐? 텐취에게 야채를 사러 내가 왔기에 천만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너 발견하기라도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니!”

파셀씨의 말투를 들으면서 말로리는 파셀씨가 애시당초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을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셀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치 다시 눈을 떴을 때 말로리가 사라져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다.

“전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말로리가 분명하게 말했다. “제 친구가 저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전 제 친구를 찾아야 해요. 스크럽너는 거짓말쟁이예요. 그는 아비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아비칸이 누구냐?” 파셀씨가 황급히 덧붙였다. “아니다, 아니야. 나한테 말 할 거 없다. 난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꼬일 대로 꼬여있어.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만 더 복잡해질 뿐이야.”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말로리는 비통하게 대답했다. 말로리는 파셀 아저씨가 자신을 강제로 마차에 태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칠 태세로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러나 파셀씨는 말로리의 결심을 되돌리려고 노력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고 더욱

침울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면,” 파셀씨가 말했다. “어쩔 셈 이냐?” 그는 스크립너가, 아니 더 심한 경우 파셀부인이 자신의 말을 엿듣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불안한 듯 흘끔흘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곤 낮은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다.

“말리야, 남들이 뭐라고 하던지 넌 못된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바로 그 때, 돼지를 다시 붙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포기한 텐취씨와 그의 아들이 파셀씨에게 다가왔다. 버딕이 말로리를 노려보고 있는 동안 텐취씨는 화가 나서 호통을 쳤다.

“이봐, 파셀, 자네 집 계집애 때문에 좋은 햄과 돼지고기가 날아가 버렸어. 자네 똥도 있었을 텐데. 내 아들이 우리 땅에 돼지를 데리고 들어와 있는 저 애를 발견했지. 내가 아는 바로는 흠친 돼지였어. 하지만 애초에 저 계집아이는 그 돼지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저 애가 고집을 부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돼지고기를 훈제실에서 장만하고 있을 텐데.”

“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버딕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저 애는 자기 이름조차 말 할 줄도 모르는 앵무돼지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려 했다구요.”

“나한테는 흠친 돼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게.” 파셀씨가 말했다. “그것에 대해서도 난 알고 싶지 않아.”

“저 애는 매를 줌 맞아도 싸다는 건 알게 될 걸!” 텐취씨가 말했다. “나부텀 한 대 때려주지.” 텐취씨가 허리띠를 풀려고 하자 파셀씨는 목이 메는 듯 숨을 삼키더니, 마침내 평소와 달리 대담한 모습을 보이며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자넨 그럴 수 없어. 말로리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알아서 할 걸세.” 그러면서 파셀씨는 말로리의 팔을 잡고 마차 쪽으로 끌어당겼다. 파셀씨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자 텐취씨는 멈칫하면서 침을 튕 뱉고 툭툭거렸으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말로리로서는 어떻게든 텐취씨와 버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마냥 기쁠 따름이었다. 말로리는 파셀씨 옆자리로 재빨리 올라탔고, 파셀씨가 말 옆구리에 고삐를 내리치자 마차는 빼거리거리는 소리

를 내며 농장을 빠져나갔다.

“아저씨 절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텐취 부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말로리가 말했다. “이 벌판 끝까지 가능한 빨리 달려주세요.”

바퀴자국으로 흙이 파진 길을 따라 마차가 덜커덩거리며 달려갈 때, 말로리는 혹시나 아비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지나치는 나무울타리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뭘 찾고 있는 게냐?” 말에 더욱 속력을 가하며 파셀씨가 물었다.

“제 친구요.” 말로리가 대답했다. “숲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제 친구도 절 찾고 있을지 몰라요.”

“그 살인마 말이나?” 파셀씨의 뺨은 창백해졌고 당장이라도 마차를 세우고 걸어갈 것처럼 보였다.

“제 친구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말로리가 말했다. “제가 그 친구를 찾으면 직접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현상금이 걸린 도망자와 얼굴을 맞대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파셀씨는 바들바들 몸이 떨려왔다. “아니다, 그럴 것 없다.” 파셀씨가 황급히 대답했다. “그 작자랑은 얽히고 싶지 않아.”

파셀씨는 비참한 듯 한 숨을 내쉬었다. “지주님이 아주 화가 난 상태니, 내가 너를 만나고도 지주님께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날엔 내 여인숙, 담보 계약이고 뭐고 다 빼앗아 가버릴 게야.”

파셀씨가 인상을 찌푸리고 입술을 잘근잘근 씹어대면서 말하는 모습은 한층 더 심란해 보였다.

“이제 내가 널 어디서 찾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인데, 혹시라도 그런 걸 물어본다면, 그러지 않길 바란다마는, 그래도 만일에, 너도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농부 텐취를 끌어들이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다른 쪽으로 둘러대려면 텐취 애길 하면 안 되지. 아예 그 얘기는 통째로 빼버리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넌 거기 없었던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절 도와주신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우시다면-” 말로리가 말을 꺼냈다.

“아니, 그러니까, 너도 알다시피, 이건 무엇보다 내 담보 계약에 관한 문제란다. 야채 문제라고, 알아먹겠니? 여기, 야채 말이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지.”

아버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눈에 힘을 주고 주위를 살펴보고 있던 말로리는 담보 계약이니 야채니 하는 문제에 대해 얘기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말로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파셀씨는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면, 내 계약 조건에 보면, 나는 지주님의 소작농들로부터 식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 이제 지주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농부 텐취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지. 농부 텐취는 소작농이 아니거든. 그건 그렇고 텐취의 야채 가격은 아주 적당해. 그에 반해 지주의 가격은 터무니없지. 사실을 말하자면 지주님이 가격을 올려버린 거야.”

“난 걱정이 된다.” 파셀씨가 침울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 담보 계약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게다. 내가 지주님의 소작농들에게서만 물건을 사들여야 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 상당히 많이 금액을 지불해야 할 테니까. 그런데 쥐뿔만큼이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내 여편네 파셀여사께서 지주님에게 알리지 말고 더 좋은 조건에 소작농들에게서 야채들을 살 수도 있지 않냐며 은근슬쩍 나를 떠보는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싸게 사자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아저씨한테 이익될 건 없을 거예요.” 말로리가 말했다.

“오래가지 못할 거라구요. 지주가 소작농들의 거래내역을 모두 합산해서 아저씨가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날엔 어찌실 거예요?”

파셀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맞아, 지주님은 그러고도 남을 거야. 그 생각은 한 번도 못해봤구나. 파셀여사께서도 못해봤지. 이런, 말리야, 지주님을 욕되게 하는 건 아니다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난 지주님에게 완전히 코가 쎈 것 같다. 내 재산이라고? 그 담보 계약 때문에 난 망하게 된 거야!”

파셀씨는 거의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이 보였다. 파셀부부를 위해 수 년 동안 일을 해 오면서 처음으로 말로리는 파셀씨도 어찌면 자신처럼 불행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말로리는 자신과 파셀씨 둘 중 누가 더 불행한가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미처 그 해답을 찾기도 전에 파셀씨는 다시 한번 담보 계약에 대해 앓는



소리를 해냈다. 그 때 말로리는 멀리 나무 울타리 사이로 창백한 흰가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본 듯했다.

“빨리가요.” 말로리가 파셀씨를 재촉했다. “제가 본 게 그 돼지일지도 몰라요.”

“돼지? 난 네가 네 친구를 찾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아니,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제발 서둘러주세요.”

말로리가 하자는 대로 마차를 서둘러 몰면서 파셀씨는 힘껏 고삐를 세차게 내리쳤다. 깜짝 놀란 말은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했고 마차는 양옆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말과 마차를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이번엔 파셀씨가 너무 세게 말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말은 그 자리에 멈추어버렸고 마차가 너무 갑자기 정지해서 말로리는 옆쪽으로 곤두박질쳐 날아갔다. 파셀씨도 마찬가지로였다.

반쯤 낮이 나갔던 말로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해졌다. 파셀씨는 여전히 길 한가운데 너무러져 있었다. 파셀씨를 돕기 위해 달려간 말로리는 깜짝 놀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파셀씨의 두 뺨과 눈 주위는 젖빛으로 변해있었고 이상한 자세로 움직임 없이 누워있었던 것이다.

파셀씨를 일으켜 세워 마차 바퀴에 기댈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말로리는 파셀씨가 떨어지면서 머리로 부딪힌 곳에 큰 혹이 생겨 부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살아있다뿐이지 파셀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는 감을 잡을 길이 없었다. 말로리는 파셀씨의 목 단추와 소매 단추를 끌러주었으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셀씨는 일어나지 않았다.

말로리는 걱정스러운 듯 들판을 가로질러 길 아래쪽을 쳐다보았다. 아까 말로리가 본 것이 설령 아비칸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비칸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던 말로리는 일단 들판을 가로질러가서 우연히 아비칸과 마주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파셀씨가 정신을 차리고 집까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말로리는 있는 힘을 다 써봤지만 역부족이었다. 말로리는 몇 번이고 발길을 재촉했다가도 다시 돌아왔다. 억지인줄 알면서도 말로리는 머리로 땅에 떨어진 게 파셀씨의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미래의 여인

숙 주인이 될 파셀씨에게 화가 났다. 그를 길옆에 두고 떠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말로리는 시간이 얼마가 들건, 얼마나 위험하건 간에 파셀씨를 텐취씨 농장까지 마차로 데려다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자기 아내의 덩치에 비하면 보잘 것 없이 야윈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텐취씨는 말로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무거웠다. 말로리는 어렵사리 파셀씨를 마차 뒤 칸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말로리는 좁은 길에서 마차를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곧 알아차렸다. 자신을 늘상 몰던 마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 말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용을 쓰며 말로리로부터 뒷걸음질쳤다.

가까스로 말을 안정시키고 나니 이번에는 마차가 길 가장자리의 깊은 흠에 빠져 허우적댔다. 말이 마차를 있는 힘껏 끌어당기는 동안 말로리는 뒷바퀴에 어깨를 대고 마차를 밀고 들어올렸고 바퀴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히고 말았다. 마차는 놀랄 만큼 흔들리더니 마침내 길 위로 다시 올라와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파셀씨는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힘을 쓰느라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말로리가 마차 의자에 막 올라타려고 했을 때 말로리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파셀씨가 반쯤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다.

“아저씨를 텐취씨에게 모셔다 드리려는 거예요.” 파셀씨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앉으려고 하자 말로리가 말했다. “괜찮아지실 때까지 거기 계세요. 아니면 텐취씨 아들에게 마을까지 남은 거리를 데려다 달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파셀씨는 머리 옆쪽에 검푸른 빛으로 부어오른 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고맙다는 눈빛을 말로리에게 보냈다. “에시당초 날 두고 가버렸을 수도 있었는데,” 파셀씨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맘만 먹으면 마차랑 모두 가져가 버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 말리야, 나랑 집에 가자꾸나. 지주님이 내가 몰래 식품을 구입하는 걸 아신다 해도 상관없다. 네가 얼마나 착한 행동을 했는지 지주님께 말씀드릴 테다. 그 말이 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게야. 네 문제도 공정하게 다뤄주실 거다.”

“그렇겠죠.” 말로리가 대답했다. “아저씨를 대한 것만큼 공정하게요. 지주는 아비칸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죄가 없다는 것도요. 오히려 스크럽너 그 작자가 소렐 지주님을 해쳤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요.”

“세상에,” 파셀씨가 대답했다. “앞을 내다보시며 승승장구해나가는 분께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 내 담보 계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손해가 더 크게 나겠지. 하지만 일은 일이고, 인신공격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말로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품고 있는 의심에 대해 파셀씨와 얘기하기보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속 편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텐취씨의 농장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말로리는 파셀씨가 나머지 거리를 혼자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는지 궁금했다.

갑자기 말로리는 고삐를 끌어당겼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말에 탄 볼트의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 저택에서 온 하인들과 마구간지기 소년 웨이클링의 모습이 보였다.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보려고 이마에 손을 갖다 대고 파셀씨가 마차 옆쪽 너머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말로리는 마차에서 재빨리 뛰어 내려 걸어갈 참이었다. 잠시 후 말로리는 가던 길을 멈추었다. 볼트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밧줄에 손이 묶인 아비칸이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 제 11 장 -

사냥터지기 볼트도 말로리를 보고 말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아비칸이 죄수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말로리도 도망갈 생각을 포기했다. 숲 속의 피난처로 향하는 대신 말로리는 곧장 아비칸에게 달려가 와락 그를 껴안고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하인 혼이 말로리를 붙들고는 끌어내버렸다. 말로리를 보자마자 말의 방향을 틀어 쫓아왔던 볼트는 안장에서 뛰어 내렸다.

“꼭 붙들어라, 혼.” 볼트가 말했다. “여기 이 늙은 악마만큼이나 교활한 계집아이야. 웨이클링, 그 애의 팔을 붙들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계집애는 당나귀보다 발길질이 심하니까.”

사냥터지기 볼트는 그러면서 자켓에서 긴 끈을 끄집어내더니 서둘러 말로리의 손목을 묶었다. 말로리는 발버둥쳤으나 그것은 손목에 묶인 끈을 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된 아비칸과 가까이 있기 위한 것이었다. 아비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고, 두 뺨은 아픈 사람처럼 젖빛을 띠었으며, 턱수염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처음 말로리를 보았을 때 아비칸은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일부러 굳은 얼굴로 말로리를 바라보고 있다. 아비칸의 물결은 형편없었지만 그의 선 듯한 목소리와 말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나보다 낫다고 칭찬을 했건만. 애야, 춘분점을 봤으면, 이 열간이 들을 따들렸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는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너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안 돼.”

아비칸은 일부러 짜증을 부리는 듯 했으나, 말로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비칸은 아프고 몹시 지쳐보였고 말로리는 아비칸에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두려웠다. “스크럽너는 우리 둘에게 아무 짓도 할 수 없어요.” 말로리는 일부러 더 확신에 찬 듯한 말투로 말했다.

“오호, 정말 그럴까?” 말로리와 아비칸의 대화를 엿듣던 볼트가 끼어들었다. “지주님께서는 이 늙은 죄수를 살인죄로 교수형 시키실 거야. 일단 이 늙은이는 그렇게 처리하고. 너는 이 늙은이가 도망치도록 도와 준 죄가 있으니, 지주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실 지 누가

알겠나? 넌 최소한 감옥행이야.” 볼트는 말로리를 보며 씩 웃어보였고 손가락으로 말로리의 뺨을 꼬집었다. “네가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는지 내 말씀드린다면 모를까.”

말로리는 볼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흔들었고 그에게 침을 뱉었다. 욕을 퍼부으며 볼트는 주먹으로 말로리의 얼굴을 쳤고, 말로리는 거의 바닥에 나동그라질 뻔했다. 비록 힘은 없었지만 아비칸이 볼트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이내 혼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파셀씨는 스크립너의 하인들과 그들에게 붙잡힌 말로리와 아비칸이 서 있는 곳에 있는 힘을 다해 마차를 세웠다. 파셀씨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비틀비틀 힘겹게 마차에서 내려오며 소리쳤다.

“이봐, 볼트, 그만 뒤! 말로리는 내 하인이고 여전히 내가 책임지고 있는 애라고.”

볼트는 파셀씨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그의 자켓 앞부분을 움켜쥘었다. “무사하고 싶으면 자네 코나 잘 책임지시지 그래? 이 열간이 같으니라구. 포상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나? 저자들을 저택으로 데리고 간 연후에 지주님께 포상을 달라고 애걸복걸 해 보시지.”

볼트가 면전에 턱을 들이밀자, 파셀씨는 뒤로 물러서면서 궁시렁댔다.

“자, 자, 볼트씨, 싸울 필요는 없잖소. 말로리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난 말로리가 곤욕을 치르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을 없을 게요.” 볼트가 경멸하듯 웃었다. “내 이 두 사람을 어린 아기 다루듯 보살펴주지. 이 사람들은 주머니에 든 돈이나 다름없거든. 특히 여기 있는 저 악마는 더 그렇지. 저 늙은인 내 거야. 저기 저 늙은이 말이야. 모양새는 볼품없지만 몸무게만큼의 금값어치가 있단 말이야.”

“그 자를 볼트씨 혼자서 찾아낸 건 아니잖아요.” 혼이 항의했다. “제가 그를 잡았다구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 몫 받을 자격이 있어요.”

파셀씨의 자켓을 움켜잡았던 손에 힘을 빼며 볼트는 하인 혼을

바라보았다.

“이건 또 뭐야, 이 고자질장이 같으니. 그를 맨 먼저 본 건 나야. 그게 중요해. 너도 네 몫을 받게 될 거다. 별 대단한 도움은 아니었지만, 네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후하게 해주지. 짜게 굴진 않을 테니까. 엉뚱하게 입방정만 떨지 않는다면 짜게 굴진 않는다구.” ~  
볼트는 안장 앞 테에 매달려 있는 구식 총에 손을 갖다 대고 잔인한 표정으로 그 하인을 노려보았다. 혼은 눈을 아래로 떨구고 돌아서서는 작은 소리로 투덜댔다.

그 사이에 말로리는 아비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저씨를 찾고 있었어요.” 말로리가 속삭였다. “돼지로 있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그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었나요?”

아비칸은 머리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목소리가 나지 않게 되면서 뭔가 잘못돼 버렸지 뭐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지. 햄과 베이컨이라니, 참 내! 네가 아니었더라면 난 낡아빠진 훈제실에서 훈제 신세가 되었을 게다. 내 마법의 힘이 말을 듣지 않아. 다행스럽게도 너의 마법은 아직 괜찮더구나.”

“제 마법의 힘이라구요?” 말로리가 물었다. “저에겐 그런 힘 없어요. 마법의 힘이 있다면 좋겠네요. 제가 손가락으로 딱 소리만 내도 아저씨와 제가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쥐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빗자루라고?” 아비칸이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마법사 물건이 또 하나 나왔구나. 내가 빗자루에 걸터앉는다고? 그렇게 차리고 나서면 완전 바보천치가 된 기분일 게다. 어쨌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마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힘을 말하는 거다. 그걸 네가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넌 허풍을 친 게 아니더구나! 좀 무모하긴 했지만 아주 용감했다.”

평소의 엄하던 아비칸의 눈빛은 부드럽게 누그러져 있었고, 말로리는 전과 달리 애정과 칭찬이 담긴 태도로 아비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아비칸의 태도는 계속 이

야기를 해가면서 평소의 찌푸린 얼굴로 돌아왔다.

“여하튼 내가 돼지로 계속 남아있고 싶어도 그럴 순 없었다. 그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 시간이 좀 지나자 돼지 형태에서 내가 빠져나와 예전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더구나. 내가 새로 변신할 수 있다면 널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저 알간이가 나를 갑자기 붙잡았을 때, 난 새로 변신하려고 애쓰고 있던 참이었어. 정말이지 재수가 없었다. 시간이 일 이 분만 더 있었어도 새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숨털이 나오려고 하는 것까지 거의 느낄 수 있었다니까.”

아비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구간지기 소년 웨이클링이 말로리에게 은근슬쩍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저 괴짜 늑은이는 누구냐?” 아비칸을 쳐다보며 정말 궁금하다는 듯 웨이클링이 은근슬쩍 물어왔다. “어찌다가 저 늑은이 일에 말려들게 된 거야? 정말 괴짜 같아. 확실해. 혼과 내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가 어땠는지 내가 봤어야 해. 나무 그루터기에 서서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이 양팔을 퍼덕거리고 있었다니까. 지주님은 저자를 사나운 미친 개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그 말을 하면서 웨이클링은 자기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내말 좀 들어봐.” 말로리가 속삭였다. “저 아저씨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가한 적이 없어. 우리가 도망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저 아저씨는 마법사야, 요술쟁이라고.”

“마술사중 한 명이라고?” 웨이클링이 대답했다. “캐슬턴 장날에 볼 수 있는 그런 마술사란 말이야? 눈 깜짝 할 사이에 코에서 동전을 재빨리 꺼내봐용하는? 한 번은 마술사가 어떤 사람의 시계를 사라지게 하고 다시 되돌려 놓지 못한 경우를 본 적도 있긴 했지. 저기, 그걸 상상 해봐요, 수리수리 마수리 할아범!”

“저 아저씨는 마술사가 아니야.” 말로리는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웨이클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흥미를 느꼈는지, 아비칸을 더 가까이에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런 거죠, 수리수리 할아범?” 마구간지기 소년이 물었다. “그런 마술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상품으로 걸린 칠면조처

럼 묶여 있는 거예요?”

말로리가 더 간청을 해보기도 전에, 볼트는 하인에게 호통을 치다 말고 죄수들을 파셀씨의 마차에 태우라고 소리를 쳤다.

“따라오세요, 수리수리 할아범.” 웨이클링이 말했다. “너도 따라와, 말리. 너한테는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겠니. 내가 너를 풀어주면 볼트한테 큰 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지주님이 나를 살려두지 않으실 거야.”

“출발해.” 말에 올라타며 볼트가 말했다. “네 녀석이 두서 없이 지껄이는 동안 비에 흠뻑 젖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사실 하늘은 파셀씨의 멍 자국과 같은 색깔로 변해가고 있었고, 말로리는 첫 천둥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리는 것을 들었다. 웨이클링은 아비칸을 마차에 밀어 올렸다. 말로리도 아비칸을 따라 마차에 오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파셀씨가 말로리를 붙잡더니 수줍은 듯이 말로리의 팔에 손을 얹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다니 정말 부끄럽구나.” 파셀씨는 중얼거렸다. “내 담보계약 문제만큼이나 이번 일도 꼬여버렸어. 하지만 찾아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게다.”

“그만 좀 꾸물거리. 망할 놈의 인간 같으니!” 웨이클링이 두 명의 죄수를 데리고 마차 뒤에 올라타자, 파셀씨에게 출발하라고 신호를 보내며 볼트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마차 앞자리에 앉은 파셀씨가 쭈시고 어지럽다며 어찌나 불평을 해뒀던지 혼이 결국 파셀씨의 손에서 고삐를 빼앗고는 세차게 말을 후려쳤다. 말은 볼트를 만족시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볼트는 계속 뒤돌아보며 힘껏 달리고 있는 말에 더 속도를 내라며 재촉해댔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차가 사 분의 일 마일도 채 못 갔을 때,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가 내려 길에 일어나던 먼지를 가라앉았다.

아비칸은 덜컹거리는 마차의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인 채 누구와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수리수리 할아범?” 웨이클링이 물었다. “우리가 처음 발견했을 땐 꽤 생기가 돌았는데.”

“아저씬 편찮으신 거야.” 말로리가 대답했다. “여기 더 계시면 돌



아가실 지도 몰라.” ~

“웁기는 병은 아니지, 그렇지?” 웨이클링은 불안한 듯 뒤로 물러났다.

“제발, 제발 우릴 좀 풀어 줘.” 말로리가 사정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너를 책망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웨이클링은 히죽히죽 웃었다. “그렇게 되면 지주님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볼트가 현상금을 날리는 걸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거야. 상금을 나눈다고? 내 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들어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저 수리수리 할아범이 보여주는 마술보다 그게 더 신기한 일이 되겠지.”

웨이클링은 말로리의 부탁을 거의 들어줄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때 마차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더니, 뒤 칸에 탄 세 명은 한 쪽으로 굴러 떨어졌다. 혼과 파셀씨는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볼트가 재촉하는 바람에, 혼은 길에 솟아난 부분이나 구덩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무리하게 달리던 마차에 부담이 가해져 뒷바퀴 중 하나가 느슨해지고 결국은 빙글빙글 돌며 도랑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볼트는 파셀씨와 그의 마차를 싸잡아 옥하며 말을 세웠다. 웨이클링은 바퀴를 되찾아 오기 위해 도랑으로 기어 내려갔다. 바퀴는 살이 몇 개 부러진 것 외엔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 화가 난 사냥터지기는 그의 죄수들을 길 한 편으로 가게 했다. 혼, 웨이클링 그리고 파셀씨가 마차를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안, 볼트는 충을 꺼내더니 공중으로 한 발 쏘았다.

“지주님께서 이 근처에서 저 자들을 찾고 계시다.” 사냥터지기는 말했다. “충을 쏘았으니 이리로 오실 게야. 지주님과 내가 저택까지 함께 말을 타고 가서 이 둘을 자물쇠를 채워 가둬야겠군.”

“그러시면 되겠네, 볼트씨.” 혼이 투덜대며 되받아 쳤다. “우리는 여기 남아서 이 고달픈 일이나 하죠. 바퀴 축이 구부러졌으니 흙투성인 채로 죽히 두 시간은 일해야겠군. 땅거미는 지는데 말이야. 이 마차는 파셀의 마차니 주인더러 수리하라고 합죠. 저, 이 자들을 들판으로 가로질러 걸어가게 하는 편이 제일 빠르겠어요.”

볼트는 잠시 동안 생각을 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파셀의 말

을 풀어 줘. 자네와 내가 함께 말을 타고 가면 되겠군.”

이 말을 듣고 파셀씨는 머리 깨진 것도 서러운데 망가진 마차와 혼자만 남겨질 수는 없다며 노발대발 화를 냈다. 볼트는 파셀씨를 향해 돌아섰다.

“그러면 혼자 도망가 보시던가. 아님 뉘지던가. 좋을 대로 하시지.”

볼트의 말은 파셀씨의 화를 돋울 뿐이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거듭거듭 불만을 토로하며, 사냥꾼 지기가 전도 유망한 장사꾼인 자신을 몸도 성치 않은데 비바람에 내팽개쳤다며 욕을 해댔다. 그런 행동을 지주에게 일러바치겠다고 맹세까지 했다.

아비칸 곁에 몸을 웅크리고 말로리는 길가에 앉아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아비칸을 지주의 저택까지 데려가기 위한 계획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논쟁을 벌이느라 죄수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안 말로리는 손목을 묶고 있는 끈을 풀기 위해 힘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말로리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잼싸게 일어나 숲 속으로 달려가게 되면 얼마만큼 위험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았다. 그런 모험을 감행하기에 아비칸은 너무 몸이 약할 것이라는 생각에 말로리는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말로리는 손에 묶인 끈이 풀 수 있다면, 유일한 방법은 볼트의 총을 손에 넣는 것이라고 결심하고 다시 손목에 묶인 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로리 자신도 알고 있었다.

끈이 쏠려 끊어지도록 힘을 주어 비벼대면서 말로리는 뭔가가 불편하게 옆구리 쪽을 찌르고 있음을 느꼈다. 말로리가 입고 있는 옷의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주머니엔 아무 것도 집어넣은 기억이 없었다. 어리둥절해진 말로리는 한 쪽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어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을 꺼낼 수 있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거기까지는 성공했으나 아직도 주머니에서 꺼낸 게 무엇인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몸을 구부릴 수는 없었다. 감각이 둔해진 말로리의 손가락에 미끈하고 납작한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 말로리가 속삭였다. “제 손에 뭐가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내 평생 처음 보는 것이로구나.” 아비칸이 대답했다. “거북이 껍데기로 만들어진 것 같고. 보기에는 칼날이 안에 끼워져 있는 것 같다. 일종의 접이식 칼처럼 보이기는 해도 대단한 무기는 못되겠어.”

“맞아요, 접이식 칼이에요! 파셀 아저씨 거라구요. 파셀 아저씨께서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손톱 다듬는 데 쓰시거든요. 우연히 제 주머니에 떨어졌을 리가 없어요. 아저씨가 주머니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칼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파셀씨가 그런 착한 행동에 했다는 데에 깜짝 놀란 말로리는 가까스로 칼날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손목을 묶고 있는 끈을 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편한 자세로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 비는 그쳤지만 손목을 묶고 있는 끈은 젖어 있었고, 손가락은 미끄러웠다. 게다가 파셀 아저씨가 무딘 칼날을 갈 생각을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걸 말로리는 알 수 있었다.

말을 타고 빠르게 다가오는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볼트가 서둘러 말에 올라타 말에 박차를 가했을 때, 애를 써봤지만 말로리는 간신히 손목 끈의 처음 몇 가닥만 자를 수 있었다. 말로리가 절망스러운 듯 바라본 한 명은 신호 총탄 소리를 듣고 적갈색 암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스크럽너였다. 하지만 말로리는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힘이 솟았다. 그것은 로완이었다.

볼트는 곧 지주와 공증인을 만났다. 그 세 사람이 부서진 마차가 있는 곳에서 말을 멈추었을 때, 말로리는 사냥터지기 볼트가 이미 지주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리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지주의 표정은 의기양양하기는커녕 더 어두웠다. 그리고 로완은 두 명의 죄수들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리고는 말로리와 아비칸에게 바로 다가왔다.

“볼트씨,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 보시죠.” 공증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 나이 든 분이 어떤 상태인지 좀 보시오. 이 여자아이도 마찬가지로.”

“물러서시오, 로완씨.” 잽싸게 공증인의 뒤를 따라온 스크럽너가 말에서 내려 명령했다. “그들은 모두 지주인 나의 권한에 따라 체포되었소.”

“저는 지주님의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완이 대답했다. “하지만 지주님께서 법을 이용하실 생각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술선수범하여 먼저 법을 준수하셔야지요. 이 노인을 살인죄로 고소하실 겁니까?”

“그자를 고소하냐고?” 스크럽너가 소리쳤다. “고소만 하겠어? 교수형을 시켜버릴 거야!”

“아마 그러시겠죠.” 공증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도난당한 물건을 저 노인이 갖고 있었나요? 목격자가 있습니까? 저 노인이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했나요?”

“당신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심각한 얼간이군, 공증인나리.” 스크럽너가 별안간 화를 버럭 냈다. “이 사기꾼이 자기 죄를 인정할 것 같은가? 저 자가 훔친 물건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나? 훔친 물건은 숨겼겠지. 목격자라고? 내 말이면 증거는 충분해.”

로완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는 안 되죠, 지주님.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저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죠, 지주님. 지금 당장 저 두 사람을 풀어주시죠.”

- 제 12 장 -

이 말을 듣고 공증인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웨이클링과 파셀씨가 앞으로 나서자 말로리도 얼른 따라 일어났다. 그러나 스크럽너가 그들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렇게 서두들 것 없지 않나, 로완. 어떤 법의 논리로도 이 악당을 내 손아귀에서 빼내갈 수는 없어. 때가 되면 증거를 보게 될 걸세.”

“그렇지도 모르죠, 지주님.” 로완이 말했다. “그러나 지주님께서 타당한 이유를 대기 전까지는 누구도 잡아둘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스크럽너가 대답했다. “당신한테는 이 잔인한 살인마가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지. 이들은 불법 침입에다 강도죄까지 저질렀다구. 내 회계실에 침입해 들어왔어. 볼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온 집안 사람들이 목격자야. 그러니 공증인양반, 가서 법공부나 더 하시지.”

“우리는 침입한 게 아니에요.” 말로리가 화가 나서 대들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넌 재판을 받게 될게다.” 스크럽너가 주장하는 새로운 혐의에 대해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내며 로완이 말로리에게 말했다. “거기까지 밖에 확실히 말해줄 수가 없구나. 나머지는-” 로완은 고개를 저었다. “만약 불법침입죄로 너를 처벌하려고 하는 거라면, 지주의 말이 맞다.”

공증인이 돌아서자 말로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스크럽너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탄 로완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투명스럽게 사냥터지기 볼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볼트, 아주 잘 처리했어.” 말로리와 아비칸은 꼬챙이에 꿰어진 한 쌍의 메추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듯한 눈빛으로 스크럽너가 힐끔 쳐다보았다.

“이 자들은 저택으로 데리고 가세. 볼트 자네와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가세. 혼과 웨이클링은 마차를 살펴보도록 하고.”

볼트가 동의하지 않는 듯한 낄낄을 보이자 스크럽너는 그를 가로

막았다.

“그렇게 하는 게 공정해. 그렇다고 보지 않나, 볼트? 가장 유망한 상인 중 한 명을 길에다 오도 가도 못하게 남겨 둘 수는 없지 않겠어? 게다가 심하게 다치기까지 했는데.”

그는 말에 올라타고 사냥터지기에 죄수들을 데리고 뒤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스크럽너가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숲 쪽으로 앞장 서 가자, 말로리는 그가 저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뒤에서 볼트가 말을 끌고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리는 손목의 끈을 잘라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말로리는 공증인의 말을 듣고 희망에 들떠 칼을 내던져버렸더라면 큰 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다. 말로리는 칼을 손에 꼭 감추고 기회를 틈타 손목을 묶고 있는 끈을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비칸은 아무 말 없이 말로리 옆에서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말로리는 스크럽너가 공증인과의 언쟁에서 이기고 훨씬 더 만족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커다란 아래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인상은 더 찌푸려져 있었다. 반면 볼트는 기분이 아주 좋아서 얼굴이 상기되고 눈은 반짝거렸으며, 입이 근질거리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주는 기분이 우울해서 꼭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으나 볼트는 점점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혼자서 격심한 싸움을 끝에 암살자를 무릎 꿇게 했으며 몇 번이고 얘기 해댔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지주님.” 그는 힘주어 말했다. “죽을 뻔했어요. 정말이지 위험했다니까요. 혼과 웨이클링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한 놈은 겁쟁이에다, 또 한 놈은 천치, 둘 다 형편없는 얼간이들이죠. 지주님, 용서하고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제가 지주님이라면 모두 짐을 싸서 내 보내버릴 겁니다. 파셀도 분명 현상금 냄새를 맡고 쿵쿵거리며 찾아올 겁니다. 마치 자기가 현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계집아이는 어느 때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제가 제 때 오지 않았더라면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야 파셀과 지주님 사이의 문제지 제 문제는 아니죠.”

“맞는 말이군.” 스크럽너가 투덜거렸다. “자네가 상관할 바는 아니

지.” 스크립너의 어조를 봐서 그는 더 이상 그 문제를 따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볼트는 신이 나서 말을 계속 이어갔다.

“보상문제 말인데요, 지주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소렐씨가 살해당하신 후 지주님께서 금화 천 파운드를 현상금으로 거셨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주님, 제 뉘보다 제가 더 받고 싶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천 파운드는 다른 보상금과는 별도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금으로 내놓으신 저택과 전 재산에 포함된 겁니까?”

이 말을 듣고 지주는 사냥터지기를 똑바로 쳐다보기 위해 안장에 앉은 채 돌아보았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 그러니까, 지주님. 파셀의 집 탁자에 둘러앉아, 로완 그 사람도 거기 있었고, 지주님이 로완을 증인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주님께서 모두 그 내용을 글로 적으셨고 서명까지 하셨죠. 소렐씨의 살해범을 잡는 사람에게 기꺼이 저택과 전 재산을 내주신다고요.”

스크립너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 볼트.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

“했을지도 모른다니요?” 인상을 찌푸리며 사냥터지기가 말했다. “그런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파셀네 집 부엌에서 제 귀로 똑똑히 들었는걸요. 그리고 그 공증인이 서명이 되어있고 도장도 찍혀있는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그런가 보지.” 스크립너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깜빡했나보군, 볼트. 그 악한을 사로잡은 게 바로 나라는 걸 말일세.”

“그리고 놓치셨죠.” 볼트가 말했다. “지주님께서 그 자를 붙잡아 두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를 정말 사로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스크립너는 얼굴을 찌푸렸다. “복잡한 문제로군. 좀 찬찬히 생각해 봐야겠네.”

지주의 대답은 볼트에겐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말로리는 볼트가 그 문제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스크립너는 말머리를 돌려 박차를 가하더니 길을 빠져나갔다. 말

로리는 스크럽너가 작은 오두막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집의 석고 벽에는 사방으로 금이 가 있고, 좁은 창턱 밑에는 검게 때가 묻어 있었다.

“아니 저기 내 오두막집이 보이네.” 볼트가 소리쳤다. “남자들간의 중요한 일 얘기를 하며 지주님이 말씀하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온 신경을 쓰다 보니, 오두막집을 미처 못 보고 지나칠 뻔했지 뭐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세, 볼트.” 스크럽너가 말했다.

“쉬었다 간다고요? 아니, 지주님, 저택이 엮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데요? 이 둘은 쉬지 않아도 됩니다. 행여 꾸물거리기라도 하면 정신 좀 차리게 해 주면 되죠.”

“그야 두말 하면 잔소리지.” 스크럽너가 말했다. “그렇더라도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세.”

지주처럼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당장 되어있지 않다며 볼트가 만류했지만, 스크럽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에서 내려 말로리와 아비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볼트에게 지시했다.

그 집의 거실은 좁고 눅눅했으며, 고약한 냄새가 풍겨와 말로리의 코를 찔렀다. 한 쪽 벽에는 정돈되지 않은 작은 침대가 놓여있었고, 난로 옆에는 내장을 뺀 토끼들과 꿩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것들을 보면서 말로리는 볼트가 자신이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냥감들을 대수롭지 않게 밀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스크럽너는 그것들을 눈감아 주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방문객 때문에 볼트가 안절부절 못하고 난처한 기색을 보였더라면, 방을 둘러보고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지주의 기분이 좀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로리는 생각했다.

“아주 아늑하군.” 스크럽너가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아주 잘 지은 집이야. 어디다 이 자들을 가두어 놓고 잠시 동안 자리 좀 비키게 할 수 있겠나?”

볼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주님. 저 악마 같은 늑은이에 대한 감시를 늦추면 안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계집애도 마찬가지죠. 워낙에 영악한 애라서요.” 볼트는 난로 옆에 뚜껑문을 가르켰다. “저기 감자 같은 걸 보관하는 작은 지하실이 있습니다.”



“딱이구만.” 사냥꾼지기에 즉시 죄수들을 가두라고 지시하며 스크럽너가 대답했다.

볼트는 말로리와 아비칸을 거칠게 내 몰아 몇 개 안 되는 나무계단 아래로 떠밀었다. 그러나 말로리에게는 지하실로 가는 것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볼트가 뚜껑 문을 원래대로 닫자마자 말로리는 손목을 묶고 있는 끈을 자르기 시작했다. 사방을 축축한 흠뻑으로 되어 있었고, 마루바닥 아래 갇힌 터라 일어설 공간이 없어 말로리는 가능한 몸을 작게 만들고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비칸은 한 구석에 웅크린 채 턱을 무릎 위에 괴고 앉아 있었다. 지하실은 완전히 캄캄하진 않았다. 마루 바닥에 갇 판자 틈으로 약간의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 틈에 눈을 바짝 갖다 대니 말로리는 스크럽너와 볼트가 난로 옆에 있는 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자, 볼트.” 말로리는 스크럽너가 살살 구슬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자네도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은 지키는 거 알지 않나. 이 일을 처리하는데 자네가 날 제대로 도와줬어. 그러니 자네에겐 후하게 대접하지. 금화 천 파운드라고? 자네 같이 믿을 만한 친구에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지. 안될 말이야. 그 돈에 두 배를 줘. 이천 파운드를 주지. 일이 계획한 대로 풀리기만 하면 그 보다 좀 더 줄 수도 있어. 그만하면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겠군, 안 그런가?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런 금액에 누구나 만족하고도 남지. 생각해보게 볼트.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고, 어딘가에서 멋진 모습으로 있을 자네를 떠올려 보라구-”

“저, 지주님.” 볼트가 끼어들었다. “전 여행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 취향에 맞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주머니가 두둑해지긴 하겠습시다만 저택을 갖는 것만큼은 못하겠죠.”

“잠깐, 볼트.” 스크럽너가 말했다. “그렇게 성급할 것 없네. 자네가 말했듯이 내가 어떤 문서에 서명한 건 사실이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 난 그 순간 좋은 뜻으로 그런 제안을 했네. 잠시 동안 순수한 슬픔에 잠겨있었지.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쳐 올라 이성을 잃었던 걸세. 볼트, 자네도 잘 알다시피 난 인정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내 놓았을 수도 있었네.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지. 그게 가능하기

만 하다면 말일세. 아아, 우리 항상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는 없어. 마음이 아프고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의 바람을 억누르고 실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거지.” 스크럽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크게 한 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말해보게, 볼트. 자네 진심으로 내가 저택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자네나 또 다른 사람한테?”

볼트는 씩 웃어 보였다. “물론 내놓지 않으시겠죠, 지주님. 그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절 바보로 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고 문서에 서명하고 목격자 노릇을 하고 약간의 연기까지 보여준 것은 지주님께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꿈에라도 지주님이 저택 전체를 다 내놓으실 리는 없죠. 하지만 저는 지주님께서 그 절반은 저에게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 받지 않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겠죠. 이제 석탄 채굴장도 지을 참이고 길을 닦으면 장사도 잘 될 것이며 파셀의 여인숙과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쪽 사업을 우리가 함께 똑같이 나누어 하면 되겠군요. 동업자죠. 지주님과 저는.”

말로리는 마룻바닥 틈 사이로 눈을 더 가까이 갖다댔다. 스크럽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사냥터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손목을 묶고 있는 끈 중 첫 번째 끈이 슬슬 끊어지려고 하자 말로리는 지주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더욱 힘주어 끈을 자르기 시작했다.

“자, 자 볼트. 우리는 사내대장부 아닌가. 우선 말하지만 정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걸세. 하지만 정의를 행하기 위해 비용이 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 동업자라고? 똑같이 몫을 나눈다고? 그건 아니지, 볼트. 죄인 하나 교수형 시키자고 내가 반 거렁뱅이 신세로 전략할 순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저 자는 보통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볼트가 대답했다. “애시당초 죄를 짓지도 않았죠.”

“뭐라고?” 스크럽너가 소리쳤다. “저 살인마는—”

“저 노인네 말입니까?” 사냥터지기는 웃었다. “저 자가 사람을 목졸라 죽였다구요? 저 노인네는 파리 한 마리 놀러 죽일 힘도 없어

요. 저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저만큼이나 지주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자, 지주님, 저 노인이 소렐씨를 죽였다고 말해야 지주님 계획대로 일이 풀리게 되는 거라면 저도 지주님과 함께 그 계임에 동참하죠. 지주님 편에 서서 고분고분 말을 들으면서요. 옛 지주님을 살해한 진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수록 유리하죠. 무슨 말인지 제 말뜻 아시겠죠. 정의라고요? 안될 말씀이죠. 지주님 돈을 균할 수 있는 방법은 입을 다무는 겁니다.”

“볼트, 자네 예리하군.” 잠시 후 스크럽너가 조용히 말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예리해. 예리함으로 아주 푹푹 뭉쳤어. 자네를 동업자로 두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는 걸. 사실 생각해 보나 나한테 자네가 꼭 필요하네. 이제부터는 자네를 잘 지켜봐야겠군.”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주님.”

“암 그렇고 말고. 우리 둘 다 서로를 예의주시하게 되겠군. 그러면 두 배는 안전해지지. 그럼 이제 해결된 건가? 이제 조금이나마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야?”

이때쯤 해서 말로리는 손목을 묶고 있는 마지막 끈을 잘라냈다. 말로리는 서둘러 아비칸에게 가서 손목을 풀어 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틈 사이를 내다보았다. 볼트가 뚜껑문 옆에 다가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지요, 지주님. 두 신사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 사악한 늑은이 말인데요. 로완이 재판을 법적 절차대로 열려고 한다면, 저자가 법정에 나가야겠죠. 그래야만 정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저자가 재판에서 말을 아꼈을수록 우리에게 더 유리해질 겁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저자가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지주님, 저자가 살아서 법정에 서도록 놔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군.” 스크럽너가 대답했다. “저자가 타고난 살인마라는 사실을 입증해줄 증거를 로완이 원한다면, 증거를 보게 될 걸세. 내가 보기엔 자네 말처럼, 저 사악한 늑은이 도망을 치려고 할 게 뻔해. 저자 입장에선 생각을 크게 잘못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게야. 저 늑은이가 직접 재판

장에서 진술하는 것 보다 우리가 저잘 위해 훨씬 잘 답변해 줄 수 있을 걸세.”

“그 계집아이도 마찬가지로.”

스크럽너는 한 숨을 쉬었다. “맞아. 그렇게 되면 모두의 일이 잘 풀리게 되겠지. 저 계집아이가 내 회계실에서 뭘 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애가 심각한 사고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 안전할 거야.”

“저 애가 뭘 봤죠?” 사냥터지기가 말했다. “그러지 말고 말씀해보시죠, 지주님. 우리 사이에 비밀을 없애줍니까?”

“자네가 걱정할 일은 아닐세, 볼트.” 스크럽너가 말했다. 그는 손을 빠르게 비벼댔다. “이제 우린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해야 하네. 잘 해봤자 잔인한 일이 될 테지만. 그나저나 불을 쫓 쫓여야겠어. 그리고 뭘 좀 마셔야겠군.”

겹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말로리는 볼트가 찬장에서 병 하나와 이가 빠진 유리잔 두 개를 꺼내는 것을 마룻바닥 틈새로 뚫어 쳐라 쳐다보았다. 병과 잔을 탁자 위에 올려 놓면서 볼트는 스크럽너에게 잔을 채워 달라는 표시를 했다. 그리고나서 그는 벽난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불을 지피기 위해 장작을 쌓기 시작했다. 스크럽너는 병을 집어 들었으나 다시 탁자에 내려놓고는 사냥터지기를 살펴보기 위해 다가왔다.

“훌륭하군.” 스크럽너가 말했다. “불이 잘 지펴지겠어. 저 뒤쪽에 불쏘시개가 좀 필요할 거 같아 보이긴 하지만 말이야. 좀 더 장작을 넓게 펼쳐. 여기, 내가 시범을 보이지.”

기분 좋게 웃어보이며 스크럽너는 난로 용구 곁에서 부지깽이 하나를 꺼내 들었다. 사냥터지기가 불을 지피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스크럽너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부지깽이를 집어 들고는 온 힘을 다해 볼트의 머리를 내려쳤다.

사냥터지기 볼트가 난로 저 편으로 꼬꾸라지는 것을 보면서 말로리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스크럽너는 조용히 볼트를 한 번 더 후려쳤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볼트의 몸을 살펴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부지깽이를 내팽개쳐두고 볼트의 자켓에다 손을 닦았다. 겹에 질려 속이 메스껍기까지 했던 말로리는 스크럽너가 병과 잔을 찬장에 도로 집어넣고 잠시 서 있다

가 이빨 사이로 휘파람을 불어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에 손을 가져가더니 더 좋은 생각이 난 듯 총을 제 자리에 두고 다시 부지깽이를 집어 들었다. 그가 지하실 쪽으로 성큼 성큼 걸어와 몸을 구부리고 뚜껑 문을 열자 말로리는 뒤로 움츠러 들었다.

“나와.” 스크럽너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가 말로리의 손이 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로리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스크럽너의 두 다리를 붙들고는 그를 뒤로 넘어뜨렸다. 부지깽이를 휘둘러대면서 스크럽너는 말로리를 떼어내려고 애썼고 그 사이 말로리는 아비칸에게 그 집에서 도망가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무게로 누르고 힘을 써서 스크럽너는 말로리를 떼어냈다. 그는 양손으로 부지깽이를 쥐더니 아래로 휘둘렀다.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말로리는 그저 두 팔로 머리를 감쌀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말로리는 뒤에서 아비칸이 이상한 말로 주문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부지깽이는 스크럽너의 손아귀에서 날아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그의 주변을 맴돌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스크럽너를 세계 후려쳤다.

“도망가거라!” 아비칸이 말로리에게 소리쳤다. “서둘러! 주문이 오래 가지 않을게다.”

아비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말로리는 그의 망토를 붙잡아 궁시렁대는 아비칸을 문 밖으로 끌어냈다. 볼트의 말에 묶여 있던 밧줄을 풀고 말로리는 아비칸을 밀어 올려 안장에 앉히고 자신도 훌쩍 스크럽너의 말에 올라탔다.

아비칸이 문지방을 나서자마자 부지깽이는 스크럽너 후려치기를 중단했고 쟁그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멍이 들고 흠뻘 두들겨 맞은 스크럽너는 주위가 떠나갈 듯 고함을 지르며 총을 손에 쥐고 집 밖으로 뛰어 나왔다.

전속력으로 숲을 향해 달려가던 말로리는 총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 아비칸은 안장 앞쪽으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제 13 장-

마법사 아비칸은 말갈기를 꼭 붙들었다. 말로리는 옆으로 가서 아비칸이 떨어트린 고삐를 잡고는 두 마리의 말을 모두 멈춰 세웠다.

“충인지 뭔지 망할 놈의 물건 같으니라고.” 아비칸이 투덜거렸다. “아주 몹쓸 연장이야. 옛날에는 활과 화살이면 충분했다구.”

말로리는 스크럽너가 노발대발 고향을 지르며 덤불숲을 헤쳐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말로리는 얼른 아비칸의 상처를 살펴보았으나 옆구리에 총을 맞고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밖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말로리는 재빨리 말에서 내려 아비칸이 타고 있는 말에 올라탔다. 스크럽너가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잠시 동안 갈피를 못 잡길 바라면서 말로리는 말의 옆구리를 내리쳤고 말은 다른 방향으로 전력질주하기 시작했다.

앞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말로리는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입에 거품까지 문 말을 더 달리도록 재촉해댔다. 말로리는 아비칸이 안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었으나 아비칸은 말로리의 품에서 축 쳐져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잠시 동안 아비칸은 아무 말이 없었고 투덜대지도 않았다. 그러더니 아비칸은 말로리에게 잠시 멈추고 쉬자며 사정했다. 말로리는 말을 세우고 아비칸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곤 나뭇잎 더미에 그를 앉히고 나무 기둥에 기대게 했다.

그러자 아비칸은 다소 편안해진 것 같아 보였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눈을 뜨고 투덜거렸다.

“칼에 찔린 상처, 창에 찔린 상처, 심지에 뱀에 물린 상처를 낮게 하는 주문까지 외어 봤다. 하지만 그 어떤 주문도 먹혀들질 않아. 이젠 벌에 쏘인 상처조차 낮게 할 자신이 없구나. 어쨌든 상관없다. 잠시 동안 눈 좀 붙여야겠어. 잠자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우리 여기 있으면 안돼요.” 아비칸이 눈을 감고 얼굴을 한 쪽으로 돌리려 하자 말로리가 고집을 부렸다. “마을로 가는 길을 찾으세요. 아저씨 붕대와 약이 필요해요.”

“나도 잘 알고 있다.” 아비칸이 대답했다. “하지만 붕대와 약을 만들어 낼 뽀족한 수라도 있는 거냐? 난 못해. 게다가 나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난 그걸 느낄 수 있거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다른 곳만큼이나 팬찮은 장소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로리가 소리쳤다. “그냥 포기하실 셈이세요? 여기 앉아서 아무 것도 안 하실 거냐구요? 마법사가 그러는 거 너무 비겁하잖아요.”

“하지만 아주 지각 있는 행동이긴 하지.” 아비칸이 말했다. “결과는 뻔해. 너도 생각 고쳐먹도록 해. 황금의 동그라미를 찾는 건 고사하고 배를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하니까. 마을로 가는 거 말인데, 난 힘들게 이 숲을 헤쳐 나가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 그러기 싫구나. 난 차라리 마지막 위엄과 자존심을 지킬 테다.”

“로완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말로리가 아비칸을 설득했다. “스크립너가 한 짓을 로완이 알게 된다면요. 그리고 마구 만드는 일을 하는 에뎃이 있어요. 그는 언제나 나에게 잘 대해 줬거든요. 파셀아 저씨도 우릴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칼도 주셨잖아요. 하지만 식당에는 갈 수 없을 거예요. 파셀 아주머니가 계시는 한 갈 수 없어요.”

“방금 설명했듯이 난 여기 있는 편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말로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지주의 저택에 갔을 때, 그 때처럼 똑 같이 할 수 없으세요? 로완의 집으로 우리 둘이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아비칸은 고개를 저었다. “못할게다. 부지깽이를 움직이게 한 후로 내 기력이 다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아저씨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말로리가 재촉했다. “어떤 이야기 속에서나 주인공은 일이 제일 꼬였을 때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완전 허무맹랑한 얘기로군.” 아비칸이 투덜댔다. “내가 한창 잘나가던 시절엔 말이지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어.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나 그걸 부정하지-”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말로리가 쏘아 붙였다. “전 상관없어요! 아저씨가 잘 나가던 시절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전 제 동화 속 이야기가 더 좋다구요!”

아비칸은 화가 나서 눈을 깜박거렸다. 아비칸은 대답을 하려다 말고 갑자기 입을 다물더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한참 후에 그는 말로리를 쳐다보았다.

“좋다. 손을 이리 주렴. 전에도 그랬듯이 내가 널 인도해 주어야 한다.”

말로리는 눈을 감고 공증인의 집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마을의 다른 어떤 곳보다 공증인의 집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말로리는 당황스러웠다. 공증인의 집 모습이 산산이 부서지다가 희미해져버렸다. 힘들었지만 말로리는 다시 한 번 그 모습을 그려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제는 식당 근처의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떠올리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아비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말로리는 발밑에서 땅이 사라져 버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몸이 뒤틀리고 주먹으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들더니 말로리는 아비칸의 손에서 자기 손이 빠져버린 것을 알았다.

촛불 같은 불빛을 누군가 말로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하얀 가운 차림의 사람 모습이 눈앞에서 어른거렸고 숯돌에 칼 가는 것과 같은 거슬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그것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잠옷으로 몸을 둘둘 감싸고 종이로 말아 올려 머리카락이 곤두 선 파셀 부인이었다.

아비칸은 부엌 바닥에 누워있었다. 파셀부인이 정신없이 남편을 불러대는 동안 말로리는 아비칸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아비칸은 의식이 없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파셀부인은 더 크게 비명을 질러 댔다. “그자예요! 그 살인마라구요! 우리를 목 졸라 죽이려 왔나봐요! 여보, 와서 당신 아내를 지켜야죠! 고기 썬 식칼 가져와요!”

그러면서 파셀부인은 촛불을 내려놓고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째싸게 집어 들더니 자신의 목숨을 방어할 태세를 갖췄다.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파셀씨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엌 문 주변을 살펴보았다. 붕대를 감은 머리에 잠잘 때 쓰는 모자를 비스듬하게 쓴 파셀씨의 얼굴은 창백하고 푸석푸석했으며 길에서 겪었던 고초에서 가까스로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말로리와 아비칸



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헉헉댔다. 하지만 그는 파셀부인이 지시한 대로 식칼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재빨리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하는 모습이 괴로운 꿈에서 깨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비칸을 도와주세요.” 말로리는 파셀씨에게 황급히 다가가 사정했다. “스크럽너가 아저씨를 총으로 쏘았어요.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요.”

파셀씨는 양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쳤다. “세상에, 세상에, 애야 저자를 집으로 데려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였어. 돌아오지도 말았어야지. 총에 맞았다고? 죽어간다고? 맙소사, 왜 꼭 여기서 그래야 하는 거냐!”

아비칸이 별떡 일어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일은 없겠다 싶었던지 파셀부인은 쥐고 있던 빗자루를 의기양양하게 흔들었다.

“내가 저자를 잡았어. 저 몹쓸 암살범을 잡았다구! 살인은 뿌리뽑히고, 정의는 실현될 거야! 여보, 우린 한 몫 잡은 거야!”

“아주머니께 말씀드리세요.” 말로리가 다그쳤다. “아비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믿으시잖아요. 틀림없이 믿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에게 아저씨 칼을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파셀부인은 겁에 질려 헐떡대며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뭘 어쨌다고요? 뭘 쥐요?”

“제발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말로리가 끼어들었다. “파셀 아저씨께서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흰 이미 죽었을 거예요-”

“파셀, 이 멍청한 인간 같으니.” 끔찍한 목소리로 파셀부인이 소리쳤다. “당신,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여보, 열 올리지 말아요.” 파셀씨가 매달렸다. “당신 예민한 거 당신도 잘 알잖소. 당신 그렇게 흥분하면 안돼요.”

“당신 그러니까 범인들을 방조했다 이 말이지?”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보오.” 파셀씨가 항변했다. “한 순간 획 돌아버린 거야. 정신을 잃어버렸지. 뒤에 썩었던 건지 나도 모르겠소.”

“정신을 잃었다고요?” 파셀부인이 천둥 같은 고함을 내질렀다.

“그깃 정신 잃거나 말거나! 당신 담보 계약이 날아가 버렸으면 어쩔 뻔 했어요!”

파셀씨는 좋은 일을 하고도 부인에게 어물어물 사과를 해댔고, 파셀 부인은 욕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말로리는 아비칸의 상처를 정성껏 살펴보았다. 피는 멈췄고, 스크립너의 총에 맞아 생긴 상처는 말로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깊지 않았다. 그 보다 아비칸의 기진맥진한 몸 상태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말로리는 걱정이 되었다. 약이건 술이건 아비칸의 기력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 보려고 말로리는 식당 안을 살펴보려고 했다. 그러나 파셀 부인이 빗자루를 들고 말로리를 막아섰다.

“그리고 너, 이 배은망덕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내가 그렇게 돌봐 주고 친절을 베풀어 줬건만! 저 늙은 악당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거나 하는 거냐? 너 혼자 그 현상금을 꿀떡 삼키려고 했던 거야?”

“현상금 같은 건 없어요.” 말로리가 쏘아붙였다. “스크립너가 아주머니께 거짓말 한 거라고요. 그가 볼트를 죽였어요. 그리고 소렐 지주님도 죽인 거예요.”

“입 다물지 못해!” 파셀부인이 소리쳤다.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 분보다 더 후덕하고, 사려 깊은 분은 없어-”

“내 담보 계약만 아니라면,” 파셀씨가 끼어들었다. 그는 파셀부인이 내리치는 빗자루 세례에 대비해 언제라도 자신의 머리를 보호할 태세를 하고서는 등을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그건 에누리 없는 장사지. 다른 말론 설명할 길이 없어.”

“당신도 입 다물어요!” 파셀부인이 명령했다. “그렇게 바보같이 굳게 다 당신 잘못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말로리가 흐느껴 울었다. “볼트가 죽었다구요! 스크립너가 부지깽이로 그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요. 전 거기 있었고 그걸 봤어요. 아비칸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는 마법사예요. 전 숲에서 아비칸을 발견했구요.”

“급기야 올 것이 왔군.” 확신에 찬 파셀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내가 그럴 거라고 했죠. 그게 지금이에요. 저 앤 미쳤어요. 동화 이야기들로 머리가 터져버린 거라고요.”

말로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파셀부인을 마지막으로 설득 시켜보기 위해, 말로리는 아비칸에게 닥친 불행스러운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말로리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파셀부인은 아무 말이 없었고 고개만 흔들어들었다.

파셀씨가 기운을 많이 차리고 안정을 찾은 것 같아 말로리는 다행스러웠다. “그렇지, 너도 알다시피 얘야, 난 어쨌든 올바른 일을 한 거라고! 마법사라니, 세상에! 도대체 누가 그런 걸 생각해 낼 수 있었을까! 저 자가 마법사라니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겠구나. 저 마법사 찾았도 읽냐? 아마 내 담보 계약에 대해 조언을 좀 해줄 수도 있겠지? 자, 어디 보자. 마법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파셀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저 불쌍한 아이의 꼴 좀 봐요! 얘야, 진정하거라. 그런 일을 다 겪었으니 네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내 따뜻한 우유 한 사발 가져다주마.”

“저보다 아비칸을 돌봐주시는 게 더 급해요.” 말로리가 말했다.

“저자에게도 가져다주마.” 필요한 것은 뭐든지 가져오라고 남편에게 시켜두고 파셀부인도 직접 식품 저장실을 뒤지러 갔다. 가지고 오겠다던 우유가 준비되었을 즈음, 아비칸은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말로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유를 몇 모금 마실 수 있도록 아비칸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나서 말로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유를 조금 마셨다.

처음으로 말로리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숲 속에서 한기를 느꼈던 터라 말로리는 이제 아늑한 화롯가에 앉아 있는 것같이 기분 좋은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비칸은 평온하게 졸고 있었고 말로리도 곧 하품을 하더니 이내 눈꺼풀이 축 쳐졌다.

“로완에게 말 해야 되요.” 말로리가 속삭였다. “그건 그렇고 아비칸에겐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거예요. 스크립너가 어떤 짓을 저지르려고 할지 모르니까요.”

“네 친구를 위해 폭신한 깃털 침대를 만들어 주마, 얘야.” 파셀부인이 말했다. “하나도 걱정할 것 없다. 네 친구는 편안하게 한 잠 잘 거야. 너도 마찬가지로. 수면제를 먹었으니 너도 곧 꿈나라에 있게 될게다.”

말로리의 입술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고 겹에 질려 소리 질렀지만 힘빠진 횃파람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파셀부인은 가까이 다가와 말로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종이를 감은 머리 때문에 파셀부인의 머리는 말로리의 눈 앞에서 둥둥 떠다니다 공중에 잠시 머무르고는 곧 멀리 사라져버린 거대한 민들레 모양의 화장술처럼 보였다.



- 제 14 장 -

말로리는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썼다. 어둠 속에서 나직한 소리가 났었다는 기억이 제일 먼저 났는데 그것은 멀리서 들리는 듯한 파셀 부인의 소리와 말 울음소리였다. 누군가 그 때 거친 손으로 말로리를 일으켜 세웠다. 말로리는 힘없이 넘어지고 말았고 그 누군가의 손에 거의 이끌리다시피 복도를 거쳐 문 안으로 들어갔다. 말로리는 그곳이 스크럽너의 회계실이라는 것을 어렵듯이 알아볼 수가 있었다. 깊은 잠에 빠진 아비칸은 방 한 구석 말로리 곁에 누워있었고 그 곁에는 서류와 회계책들이 쌓여있는 선반이 놓여져 있었다.

“파셀부인,” 말로리의 귀에 스크럽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범인들을 혼자 힘으로 저에게 데려오시다니 부인께서는 정말이지 확고 부동하고 결단력이 있는 여성이십니다.”

“지주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파셀부인이 대답했다. “파셀이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돼서요. 제 남편은 머리를 다친 이후로 줄곧 몸 상태가 안 좋고 골치를 앓고 있어요. 하지만 지주님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된다면, 지주님께서야말로 안 좋은 일을 겪으신 것 같이 보이네요.”

“그게, 파셀부인, 줄잡아 말씀드리자면,” 멍든 얼굴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스크럽너가 대답했다. “부인께서는 지금 눈앞에 의심할 여지 없이 폭행과 구타를 당한 피해자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멈추었다. 그리고는 암울한 어조로 덧붙였다. “나를 죽일 작정이었죠.”

이 말을 듣고 말로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면제의 약 기운이 남아있어 말로리는 기껏해야 머리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파셀부인은 지주의 목숨이 아직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스크럽너는 파셀부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진정하세요, 파셀부인.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이 상처들은 여기 난 두 군데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스크럽너는 조끼 윗부분을 가리켰다.

“이런 세상에, 지주님,” 파셀부인이 울먹거렸다. “칼에도 찢리신

거예요?”

“파셀부인, 전 은유적인 뜻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죠. 그것은 몸에 입은 상처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상처죠. 제 옛 지주님께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몇 시간 전에 저에겐 충직한 하인 이상이었던 한 친구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볼트씨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아요. 그는 부지깽이로 살해당했습니다. 평범한 가제 도구가 살인 무기로 둔갑했죠.” 그 말을 하며 스크립너는 손가락으로 아비칸을 가리켰다. “소렐 지주님의 목숨을 빼앗아간 바로 그 동일범에게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한 겁니다.”

“전 최선을 다해 불행을 당한 볼트씨를 방어했습니다.” 스크립너는 말을 이어갔다. “저자의 흰 머리카락에 속지 마세요. 저 수염 난 악한은 열 두 명의 악마와 맘먹는 힘을 가지고 있죠. 제 이마에 생긴 저자의 소행이 보이시죠. 아, 전 볼트씨의 목숨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 비정한 범죄자를 도망가게 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다면 저도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파셀부인이 소리쳤다. “이런, 지주님, 끔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모든 사실들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글썄, 고생 안 시키고 응석 받아가며 제 손으로 키워냈더니 이 사악하고 발칙하며 배은망덕한 계집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감히 불쌍한 볼트 씨를 죽인 건 바로 지주님이라고 말하지 뭐예요.”

스크립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시 말을 잃고 그는 말로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내저었다. “저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파셀 부인? 어린 것이 어찌다 머리가 돌았는지 윈. 상상력도 기발하지. 대단한 상상력이긴 하지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 생각이죠.”

“그건 동화 이야기랍니다.” 파셀부인이 말했다. “동화 속 이야기들이 저 애 정신을 야금야금 갇아 먹더니 급기야는 온전한 정신이라곤 조금도 남아있질 않게 됐어요. 지주님, 저 애가 뭐라고 또 지껄여 댔는지 들으시면 기가 찰 겁니다. 마법사들이 나무에서 나와서는 돼지로 변했다느니 어쨌다느니.”

스크립너는 혀를 끌끌 찼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군요. 파셀부

인.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짐을 안고 계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 계집애를 체계 맡겨 두십시오. 제가 돌보죠. 이제껏 저애를 돌본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하신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겠죠.”

스크럽너는 허리를 구부려 인사를 하고 회계실 문 쪽으로 손짓을 했다. 그러나 파셀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주님,” 그녀가 말했다. “로완씨를 기다렸다 만나보실 생각이시죠? 제가 로완씨를 모셔 오려고 남편을 보냈어요. 웬수 같은 인간, 느려터져가지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니깐요. 사고를 당한 뒤로는 더 상태가 안 좋아 졌지 뭐니까. 그래도 곧 올 겁니다.”

미소를 짓던 스크럽너의 얼굴은 순간 동요됐다. “로완씨를 모셔온다고요? 왜 그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지주님을 편하게 해 드리려고 그런 거죠.” 파셀부인이 대답했다. “지주님께서 당장 현상금 문제를 해결하고 세부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싶어하실 것 같아서요. 지주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미뤄서 좋을 것 없죠.”

“그렇게 일을 처리하셨다니 유감입니다, 파셀부인.” 스크럽너가 말했다. 그의 웃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괜한 일을 하셨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들에게 부인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해야 할 상황이니깐요.”

파셀부인은 약간 얼굴을 찌푸렸다. “저기, 지주님,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사실,” 스크럽너는 자신에게 만큼이나 파셀부인에게도 사려깊은 태도를 보이며 말을 이어갔다. “부인께서 애초에 이곳에 오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편이 일을 더 간단하게 해 줄 테니까요.”

말로리의 팔과 다리는 여전히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다. 헛바닥은 둔하게 느껴졌고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면서 가까스로 몇 마디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스크럽너가 볼트에게 한 짓 말이에요. 이제 아주머니 차례라구요.”

“저 애가 또 헛소리를 해대는군요.” 파셀부인은 태연한 척 말했다.

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섰다. “잠시라도 제가 저 아이의 말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듣지도 않았어요. 누가 저런 말로 안 되는 험뜯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전 안 그래요, 지주님. 맹세한다구요.”

스크럽너가 대답하지 않자, 파셀 부인은 서둘러 말했다.

“아 그래요. 우리 문제는 더 기분 좋을 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괴로운 일들을 겪고 나니 우리 모두가 지쳐있어요. 지주님께서도 평소 때와는 사뭇 다르시네요. 하룻밤 폭 주무시고 나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내일 제가 송아지발 젤리 요리를 한 단지 가지고 오죠. 그 요리는 언제나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다니까요.”

파셀 부인은 문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스크럽너가 그녀를 막아섰다. “아주 친절하시군요, 파셀 부인.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송아지발 젤리 요리라고요? 아, 약간의 송아지발 젤리 요리만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덜어진다면 세상은 훨씬 더 행복한 곳이 되겠죠.”

“스크럽너씨,” 파셀부인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지만 화를 내며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큰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팔을 들어올려 문을 막으며 스크럽너는 유감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부인께서도 제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해대는 말이나, 뜬 소문, 한가한 사람들이 지껄여대는 말들 때문에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화근은 아예 없애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 조짐은 싹트기 전에 잘라내 버려야 해요.”

“전 입도 병긋 안 할게요!” 파셀부인이 소리쳤다. “제 입은 붙어버렸다구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스크럽너가 대답했다. “믿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적어도 부인의 말은 믿을 수 있죠.”

“제 남편은 어찌죠?” 파셀부인이 소리쳤다. “그이도 저랑 같이 저애의 얘길 들었다고요-그러니까 제 말은, 제 남편도 저 만큼이나 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로완은 어떻게 되는 거



죠?”

“우리의 정직한 공증인나라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증거에 집착하신단 말씀이야. 증거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공증인나라라도 어찌지는 못할 겁니다. 부인이나 고인이 되신 볼트씨처럼 주지도 않을 현상금에 집착할 정도로 파셀씨가 어리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파셀씨가 입을 다물도록 제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두기는 해야겠죠. 두고 봅시다. 하지만 우선은 급한 문제부터 바로 해결하도록 하죠. 제 회계실 안에 있는 이 세 명을 어떻게 할까요. 제 각본대로만 된다면야 바랄 것이 없겠죠.” 스크럽너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모두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불행히도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저 늙은이가 일어나서 여기 두 사람을 공격할 겁니다. 감추어둔 무기가 당연히 준비되어 있었겠죠. 아마도 도축용 칼이었을 테죠. 그리고나서 지질이도 조심성 없는 저 노인네마저 마차에 치는 겁니다. 군데군데 다듬어야 할 부분이 생각나긴 하지만 결론은 똑 같아요. 잠시, 전 가서 부인의 남편과 공증인이 도착하는 걸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절 용서하세요, 파셀부인. 하지만 상황이 부인만큼이나 저에게도 괴롭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보면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죠.”

파셀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지주에게 몸을 내던졌다. 그녀의 몸집이 크긴 했지만 지주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는 파셀부인을 회계실로 다시 집어 던져버렸다. 말로리도 있는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파셀부인을 돕기엔 너무 늦어버렸고 스크럽너가 잽싸게 문 밖으로 나가 문을 걸어 잠그는 걸 막지 못했다.

아비칸 역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마법사가 자기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보자 파셀부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아비칸이 무시무시한 복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눈알을 굴리다 기절해 의식을 잃고 말았다.

문을 두드려보던 말로리는 소용없다는 걸 알고 무기가 될 만한 도구들을 찾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텅 비어 있는 난로 주변엔 난로용구 걸이조차 없었다.

“아비칸 아저씨, 한 번 더 마법의 주문을 걸 순 없겠어요? 아무

거나 상관없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되요.”

아비칸은 얼굴을 찌푸렸다. “지금, 나한테 물 한 주전자 끓일 힘도 남아있질 않다. 다 사라져버린 게 확실해. 부지깥이를 움직이게 한 게 마지막이었어.”

“스크럽너가 말하는 거 들었어요? 아저씨가 우리를 모두 죽인 것처럼 보이게 꾸밀 거라잖아요. 그자가 소렐 지주님에게도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에 틀림없어요. 스크럽너는 항상 캐슬턴에 갔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인 게 분명해요. 그는 분명 밤에 돌아와 저택에 침입해 들어왔을 거예요.”

“흥미로운 추측이구나.” 아비칸이 대답했다. “그럴 게다. 의심할 여지가 없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들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를 급습해야만 한다는 거야.”

“그는 우리 둘을 합친 것보다 더 힘이 세요. 아, 파셀 아주머니와 그 빌어먹을 수면제 때문이에요. 머리가 아직도 빙빙 돌아요. 스크러너와 싸운다구요? 스크럽너는 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망할 물건 말이냐? 그래, 그럴 테지.” 아비칸이 말했다. “좋다. 우리도 뭔가를 가지고 그를 공격해야 해. 저 의자는 어떠냐? 저걸 부셔서 의자 다리를 몽둥이로 쓰는 거야! 투박하긴 하지만 꽤 쓸모 있을 게다”

“그럴 수도 있죠.” 말로리가 동의했다. “아니면 좀 더 무거운 건 어때요? 난로 벽에 있는 벽돌이요. 험거워 보여서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굴뚝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너무 위험해.” 아비칸이 경고했다. “만약 우리가 굴뚝에 갇히는 날엔 우리는 꼼짝없이 잡힌 물고기 신세가 될 거야. 게다가 난 겹겹이 쌓여있는 숯 검댕을 뒤집어쓰면서 굴뚝을 기어 올라갈 기력이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리는 이미 벽난로를 살펴보러 가고 없었다. 숯 검댕은 그리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았다. 불을 지피는 곳은 깨끗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굴뚝은 꽤 넓어요.” 말로리가 소리쳤다. “적어도 우리는 문제없겠어요. 하지만 파셀 아주머니는 죽었다 깨나도 지나갈 수 없을 거

예요. 게다가 배기관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저걸 빼내 봐야겠어요.”

돌이 거의 바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 보다 쉽게 말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뚫린 공간으로 머리와 어깨를 내민 말로리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좁은 선반 위에 양철로 된 상자 하나가 놓여있었던 것이다.

“아비칸 아저씨! 여기 좀 보세요. 스크럽너가 굴뚝에다 뭔가를 숨겨 놨어요.”

“그자가 뭘 감춰뒀는지 간에 난 관심 없다. 그대로 뒤라. 이리 와서 탁자 나르는 것 좀 도와줘. 우선 문을 막아야해.”

그러나 말로리는 이미 금고를 열어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금고가 열리고 금시계, 보석이 박힌 담배 갑, 여러 개의 금줄 그리고 목에 거는 사진함들이 손에 쏟아지자 말로리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것들은 소렐 지주님 거야!” 말로리가 소리쳤다. “여기 소렐 지주님 가문의 상징 표시가 새겨져 있어요.”

바로 그 때 문이 활짝 열렸고, 스크럽너가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왔다. 말로리가 그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스크럽너는 잠시 동안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내 만족감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쩡그리던 얼굴을 폈다.

“내가 받은 유품들을 찾았구나. 훨씬 더 잘됐군. 덕분에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그 생각을 왜 미처 못 했을까.”

“당신이 소렐 지주님을 죽였죠.” 말로리가 울부짖었다. “지주님께서 강도당한 것처럼 꾸뻘어. 여기 그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지.” 스크럽너는 기분이 좋은 듯 순순히 인정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이고말고. 암살자가 갖고 있는 게 발견되면 더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 그렇게 될 거야. 내 장담하지. 네 덕분에 또 다른 작은 문젯거리가 해결되었구나.”

“난 항상 이 장신구들이 갖고 싶었어.” 스크럽너가 계속 말했다.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들을 숨기면서 마음이 아팠단다. 이것들은 정말 매력적인 물건들이야. 고인이 되신 옛 지주님에 대한 애뜻한 기억을 떠올리게도 해주지만 값도 많이 나가지. 지난번 네 공범자와 여기 침입해 들어와서 네 눈으로 봤겠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말로리가 대답했다. “난 아무것도 못봤다구요! 봤으면 좋았을 걸. 로완에게 당장 달려가서 다 말해버렸을 거예요.”

“물론 그러셨겠지.” 스크럽너가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그럴 염려는 이제 없지.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을 걸. 일단 이 물건들이 범 죄자의 시체에서 발견되기만 하면 그 물건들에 대한 권리를 재산의 일부분으로 내가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고인이 되신 옛 지주님의 시계와 도장을 새긴 반지를 낀다면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겠지. 그러니 그것들을 이리 내놔.”

그러나 말로리는 아비칸 쪽으로 가까이 다가서면서 묵직한 금 반지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저씨, 이 반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말로리가 소리쳤다. “이 반지는 금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라구요! 자요, 여깁어요!”

아비칸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말로리는 그 반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화를 참지 못한 스크럽너는 손을 앞으로 내민 채, 아비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굵었던 아비칸의 어깨가 곧게 펴지고 그의 눈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오지마!” 아비칸이 명령했다. “조심해! 내 마법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다구! 날 건드리지마!”

아비칸의 얼굴에선 빛이 났다. 아비칸 주위의 공기는 아른아른 빛났고 탁탁 소리를 냈다. 전과 다른 마법사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겁에 질린 말로리는 잼싸게 팔을 올려 눈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스크럽너는 이미 앞으로 달려들어 아비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있었다.

천둥소리가 짹하고 말로리의 귓가에 들려왔고 그 충격으로 말로리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말로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팔을 들어올려 펼치고 있는 아비칸의 모습이였다. 아비칸의 팔은 불타는 나뭇가지로 변해있었다.

-제 15 장-

아비칸은 사라지고 없었다. 큰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란 말로리는 멍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일어나서는 아비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댔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금반지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스크럽너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난로 근처에 놓인 그의 신발 한 짝과 검게 타버린 조끼에서는 연기가 났다. 파셀부인은 정신이 돌아왔는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눈을 깜박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 자는 어디 갔니?” 스크럽너가 더 이상 방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파셀부인이 화를 내며 캐물었다. “그 악랄한 놈 어디 갔냐고? 위선자! 힘없는 여자를 괴롭힌 치한! 내가 상대해 주지!”

아비칸이 사라져버린 것 때문에 너무 놀란 말로리는 파셀부인의 질문에 대답할 생각도 못하고 주위를 살살이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로 그 때 누군가 문을 쿵쿵 두들겨댔다. 잠시 후 문의 경첩이 뜯어지면서 문이 떨어지더니 파셀씨가 방 안으로 나동그라져 들어왔고 그 뒤를 공증인이 따라 들어왔다.

자신의 아내가 다친 곳이 없고 성깔도 부리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자 파셀씨는 말로리를 부둥켜안았다.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면서 말로리는 흐느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래, 그래, 말리야,” 파셀씨가 말로리를 달랬다. “네 친구는 다시 나타나게 돼 있단다. 사람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아. 특히 나이든 신사라면 더더욱 그럴 리는 없단다.”

“그는 마법사예요.” 말로리가 말했다. “아직도 절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전 아비칸을 찾아야 해요. 살아 있는 지조차 모르겠어요. 자랑 같이 가요. 아비칸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찾으러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금고의 내용물들을 꼼꼼히 살펴보던 로완이 끼어들었다. 그는 스크럽너의 신발 한 쪽을 흘끔 쳐다보았다. “여기 남겨진 걸로 봐서는 아비칸이나 스크럽너 둘 다 찾기 힘들 것 같다. 그를 다시 찾더라도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을 거다. 그렇게 되면 정말 네가 견디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구나.”

“글쎄, 난 눈썹하나 까딱 하지 않을 거예요.” 파셀부인이 힘주어 말했다. “내 그, 그 놈을 잡기만 하면! 나를 그렇게 위협하다니! 내가 송아지발 젤리요리를 주겠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 여성들의 자선 행사에 그자를 초대한 생각을 하면 치가 떨려!”

“부인, 이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완이 말했다. “오늘밤 이 곳에선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 바입니다. 지주 스크립너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이 언젠가 발견되면 그는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교수형을 당할 겁니다. 증거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저 정도면 저는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나머지 얘기들은 터무니없는 추측에 불과하죠.”

“사실 그대로 밝혀져서 다행이야.” 파셀씨가 말했다. “지주가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로완씨와 내가 마당에 세워진 마차를 보지 못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당신이 그렇게 꾸물거리지만 않았어도,” 파셀부인이 맞받아쳤다. “당신 아내가 그 구역질나는 인간한테 속아 넘어가는 모욕과 치욕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그 인간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줬어요. 실망 그 자체라구요.”

“여보,” 파셀씨가 말했다. “당신이 처음부터 말리의 말을 들었더라면-”

파셀부인이 계속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대는 동안, 말로리는 돌아서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눈으로 직접 아비칸이 사라지는 것을 봤지만 말로리는 아비칸이 여전히 살아있다 생각하려 애썼다. 희망을 놓지는 않았지만 말로리에게 아비칸을 잃은 슬픔은 감당하기 너무 벅찼다.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다며 말로리는 씩씩하게 혼잣말을 했다. 자신이 좋아했던 동화 속 이야기들도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말로리는 아비칸이 그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마법의 힘

조차도 말로리를 저버린 셈이었다. 그녀가 아비칸에게 건넨 황금의 동그라미, 아비칸을 구해내야 했던 그 주문이 오히려 그를 파멸시킨 것이다.

파셀씨가 말로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서 가자, 말리야. 이제 집에 가야지.”

한편 파셀부인은 남편에게서 공증인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오늘은 힘들고 당혹스러운 날이었어요. 로완씨, 오늘 같은 날은 당장 잊어버려야죠. 하지만 그 비열한 인간이 약속한 내용을 마무리 짓는다면 두 다리 쪽 뺀고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겁니다.”

파셀부인이 계속 말을 하는 동안 공증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마간의 금전적 보상금을 준다고 제안했었어요. 말하자면 현상금 같은 거죠. 사실 로완씨, 로완씨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지주의 저택을 통 채로 소유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증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스크럽너씨의 생사와 관계없이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에 대해 가장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살인범을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비칸씨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현상금을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보다 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파셀부인이 소리쳤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무 것도 받지 못한 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비칸이라구요? 우린 그자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니면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조차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자는 사라져버린 이 마당엔 제 남편과 저만 남은 셈이죠.”

“아니, 그렇지 않아!” 공증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파셀씨가 소리쳤다. “그러는 게 아니지 파셀여사. 그건 절, 절대 그렇지 않아!”

파셀부인은 자신의 남편을 노려보았다. 파셀씨는 꼳꼳하게 서서 위엄있게 보이려 하고 있었고 그의 통통한 두 볼은 몹시 화가 난 토끼의 볼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파셀!” 그녀가 소리쳤다. “입 닥쳐요!”

“이봐 파셀여사,” 식당 주인 파셀씨가 대답했다. “그렇게는 못하지!

당신이 날 부추겨서 담보계약을 맺게 했어. 그리고는 식품거래를 속이면 된다고 했지. 내가 당신을 비난하는 건 아니야, 파셀여사. 왜냐하면 나도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런 짓은 그걸로 끝이야.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말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밝혀야지. 만약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말리야.”

“제가 말하려던 것이 바로 그 점이죠, 파셀씨.” 공증인이 큰소리로 말했다. “아비칸씨가 없는 상황에서 말로리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게 아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말로리가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하겠죠. 서면으로요. 제가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하인인 말로리가 선수를 치게 된 것에 두 번 충격을 받은 파셀부인은 목이 메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혈떡거리다가 아예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말로리는 잠시 후에야 공증인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말로리는 공증인을 향해 돌아섰다. “아니요. 전 지주의 저택을 갖고 싶지 않아요. 전 아무 것도 원치 않아요.”



- 제 16 장 -

말로리는 한낮이 돼서야 말을 타고 지주의 저택을 떠났다. 말로리는 제재소 사람들이 그 떡갈나무를 이미 가져가지 않았길 바랐다. “그건 내 나무야, 어쨌든.” 혼잣말을 중얼대던 말로리는 말을 바꿨다. “아니지, 그건 아비칸 아저씨의 나무야. 언제까지나 그럴 거고.” 숲 속 공터에 이르자 말로리는 적갈색 암말에서 훌쩍 뛰어내려 낙담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말로리가 너무 늦었던 것이다. 그 떡갈나무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남겨진 그루터기와 부러진 나뭇가지 몇 개만이 애초에 그 곳에 떡갈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말로리는 슬퍼하며 다시 말레 올라탔다. 바로 그 때, 말로리는 크게 소리쳤다. 아비칸이 바로 그녀 앞에 서있었던 것이다.

마법사 아비칸의 망토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고, 그의 수업은 예전보다 더 백발이 심해진데다가 온통 뒤엉켜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예리했고 위엄이 있었다. 아비칸의 눈빛은 손으로 뭔가를 사로잡는 듯 강렬했다. 잠시 동안 말로리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어 스스로도 놀랐다. 그리고 나서야 말로리는 마음이 놓였는지 흐느끼며 아비칸에게 달려갔다.

“정말이지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무슨 그런 황당한 생각을 했냐.” 아비칸이 대답했다. “사실은 내 마법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단다. 좀 너무 강해졌다 싶기도 하고. 나무에 간혀있던 몇 년 동안 마법의 힘이 무르익은 게 틀림없어. 나조차도 놀랐다니까.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였어. 그렇게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여기에 나타나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번 고비도 넘겼지. 앞으로 몇 백 년 동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했었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괴로울지 너도 상상할 수 있을 게다. 그 스크립너라는 작자 일은 유감스럽게 됐지. 자기 무덤을 자기 손으로 판 게야. 분명 날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으니까. 그것 말고는 모든 일이 잘 풀렸어.”

“아니-아니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로리가 말을 시작했다. “아

비칸 아저씨, 일이 있었어요-”

“심각한 일은 아니겠지.” 마법사가 대답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겪은 일보다 더 안 좋기야 할라구.”

“심각한 일이에요.” 말로리가 말했다. “지주의 저택 말인데요. 제가 그걸 갖게 됐어요. 전부 다요.”

“그렇다면,” 아비칸이 대답했다. “축하할 일로구나. 주인을 제대로 만난 게로군.”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말로리가 계속 자기 생각을 말했다. “전 갖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갖고 싶은 생각이 없다가요. 파셀 아저씨와 로완씨가 계속 얘기하고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 그러겠다고 대답은 했어요. 두 분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하려구요. 하지만 이제-”

“내 기억엔,” 아비칸이 말을 가로막았다. “꼭 대저택의 안주인이 되고 싶다고 네가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하지만 그건 그건 그냥 소원이었다구요.”

“그러면 뭐냐,” 아비칸은 날카롭게 대답했다. “넌 네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게 두려운 거냐?”

“전 부엌에서 일하는 아이예요.” 말로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제가 장부를 정리하고 소작인들을 다루겠어요. 그런 게 다 뭔지도 모른다가요.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게다.” 아비칸이 말했다. “진심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로완씨는 아저씨가 저택에 가장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 하셨어요.” 말로리가 제안했다. 그러나 아비칸은 성급히 머리를 설레 설레 내저었다.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네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거라. 그리고 날 위해 그런 걸 빌어줄 생각일랑 하지도 말어.”

“한 가지는 결정했어요.” 말로리가 말했다. “제가 대저택의 주인이 된다면 파셀 아저씨의 담보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해 드릴 거예요. 파셀 아저씨는 저당 잡히지 않은 완전한 여인숙을 갖게 되고, 그걸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또 마음먹은 게 있는데요. 전

절대 석탄 채굴장을 짓기 위해 집들을 허물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스크립너가 계획한 길은요-이미 파손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원래대로 고쳐놓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아비칸이 말했다. “쉽진 않을 게다만. 일단 일이 시작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항상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순 없는 거지. 네가 마법사의 세계에서 살 수 없는 것만큼이나 나 또한 인간들 세계에서 살 수는 없는 게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상식대로 살아가는 거란다. 그렇게 살더라도 일이 뜻대로 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

말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저씨 말씀이 옳아요. 동화속 이야기에서처럼 되는 일은 없더라도요. 전 정말 동화를 좋아하고 그 이야기들을 믿어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요.”

“사실이 아니라니?” 아비칸이 소리쳤다. “당연히 사실이지! 그 이야기들은 언제나 진실된 이야기로 남아있을 거란다.”

“하지만 아저씨께서 말씀하시길-”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어떻게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냐? 내 말인즉슨-그래, 그 이야기들은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우리 마법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물론 너야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은 인간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아니면 적어도, 인간의 가장 좋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나. 바깥 세계, 마법사 세계 혹은 다른 세계에서야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닐지는 모르지. 하지만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사실이지, 그렇고 말고. 자, 나를 따라 오거라.”

말로리는 아비칸을 따라 덤불숲을 헤치고 언덕을 내려가 강가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아비칸은 멈춰섰다. 물가에는 너무나 광택이 나서 빛을 내며 타오를 것 같은 작은 나무배가 흔들거리고 있었다. 선체의 선들이 하프의 곡선처럼 앞쪽으로 뻗어있었다. 가느다란 돛대에는 햇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돛이 매달려 있었다. 배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말로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 들어 시선을 돌렸다.

“멋지지, 응?” 아비칸이 말했다. “이거 만드는데 나도 꽤 시간이

걸렸단다. 회계실에서 갑자기 내가 사라진 이후 이걸 만드느라 바빴지. 그래서 너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거고. 깜짝 놀라게 하면 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단다. 내가 작별인사도 안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깔끔하고 항해하기에 알맞은 배야.” 아비칸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 떡갈나무로 배를 만드니까 정확히 내가 필요한 양의 나무가 나오더구나. 뜻을 단 건 내가 나중에 생각해낸 거지. 꼭 필요해서는 아니고,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장식을 하려고 매달았어. 하지만 덕분에 확실히 배가 구색을 갖췄지 뭐냐.”

아비칸은 말을 멈췄다. 말로리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아비칸은 말로리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애석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안된다, 애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단다.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니. 나에겐 내 길이 있듯이, 너에겐 네가 가야 할 여정이 있는 거란다.”

“저도 알아요.” 잠시 뜰을 들이다 말로리가 말했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요-”

“그래. 그렇게 언제나 뭔가를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게다.” 아비칸이 조용히 대답했다. “네 소원이 정말 간절한 것이라면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실제로 뭔가를 하게 될 지도 모르거든. 내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지.” 그는 계속 말을 했다. “너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려고 얼마나 머리를 쥐어짠는지 모른단다. 정말 적당한 걸 찾아낼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갖고 싶은 걸 한 가지 말해 보거라. 물론 황당하지 않은 거여야 해.”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말로리가 말했다. “더 이상 아무 것도 원치 않아요. 아저씨를 기억할게요. 그거면 충분해요.”

“나도 널 기억할 테니,” 아비칸이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넌 이미 다 가지고 있단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 아비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면서 말로리가 조용히 말했다.

마법사 아비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있거라.” 아비칸은 말로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돌아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배에 올랐다.

배는 강둑에서 떨어져 순조롭게 강 한가운대를 향해 떠갔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배는 물살을 따라 빠르게 강 하류 쪽으로 흘러갔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황금빛 돛이 펄럭거렸다. 그리고 배는 앞으로 거침없이 밀려갔다. 말로리는 배 뒷부분에 웅크린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 작가 소개

로이드 알렉산더는 <고귀한 왕>으로 뉴베리 메달, <검은 가마솥>으로 뉴베리 영예상을 포함하여 많은 수상경력을 갖고 있는 작가이다. 가장 최근의 소설 <쇠반지>과 여주인공 베스퍼 홀리에 대한 시리즈물들 또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아내 제닌과 애완고양이들과 펜실베니아 드렉셀 힐에서 살고 있다.



## 참고 문헌

- 안정효, 『번역의 테크닉』, 현암사, 1996.  
최정화, 『통역번역입문』, 신론사, 1998.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넥서스, 2001  
Michael Swan, *Practical English Usage*,  
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1995.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2nd Edition,  
HarperCollins Publishers, 1995.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Addison Wesley Longman, 1998.  
*Essence English-Korean Dictionary*, 5th Edition, 민중서림.  
*Si-sa Academy English-Korean Dictionary*, 시사영어사.

